

제16권 제1호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2014. 4

포커스 2013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실태  
2014년 특별기획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체계  
북한농업 동향  
농업교류협력 동향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02-2014-01 | 2014.4 |

제16권 제1호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임수경 bluemt86@krei.re.kr      02-3299-4359

# 목 차

## 1 포커스

- ▶ 2013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실태 ..... 3

## 2 2014년 특별기획

- ▶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체계 ..... 21

##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33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68

##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2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21
  -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 134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38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38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143
  - 3. 북중 교역 동향 ..... 157

##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방도 ..... 167
- ▶ 현 시기 산림조성 및 보호 통계지표체계를 정확히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 169
- ▶ 과수농장소득분배에서 보상금공간을 옹계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 172



• KREI 북한농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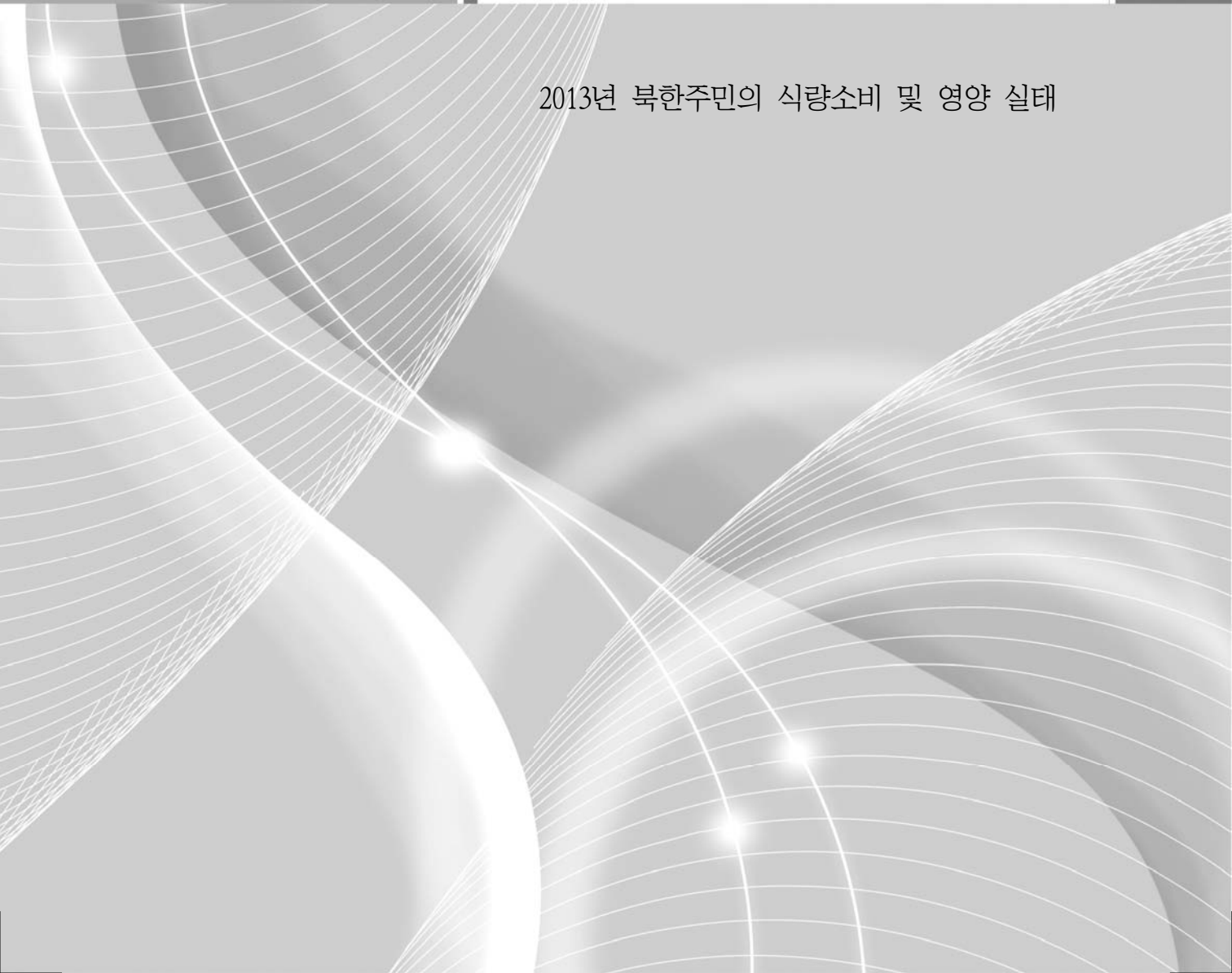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 포커스

2013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실태







# 2013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실태<sup>1)</sup>

정리: 김영훈<sup>2)</sup>, 임수경<sup>3)</sup>

## 1. 북한주민의 식량소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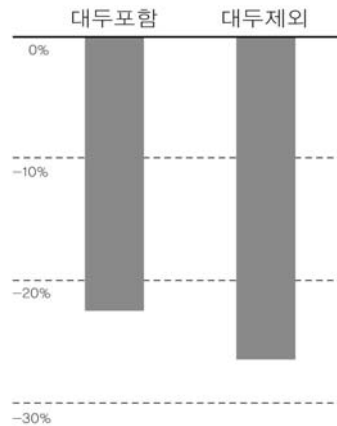
### 1.1 식량소비

#### 〈양과 질〉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에 있어 부족한 수준이다. 2012년의 보고서<sup>4)</sup> 기록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1인당 1일 곡물 섭취량은 360g이다.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의 1인당 1일 곡물 소비량은 이보다 낮은 310g으로 열량으로 환산하면 1,250kcal가 된다. 여기에 야채와 유지 섭취량을 포함하면 1일 총 섭취열량은 1일 권장 열량섭취량인 2,100kcal보다 30% 가량 부족하며, 이는 2012년 보고서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 농가의 1인당 1일 곡물 소비량은 400g으로 식량배급에 의존 가구에 비해서는 높지만 1일 권장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북한 주민의 식단은 다양성이 부족하다. 8가지의 식품군<sup>5)</sup>에서 일상적으로 3~4가지 식품군

그림 1. 북한주민의 단백질 부족실태 (대두포함 및 제외)



\*출처: 2013 CFSAM

1) 이 글은 FAO/WFP의 전망보고서(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11. 28)를 토대로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조원, bluemt86@krei.re.kr

4)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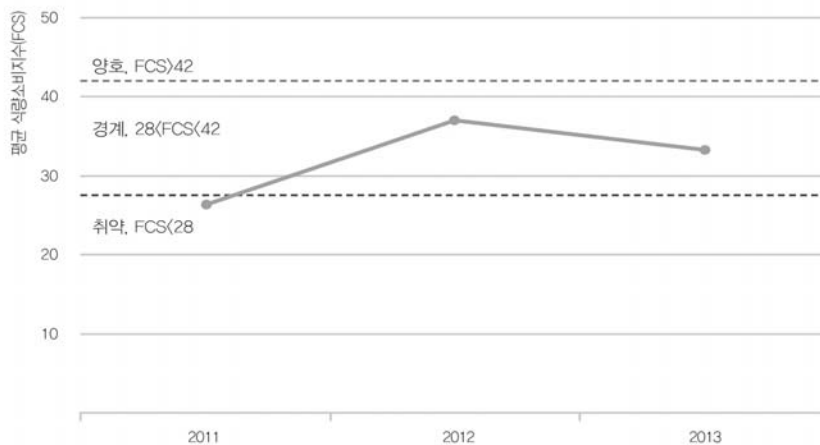
5) 8가지 식품군은 곡물, 채소, 두류, 과일, 육류/어류/알류, 유제품, 유지류/지방, 당류로 분류된다.

(양념을 곁들인 곡물, 김치, 유지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대두의 소비량은 전국적으로 계속 하락세다. 북한의 전형적인 식단에서 단백질은 크게 부족하다(22% 부족). 대두를 제외할 경우 단백질 부족량은 26%로 증가한다(그림 1).

지방/유지류 식품의 소비는 1인당 1일 평균 반 스푼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 지방/유지류는 1일 권장 열량섭취량보다 3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류는 크게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국경일에 식량배급을 통해 육류 특별배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가구들에 있어 2013년 육류를 마지막으로 섭취한 날은 9월 19일 추석이였다. 달걀의 소비는 평균 주 1회로 육류에 비해 많은 반면 유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안, 강변, 양어장 인근의 주민은 소량의 어류를 소비하고 있다. 과일 소비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주 1회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수준을 종합할 때, 2013년 총 표본가구(n=375)의 평균 식량소비지수는 2012년에 비해 조금 낮지만 2011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그림 2. 2011-2013년도 식량소비지수 추세



\*출처: WFP 모니터링 데이터, 2013 CF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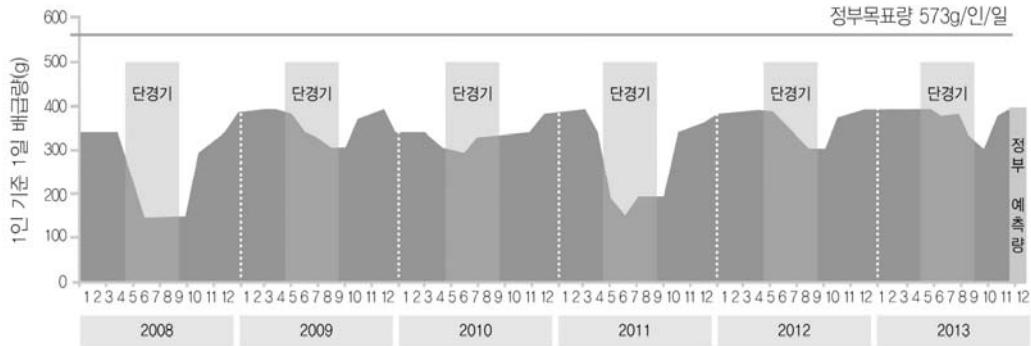
## 1.2 식량배급제도

### 〈식량배급제도의 가구 배급량〉

식량의 가구당 배급량은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된 평균 배급량 변동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식량 배급량은 일반적으로 10월에 가장 적다. 가구 조사에 의하면 식량부족 현상은 감자, 벼, 보리 등 조기재배작물의 수확 완료

에 따라 8월말부터 증대되기 시작하며, 식량배급도 10월 배급시기까지 소량에 머문다. 이는 식량배급제도와는 별도의 경로로 이 시기 식량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림 3. 월평균 일일 식량배급량(2008~2013년)



\*출처: WFP 모니터링 자료 및 2013 CFSAM

양정성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단경기를 제외한 월평균 배급으로 1인당 1일 평균 400g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7월에는 1인당 1일 평균 390g, 8월 첫 배급에서는 350g, 두 번째 배급에서는 320g, 9월에는 310g이 조달되었다. 10월 목표배급량은 1인당 1일 평균 390g이고 11월, 12월에 다시 400g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가구당 배급량은 가족구성원의 나이, 부부의 직종, 학교나 유치원의 식사 제공 등과 같은 기타 공급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에서 보고한 연령별 평균 배급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령별 일일 배급량

평균연령	평균 배급량	
	390g/인/일	400g/인/일
<1	65	67
1~4	130	134
5~6	195	200
7~10	265	270
11~16	330	340
17~59	460	475
>60	395	400

\*출처: 2013 CF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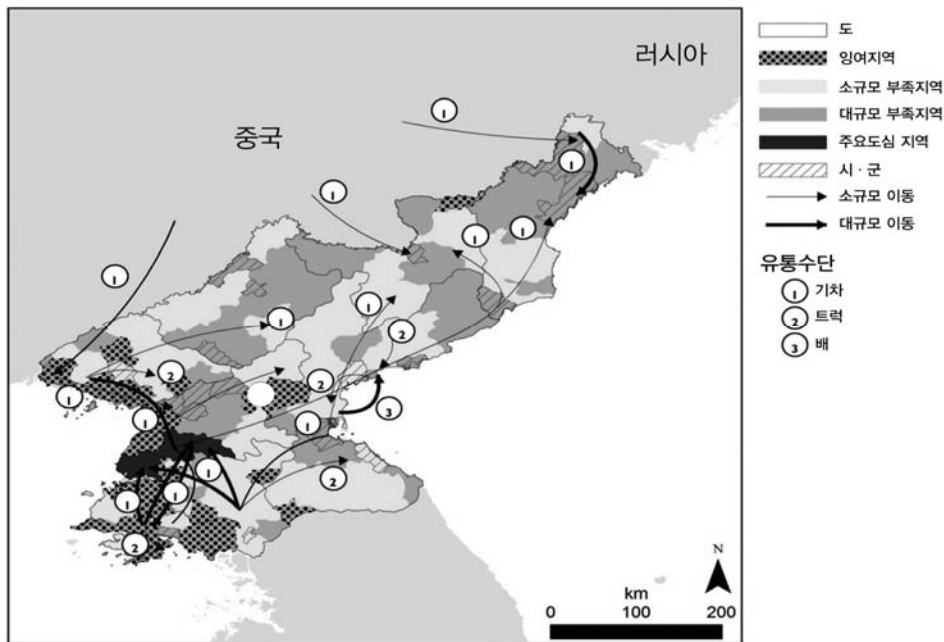
### 〈식량배급의 재고 및 유통〉

군 단위의 식량 재고량은 한정되어 있다. 전국의 군 중 절반 정도가 10월 상반기에는 첫 번째 식량배급제도 필요량(1인당 1일 할당량 390g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사단이 방문한 한 군에서는 약 14만 명을 위한 식량재고량이 38kg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동북지역에서는 재고량이 없는 군도 있었다. 대개의 군 창고들은 매월 첫 2회 정도의 배급이 끝나면 비어 있다. 관계자들은 재고가 어떻게 보충될지에 대해 정보가 없었으나 곧 보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급식량은 대체로 식량잉여지역인 남부와 서부(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서 식량부족지역인 북부와 동해안 지대(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로 수송된다(그림 4).

대부분의 식량은 철도로 수송된다. 식량잉여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식량을 수송하는 운송의 중심지는 평양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잉여생산의 수량과 목적지는 양정성에서 모두 관리한다. 둘째, 남/서에서 동/북으로 재분배되는 식량의 물류는 제한된 철도시설에 크게 의존하는데 대부분의 철도시설이 평양을 거친다.

그림 4. 북한 내 식량의 이동



\*출처: 2013 CFSAM

인접한 지역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트럭이나 해상(특히 함경남도)으로 운송된다. 북부와 동부 지역처럼 식량부족이 심각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철도와 트럭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송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수입된 곡물도 있는데 주로 평안남북도(신의주 경유), 양강도(혜산 경유), 함경북도(회령 경유)로 유통된다. 중국에서 조달된 곡물은 대부분 최종목적지까지 철도로 유통된다.

운송되는 식량은 하역하여 군 저장소에 저장된다. 군 저장소에서 식량배급소로 운송되어 주민에게 전달되려면 2차적인 유통망이 필요하다. 물류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 군 저장소와 지역 배급소에서 기초 재고물량을 수령하기까지 지체가 자주 발생한다. 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체 배급을 지연시킨다. 재고 보충이 완료될 때까지 식량배급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민들은 시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표 2>는 군 단위 곡물 필요량과 군 식량배급소의 재고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2013년 11월) 수확 중인 쌀의 즉각적인 재분배로 10월 할당량의 일부를 충당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대로 되더라도 대량의 유통 시설 미비로 인

표 2. 시/군별 곡물필요량 및 재고량(2013년 10월 1일 기준)

도	지역	배급의존 인구(추정치)	10월 1차 배급필요량 <sup>6)</sup> (톤)	총 재고량 (톤)	1차 배급을 위한 잉여/부족분(톤)	10월 배급을 위한 잉여/부족분(톤)
함경남도	회상구역	652,694	3,818	600	-3,313	-7,036
강원도	원산시	288,828	1,690	590	-745	-2,790
자강도	희천시	134,009	784	38	-745	-1,530
강원도	고산군	51,282	300	1	-299	-599
평안북도	동림군	48,998	287	150	-137	-424
황해북도	린산군	41,401	242	118	-124	-366
황해북도	평산군	64,487	377	450	+73	-304
강원도	문천시	79,753	467	590	+123	-344
황해남도	태탄군	18,134	106	304	+197	+92
함경남도	금야군	79,325	464	670	+206	-258
함경남도	덕흥동	33,347	195	600	+405	+210
평안남도	평성시	190,190	1,112	2,895	+1,782	+671

\*출처: 2013 CFSAM

6) 1인 1일 기준 390g에 기초하여 15일 동안

해 식량이 기한 내에 각 식량배급소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군은 25~30개소의 식량배급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배급소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가구는 700~2,900가구에 이르고 있다. 조사단이 방문한 식량배급소들은 대부분 1,000가구 이상의 배급량을 저장하기에 공간이 부족했다. 조사단의 판단에 의하면 10~11월은 물론 12월 첫 배급까지 지체가 불가피하다.

**〈국영상점〉**

식품배급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영상점은 곡물 외에 유지류, 양념류(된장, 간장, 요오드 무첨가 소금 등), 채소(무, 김치, 가지, 미역) 등을 공급한다. 과일, 육류 및 두부와 같은 식품은 특정 계절이나 국경일에만 공급된다. 농촌지역에 있는 일부 국영상점은 식품 외에 의류, 공책, 연필, 학용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판매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배급의 일환으로 가구에 배급표가 할당되고 보고되었지만, 조사단이 방문한 모든 국영상점에서는 일부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있었다. 실시된 가격은 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고 동일상품의 시장가격과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소금은 1kg당 3원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어느 상점에서는 15.5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유통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단이 수집한 가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국영상점의 식품가격

품목(단위)	가격범위(원)
된장(kg)	22
간장(kg)	22~25
유지류(kg)	250
무요오드 소금(kg)	3~15.5
요오드 소금(kg)	12
마늘(kg)	380
두부(kg)	6~250
고추(kg)	616
소시지(개)	2.5
배(kg)	40
사과(kg)	68
떡류(25g/개)	0.4
콩사탕(20g/개)	0.5
소주	40~60

\*출처: 2013 CFSAM

조사에 의하면 한 가구의 월평균 국영상점 방문 횟수는 1.6번이고, 매월 유지류 1.7kg, 간장 2kg, 된장 6kg 정도를 구입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국영상점이 평균 1,673~5,020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가구를 상대하는 평균규모의 상점이 한 달에 필요할 수량은 유지류 501톤, 간장 600톤, 된장 1,800톤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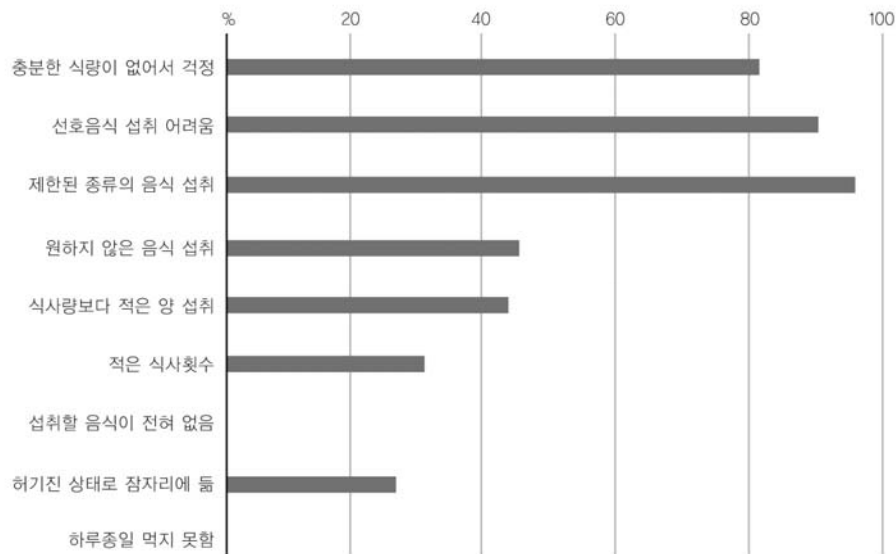
그러나 조사단이 방문한 국영상점들은 대부분 비축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유지류가 전혀 없었고 된장을 비축한 상점도 드물었다. 남서부 지역의 상점들에서는 육류(소시지), 마른생선, 두부 및 다과(떡, 콩 사탕, 땅콩) 등의 재고가 있었다. 국영상점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한 공급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3 주민의 식량안보 및 대응

#### 〈식량부족 대응방식〉

불규칙적인 배급으로 인해 배급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의 80%는 식량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북한 가구의 식량불안 영향



\*출처: CFSAM 2013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식량부족을 겪는 기간을 5월에서 8월초 사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가구의 90%는 협동농장에 사는 친척에게 의존한다고 답변했다. 산야초를 채집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 같은 대응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배급제 의존 가구들의 약 60%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물물교환에 많이 의존한다고 밝혔다. 조기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8월말부터 10월까지의 배급 감소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식량에 대한 접근성〉

협동농장 농가들은 대부분의 식량을 분배나 소토지농사로 확보한다. 생산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 농가당 자급생산량 중 1년 분배량은 260kg이며 나머지의 수확량은 수매된다. 농가들은 9~10월에 분배를 현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년 분배량에서 공제된다.

일부 농장에서는 작업분조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했다. 농업근로자 1인당 목표치에 추가적으로 65kg를 생산하게 되면 (최대) 15개월에 상당하는 분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배량이 8개월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농가들은 모두 소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채소를 자급한다.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 중 소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8%로, 그들이 소비하는 곡물의 약 8%와 채소의 98%를 소토지농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sup>7)</sup> 소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나머지 62%의 가구에서는 지원과 교환이 곡물(총 곡물량의 16%)과 채소(전체의 52%)의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1가구당 1년에 24kg의 곡물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 공급 받는다. 시장은 공식적으로 채소나 곡물의 공급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시장에 매월 2~3번 정도 방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시장〉

매일 열리는 도시 공설시장이나 농촌지역에서 10일에 한 번 열리는 장마당은 채소와 육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급원이다. 조사단은 도시 공설시장에서 육류, 신선채소,

7) 여기 백분율은 '읍'지역 조사결과를 통한 것이다. 2013년 7월 'PRRO 리뷰'는 식량배급제 의존가구 중 57%가 소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2 EMOP 리뷰'에서는 69%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표본지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의류 등 여러 생산품들을 볼 수 있었다. 장마당은 의류와 신발 등 생필품과 지역 농산물, 양념, 담배, 해산물, 소가축 등 판매물품이 한정적이었다.

시장가격은 일관성이 없었지만 국영상점에 비해 높았다. 국영상점에서는 마늘 1kg이 380원인 반면 장마당에서는 2,000원이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의 수입 방법은 불분명하다. 조사단이 관찰한 품목별 가격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격의 차이는 시장간의 유통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에서 군으로의 이동이 통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sup>8)</sup>

표 4. 장마당의 식품가격

품목(단위)	가격범위(원)
사과(kg)	1,500~4,000
배(kg)	500
감자(kg)	200
토마토(kg)	1,500
마늘(kg)	850~2,000
고추(kg)	6,000
건고추(kg)	500
토끼	800~4,500
새끼 토끼	500
닭(kg)	3,000~6,000
오리	6,000
새끼돼지(kg)	7,000
돼지(kg)	5,000
달걀(개)	300~800
건조생선(kg)	900
생물생선(kg)	1,000
계(kg)	4,000
새우젓(kg)	150

\*출처: 2013 CFSAM

주거지에서 시장까지의 평균거리는 12리(약 4.7km)지만, 조사단이 만난 도시가구들은 대부분 5리(약 2km) 이내에 있었다. 조사단이 직접 관찰한 결과 북한의 시장 활동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활성화되어 있었다. 즉, 식량 조달에 시장의(공식 및 비공식)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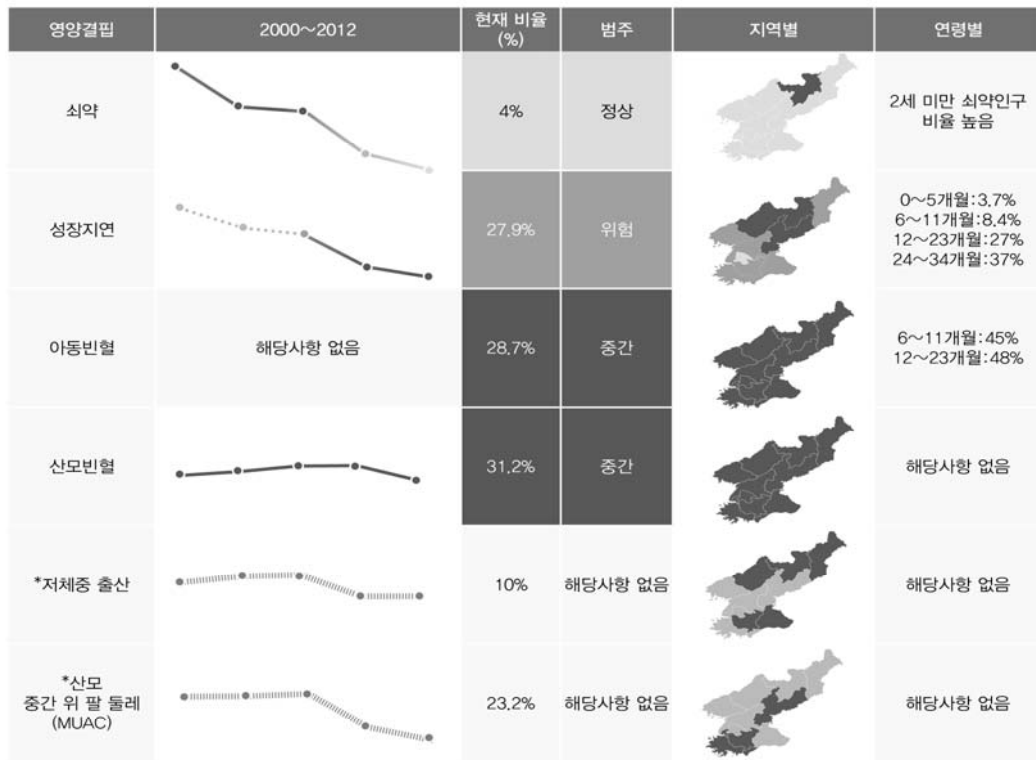
8) 북한 시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으며 군 사이 이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 2. 취약계층(산모, 유아, 아동 등)의 영양상태

### 2.1 영양부족 상황

발육부진, 소모성 질환, 저체중 등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호전되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모성 질환 발병률(4%)은 이제 정상범위에 들어왔다. 발육부진율이 2000년 45%에서 2012년 28%로 감소했지만(매년 2% 이상 감소),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발육부진은 여전히 심각한 공공보건분야의 과제다(그림 6).

그림 6. 북한 영양결핍 추세(2000~2012년)



#### WHO 영양결핍 범주

- 낮음(성장지연·쇠약·빈혈 정상)
- 중간(성장지연·쇠약 경도, 약간의 빈혈)
- 높음(성장지연·쇠약 심각, 빈혈 중간)
- 매우 높음(성장지연·쇠약 위급, 빈혈 심각)
- 저체중 출산이나 MUAC(Middle Upper Arm Circumference, 중간 위 팔 둘레) 관련 범주 미결정

#### \*저체중 출산 및 산모의 MUAC 지도

- 국가평균 이하
- 국가평균 이상

\*출처: 북한의 국가영양 조사 자료(2012년)

북한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킨 요인들은 뚜렷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시장도 영양실조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

소모성 질환의 발병률은 국가 전체로는 낮지만, 높은 수준인 지방도 있다. 지리적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부와 동부에 위치한 양강도와 자강도다. 발육부진을 역시 양강도, 함경남도, 자강도는 30%(‘심각’으로 분류)를 상회하고 있다. 발육부진이 가장 심각한 양강도의 경우 만 5세 미만 아동의 유병률은 39.6%에 달한다(40% 이상은 ‘위기로 분류). 평양시의 경우는 발육부진율이 ‘정상’(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소모성 질환 발병률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는 소모성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수확기(9~10월)에 실시되었다. 소모성 질환은 5월에서 8월 사이의 단정기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북한의 영양부족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0세에서 23개월 아동의 소모성 질환 발병률은 24개월에서 59개월 아동보다 조금 높다. 이러한 현상은 0세에서 23개월 아동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차선의 수유방식에 기인한 세계적 동향과 연관이 있다.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8.4%로 비교적 낮다. 반면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27%로 급증하고,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34%로 더욱 증가한다.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의 낮은 발육부진율과 비슷하게 지난 10년 간 저체중아의 비율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의 결정 요소인) 산모의 임신 중 평균 체중증가는 약 5kg로 권장 기준치인 10kg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현상은 임신 중 산모의 식량 소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임신 중 저조한 체중증가 및 발육부진율을 감안하여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하는 산모의 영양 결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모유 수유 방식과 보완 수유를 고려해야 한다.

임산부와 임신하지 않은 여성(31.2%) 및 6개월에서 59개월 아동(28.7%)의 빈혈 유병률은 ‘보통’ 수준의 공공보건 문제로 간주된다. 특별한 우려사항은 6개월에서 11개월 아동(45.4%)과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47.9%)의 높은 빈혈 유병률이다. 빈혈 유병률이 20% 이하인 지방은 없으며, 강원도가 아동의 빈혈 유병률이 가장 높고(39.3%) 양강도가 산모의 빈혈 유병률이 가장 높다(36%).

빈혈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철분 및 비타민 B12군 섭취와 십이지장충병과 같은 기생충 감염이다. 북한에서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부족은 철분, 아연, 비타민 A군의 결여와 높은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빈혈, 발육부진 및 유병율 증가로 이어진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서 요오드 수치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요오드 결핍증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추정된다. 요오드 결핍증의 주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과 정신지체다. 요오드 첨가 소금을 보유한 가구는 2000년 1.5%에서 2010년 42.1%로 증가했으나, 국제적 권장치인 95%보다 현저히 낮다. UNICEF에서 요오드 처리 소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금 생산지가 다수이기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조사단이 관찰한 바 국영상점이 유일한 소금공급처이며 이 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것이다. 2010년에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요오드 첨가 소금을 섭취하는 가구는 42.1% 뿐이었고 그 중 요오드가 충분히 첨가된 소금을 섭취하는 가구는 23%에 불과했다.

## 2.2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

### 〈아동기관의 영양공급〉

북한 아동들은 대부분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아동기관을 매일 다닌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4개월이 되면 산모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탁아소에 맡겨진다. 4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올라가고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조사단은 13개의 탁아소, 2개의 보육원(5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 9개의 유치원을 포함해 24개의 아동기관을 방문했다. 아동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설에 위탁되고 1일 식량섭취량의 상당한 부분을 시설에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 아동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시설의 식량공급과 급식내용은 특히 중요하다.

보육원에서는 1일 3식, 탁아소에서는 1일 2식, 유치원에서는 1일 1식이 제공된다. 제공되는 식량은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시설에서 동물성 단백질(특히 철분, 비타민 A군, 비타민 B12군, 아연, 리보플래빈 및 칼슘과 같은 미량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은 국제권장량 보다 현저히 낮은 극히 소량으로 제공된다. 육류 공급은 드물며 대부분 국경일에 소량으로 제공된다. 어느 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아동 한 명당 한 달에 약 25g의 육류가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선과 달걀 섭취량 또한 매우 적으며 한 달에 1~2번으로 국한되었다. 달걀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 한 명당 1/4 내지 반개가 주어진다. 조사단이 방문한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두유 1/4컵 내지 반 컵을 매일 제공했다. 과일 섭취는 계절에 따라 다르며 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급식의 양과 질은 국제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각 기관의 영양 공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급식: 급식은 대개 곡물 기준 100g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1일 채소 공급량은 소토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단이 관찰한 결과 넓은 소토지를 보유한 유치원의 채소 공급사정이 비교적 좋다. 이런 유치원의 경우, 1일 채소 공급량이 곡물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 탁아소 급식: 급식의 양과 내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에게는 만 3~5세 아동의 절반이 공급된다. 조사단이 관찰한 결과 만 1세 미만 아동에게는 육류나 채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공급량은 비교적 많고 내용도 다양하지만 만 3~5세 아동보다는 적다.

- 학교급식: WFP가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과자(30~60g) 혹은 곡물과 유제품 혼합으로 만든 팬케이크(100g)를 제공하고 있다. WFP가 지원하는 부식은 영양이 풍부하여 제공하는 1일 식량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유아 및 아동 영양공급 (IYCF)〉

‘국제 유아 및 아동 영양공급(IYCF)’은 유아에게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만 하고 만 2세까지 이유식을 모유와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모유 수유: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0~6개월 유아의 68%가 모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2013년 조사단이 인터뷰한 산모들에 의하면 산모의 출산휴가(일반적으로 4개월)가 끝날 때까지 모유를 수유한다고 밝혔다. 유아가 탁아소에 들어가면, 산모가 모유 수유를 위해 탁아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모유 수유만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 이유식 도입: 6개월 이상의 유아는 이유식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아동 중 권장 최소 식단의 영양을 섭취하는 아동은 26.5%에 불과했다. 평양시 아동이 59.4%로 가장 높고, 평양시 외에는 양강도 15.6%, 평안남도에서 25.8%로 나타나고 있다.

- 부실한 식단 다양성: 유아와 아동의 영양부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산모의 영양 상태, 특히 산모의 식단 다양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에 비해 산모의 식단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49.6%), 이는 아동기관의 급식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동물성 단백질 부족: 2012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 상태가 아이의 발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식단의 다양성, 발육부진, 미량영양소 결핍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이 섭취하는 주요 식품의 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 모유 대용식의 부족: 2009년 ‘다중 지표 클러스터 조사(MICS)’와 더불어 조사단의

관찰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모유 대용식(BMS 또는 분유)이 보편화되어있지 않다. MICS에 의하면 23개월 이하 아동 중 3.5%만 분유를 제공받는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쌀, 우유(또는 두유)로 만든 모유 대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F75와 F100(치료식 우유)을 모유 대용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유 대용식의 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모유 수유를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산모·유아·아동의 영양균형에 대한 관심: 임산부,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이상적인 영양공급을 강조하는 체제와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특수 영양식의 현지생산: 1998년 이래로 WFP는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임산부와 아동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영양강화혼합비스켓’을 다양하게 개발했다. 현재 14개소의 현지 공장에서 ‘곡물-우유 혼합비스켓(CMB)’, ‘옥수수-대두-우유 혼합비스켓(CSM)’, ‘쌀-우유 혼합비스켓(RMB)’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능력은 월 20톤에 불과하며 제품의 가격도 높다.

## 2.3 질병

지리적으로 함경북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고(설사병 18%) 그 다음은 강원도인 것으로(급성호흡기질환 8.6%) 보고되었다. 만 2세 미만 아동의 유병률은 특히 높았다. 6~11개월 사이 아동 17.8%와 12~23개월 사이 아동 17%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장 많은 질병은 역시 설사병과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설사병, 소화불량, 급성영양실조는 장마철(6~8월)에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론에 의하면 설사병 아동의 비율은 수확기(10/11월)에는 10% 미만인 반면 장마철에는 약 30%까지 상승하고 있다.

## 3. 요약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주민들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에서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단백질(육류와 대두) 섭취가 불충분하다. 대두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량소비를 하고 있는 가계는 16%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주요 식량 공급원은 식량배급제이다(인구의 70%에 해당). 북한 정부는 배급 목표를 1일 1인당 평균 573g으로 잡고 있으나 매년 미달되고 있다. 이는 절대량의 부족은 물론, 물류상의 취약성에도 기인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급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국영상점은 소금(요오드 무첨가), 된장, 간장, 유지류 등 제한된 필수식품만을 제공하며, 재고 상황에 따라 배급이 좌우되고 있다. 육류는 주요 국경일에만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가구 단위에서 식량 부족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며, 특히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심각하다. 자금 능력이 부족한 식량배급제 의존 가구들은 협동농장에 있는 친지의 도움을 받거나 식량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산야초를 채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지만 방문한 몇몇 시장들, 특히 상설 공설시장에서 육류, 신선 채소, 의류 및 비식품 등 여러 상품을 볼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직판장에서는 주로 지역 농산물, 담배 및 소가축을 판매했다. 조사단의 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량경제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역할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영양실조 아동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발육부진율은 높고 미량영양소 결핍도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 산모와 유아를 타겟으로 한 영양공급 프로그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 2014년 특별기획

향후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방향①: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체계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대북정책 방향은 2014년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독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것은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협력의 우선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 등 남북농업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시범조립 및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추진과 장기적으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등 유럽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복합농촌단지’ 협력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지 제16권에서는 향후 농업협력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해 4회에 걸쳐 기획논단을 꾸미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번째로서 전체적인 방향과 이슈를 다룬 것이다. - 편집자 주

향후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방향①:

##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체계

김영훈<sup>1)</sup>

###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의거한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의 준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농업분야의 대북정책 방향은 2014년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독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협력의 우선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 등 남북농업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시범조립 및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추진, 장기적으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등 유럽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복합농촌단지’ 협력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2014 김정은 신년사에서 농업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농업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 ‘주타격 대상’으로 선정해 농업부문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남북한 사이에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면서 남북관계개선 희망을 언급했다.
- 농업부문 ‘전국분조장대회(2014.2.6.)’를 통해서는 농업부문의 개혁조치를 시사했다. 그 주된 내용은 협동농장이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작업분조’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며, ‘포전담당책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각급 ‘전형단위’)을 우선 전개해 성과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 2014년 초 남북관계 동향에서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남북적십자사는 2월 20일에서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또 2월 12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한 바 있다.
  - 최근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반응과 NLL인근 포사격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 중이나, 대북 인도지원이 재개되면 남북 간 농업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예정되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남북통일’과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농림분야에서도 남북농업협력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남북협력에 대한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 2. 북한농업의 문제

-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면서 북한경제도 심각한 침체에 접어들었다.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 조달이 어려워졌으며, 농업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난이 심화되어 위기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실천적인 농정시책들을 개발해 추진했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재배 확대 등을 강조했으며, 대규모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수로 개설공사를 추진했다. 축산부문에서는 식량난을 반영해 초식가축 사육을 촉진했다.
- 식량위기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농업개혁조치를 실험하고 식량 생산에 가용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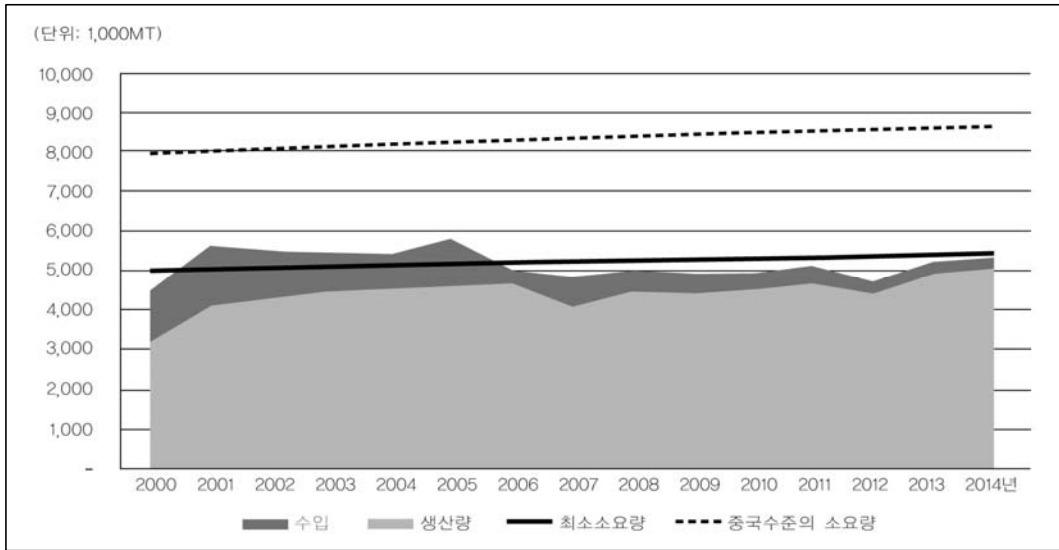
원을 우선 배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은 20년 가까이 저생산에 머물고 있으며(표1), 식량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그림1).

표1. 북한의 곡물 생산성 (2009~2011년)

곡종	면적 <sup>1)</sup>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A/B (%)
		실제치 <sup>2)</sup>	잠재력 <sup>3)</sup>	실제치(A)	잠재력(B)	
쌀	570	2.8	5.0	1,610	2,850	56
옥수수	503	3.5	4.8	1,748	2,414	72
감자	166	3.2	3.9	524	647	81
밀·보리	99	1.6	2.6	155	257	60
콩	300	1.2	1.7	350	510	69
	1,638			4,386	6,679	66

주: 1), 2) 2009~2011 기간 북한 평균치  
 3) 2009~2011 기간 남한 평균치(자료: FAO Statistics)

그림1. 북한의 식량 수급 (2000~2014년)



자료: FAO, WFP, 대한민국통계청, 중국농업동향(KREI)

- 북한 농업이 장기 침체에 놓여있는 근본 이유는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에 있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중국의 생산책임제 개혁과 같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실행해야 하지만 체제 붕괴의 위험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농업의 비효율적인 집단체제에 주목하며 대규모 자본지원을 고려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농업이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의 함정'에서 단기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다만, 단계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은 그 경로 모색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2000년대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

- 과거 농업과 관련된 대북 교류협력은 정부와 민간의 인도지원사업,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수행한 대북 인도지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식량과 비료 지원이다. 이 지원 규모는 각각 330만 톤과 255만 톤에 달한다. 식량과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농업생산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 한편 농업개발을 지원한 협력사업도 민간단체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으로 북한 수혜지역의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인도적 상황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 선진 농업기술을 북한의 농업계에 소개하고 전수한 것도 이 협력사업의 중요한 효과이다.
- 과거 수행된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식량과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에서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민간지원단체와 지자체의 농업협력사업은 북한 농업의 변혁과 자생력 확보를 유도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았으며 뚜렷한 연계 프로그램도 가질 수 없었다.
- 이 한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농업협력 추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농업협력사업과 공공부문이 추진해야 할 농업협력사업을 구분해 달리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협력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은 종전의 사업추진체계를 복원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소지역 중심의 인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 및 단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정부)의 농업협력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환경보호, 농업과학기술교류 등 사업규모가 큰 단위 프로그램이나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유인하는 종합적 농업협력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4. 민간의 농업협력사업 - 북한 맞춤형 사업

-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은 종전의 추진체계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기술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지원체계를 덧붙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협력분야는 효과성과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북한 맞춤형 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 효과성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농업 농촌 현장의 사정에 맞추어진 농업협력사업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수용성은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협력사업과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UNDP, FAO, IFAD, 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참조).
-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북한 맞춤형 농업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8개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다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될 수 있다(표2). 민간 농업협력사업은 추진 주체의 역량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로 혹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북한 맞춤형 농업협력사업 사례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식량공급 증대	감자재배 및 우량종자 지원, 수확후 손실 감소
농업기반 조성	홍수피해지 및 제방 복구, 간이온실, 간이관개시설
축산 지원	소가축 지원, 소가축 사육체계, 잠업개발
산림복구, 환경보호	산림복구녹화, 양묘장, 산림병해충 방제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메탄가스개발, 풍력에너지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주택 개량, 아궁이 개량, 마을길 조성
취약계층 지원	소농장-KIT, 식량·영양 지원
농업기술 교류	농업기술교육훈련, 공동연구, 공동학술회의

#### 5. 공공부문의 농업협력사업 - 복합농촌단지, 단위 개발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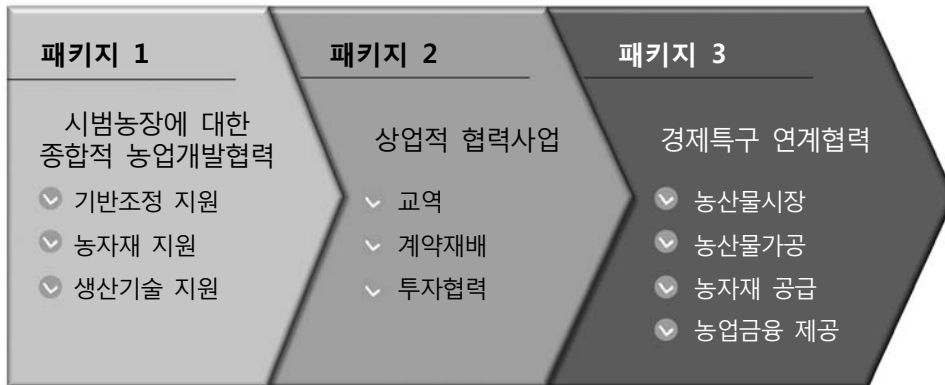
- 정부와 공공부문이 추진해야 할 농업협력사업은 북한 농업의 변화를 유도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예산 소요가 큰 대단위 기반복구사업(관개체계 개편, 황폐산지 복구 등),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등이다.

## 가.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 ‘복합농촌단지’ 조성 협력사업은 ‘북한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 전략적·정책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선도형 협력사업이다. 이 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특구나 접경지 배후 농촌을 대상으로 ①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모든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②그것을 기반으로 남북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하고 ③북한내 경제특구나 인근 도시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발전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적 농업개발 협력사업이다.
- 이 협력사업의 첫 번째 의의는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라는 데 있다. 협력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시범농장을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지원, 황폐산림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북한 농장의 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패키지 협력방식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개별 프로젝트 협력사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두 번째 의의는 시범농장의 능력을 토대로 남북 간에 교역, 계약재배, 투자협력사업 등 상업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기능적 패키지로서 물리적 농업개발협력과 상업적 교류협력이 결합된 협력사업을 추진하지는 것이다.
- 세 번째 의의는 농업개발협력을 북한 경제특구개발과 연계 추진해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즉, 공간을 결합시킨다는 의미의 패키지형 농업협력이다. ‘복합농촌단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근의 ‘특구’와 ‘접경국’은 농산물 시장, 농산물 가공, 농자재 조달, 농업금융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류할 수 있다 (그림2 참조). 이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농업개발모델과 지역 경제개발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 ‘복합농촌단지’ 협력 시범사업 추진 적지는 다음과 같다.
  - 개성 해주 배후지역: 북한의 개성특구, 남한 시장을 겨냥
  - 평양 남포 배후지역: 북한의 수도권과 남포특구의 시장을 겨냥
  - 북청·어랑 농업개발구: 북한 역내 시장을 겨냥한 농업개발모델로 추진
  - 이 외에 나선특구와 신의주특구 배후 농촌지역에서도 추진 가능



그림2.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패키지



#### 나.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사업

- 이 외에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커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사업이 있다. 이들 개발협력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상 원조 형식을 병행할 수 있다.
- 농업기반 복구 및 조성과 관계가 있는 개발협력사업으로는 대규모 관개체계 개편 사업, 간척지 복구사업, 저수지 개보수사업, 홍수피해 하천 복구사업, 황폐산림 복구사업 등이 있으며, 농업과학기술 교류사업으로는 양측 농업과학원 간의 과학 기술협력사업과 농업대학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 단위 지원사업으로는 식량 및 비료 지원사업이 있다.

#### 6. 정부의 추진체계 구축

- 2005년과 2007년에 구축된 바 있는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 협의체계를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남북당국 간 협의체가 없으면 당국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북한농업의 발전과 남북한 양측의 상호이익 추구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다.
-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대북 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측면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표3>과 같다.

표3.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

기관 및 기구	역 할
통일부	협력기금 지원체계와 모니터링·평가체계 복원 및 운영
농식품부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체계 운영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	민간의 요청을 받아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 정부나 공공부문 주도의 ‘대단위 농업기반조성 개별 협력사업’과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은 전문 사업단을 구축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각 정부기관과 사업단, 그리고 사업 참여자 간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표4).

표4. 공공부문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

기관 및 기구	역 할
통일부	전반적인 대북 협상과 정책 조율, 남북협력기금 관리
농식품부	당국간 농업협력사업 발굴·입안·관리체계 운영
남북농업개발사업단	복합농촌단지 및 농업기반조성 협력사업 시행
남폐산림복구사업단	황폐산림복구 협력사업 시행
사업 파트너	민간단체, 농협, 민영기업이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

- 이 외에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심사·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해 협력성적을 피드백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KSP)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7. 기타 과제

- 정부 간 접촉이 필요하고 많은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농림업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제안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북한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레버리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민간 협력사업 중 뚜렷한 성과가 있어도 능력의 한계로 확대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공적 사업단이 민간의 사업을 인수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하나는 한국과 외국의 협력 주체에 대한 북한측의 분리 대응에 따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측 참여자가 소외될 수 있는 개연성이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주체를 국내 주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과거 경험을 통해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야 한다. 북한 농업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북한측을 설득하고 목표와 비전에 맞게 수행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 농업정책

#### □ 농업정책

- 사회주의농촌을 계속 힘 있게 지원 (로동신문 1.19)
  - 평안남도에서 농촌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
  - 평성시와 안주시, 순천시, 평원군, 숙천군, 덕천시를 비롯한 도의 모든 시, 군에서는 많은 양의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으며 지난 15일 30여종의 33만 여점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15일 하루에만 평성시의 도급기관과 대학에서 30여종의 2만여 점에 달하는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자산협동농장, 봉학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보내 주었음.
  -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무역관리국, 도탐사관리국,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수백 개 단위에서 소농기구들을 마련하였음.
  - 개천시에서 3만 5,000여점, 순천시에서 3만여 점, 덕천시에서 3만 1,000여점 등 시, 군에서 많은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백 수십 개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음.
- 모든 힘을 농사차비에 총집중하자 (로동신문 1.22)
  - 농사차비는 한해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농공정임. 농사차비를 잘해야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농장에서는 지난해 농사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사를 잘 지을 대책을 세우면서 농사차비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해야 함.
  - 농사차비에서 기본은 종자준비임. 각지 농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기후풍토에

알맞은 다수확품종을 확보해야 하고 종자보관관리를 잘해 마련해놓은 종자가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농사차비의 우선적인 문제는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임. 농촌경리부 문에서는 연초부터 거름생산을 시작해 정보당 20~30톤씩 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이와 함께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농장세대에서는 20톤, 비육분조에서는 500톤, 축산작업반에서는 1,000톤 이상 썩의 거름을 생산해야 함.
-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에게 생물활성퇴비와 흙보산비료 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거름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함. 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캐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냄으로써 지력을 높여야 함.
- 토양에 인, 칼리, 규소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도 실정에 맞게 세워야 함. 각지에서 대용인, 칼리, 규소비료원료원천지를 적극 찾아내야 함.
- 농기계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 모판자재확보사업에 힘을 넣어야 함.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에서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모든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씨뿌리기철 전으로 수리정비하며 호미, 낫을 비롯한 소농기구들과 모판자재를 자체 힘으로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함.
- 농사차비를 잘하는데서 물을 확보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함. 일꾼은 현지에 내려가 시, 군, 농장별 물잡이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부족한 물량을 빨리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모든 농장에서는 흐르는 물, 눈석임물, 빗물을 저류지와 보조수원지에 채워넣기 위한 사업을 잘 해야 함. 곳곳에 보막이를 하고 물주머니 만들기, 논관물잡이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함.
- 저수지에도 물을 빨리 채워 넣어야 함. 관개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를 끝내야 함. 저수지수문과 제방, 물길에 대한 보수를 잘해야 함.
- 도, 시, 군에서는 도시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농장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함.



- 농장일꾼은 농사차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 (로동신문 2.6)
  - 오늘부터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진행됨.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분조장들의 대회임.
  - 당은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분조장들이 기수가 될 것을 바라고 있음.
  -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분조의 관리운영을 잘하는 것과 함께 분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 분조는 농장에서 집단생활의 세포이며 생산 및 노력조직의 말단 단위임. 분조에 따라 작업반, 농장일의 승패가 결정되며 나아가 전반적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됨.
  - 분조장들은 분조재산을 아끼고 잘 다루며 분조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작업별, 포전별 노력조직을 짜고 모든 농사일과 집짐승사양관리가 제때에 진행되도록 해야 함.
  - 분조장들은 모든 분조원들이 맡은 포전을 자기 포전으로 여기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인답게 하도록 매일 현장에서 노력일 평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진행하여 즉시 공시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어야 함.
  - 현시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임. 분조장들은 선진과학기술을 배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이상기후현상은 품종선택과 지력높이기로부터 마지막 영농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자연기후조건은 농사에 매우 불리하였지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의 분조에서는 정보당 알곡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음. 모든 분조장들은 이곳 분조장들처럼 자기 분조의 땅과 기후조건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고 씨뿌리기와 모내기 등 모든 영농공정이 과학기술공정으로 되게 해야 함.
  - 축산분조장들은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먹이소비량 대고기, 알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리며 남새분조장들은 집약화실현을 위해 뛰면서

- 온실남새생산에 큰 힘을 쏟아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보장해야 함.
- 분조장들은 모든 일에서 이신작척하여야 함.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분조원들을 이끌어야 함.
  -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어야 함.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 진행 (로동신문 2.6)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8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 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꾼이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가하였음.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주민들에게 차례로 배당될 것에 대해 강조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결정서들이 채택되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7) - (김정은이)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당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돌을 맞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대회에는 알곡과 남새, 고기,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모범적인 농업부문 분조장과 일꾼이 참가하였음.
  - 농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임.
  -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돌이 되는 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2015년부터는 더 높은 알곡목표를 달성해야 함.
  -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함.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함.
- 무엇보다도 종자혁명을 해야 함.
  -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임.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서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가 적게 들고 생육기일이 짧으며 가물과 비바람,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에 잘 견대는 품종을 얻어내야 함.
  - 자체로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다수확품종들을 들여다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려야 함.
- 채종사업을 개선해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채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지방별, 협동농장별 수요에 따라 좋은 종자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함.
  -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 가공공장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에 공급하는 체계를 세워야 함.
-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함.
  -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 데 있음.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협동농장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 영농작업을 제때에 해야 함.
-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해야 함.
  -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인, 칼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도록 해야 함.
  - 협동농장에서는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물관리와 비료, 농약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으로 전환해야 함.

-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노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 가지 영농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해야 함.
  -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받아들이고,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하여 토지이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함.
-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해야 함. 유기농법에서 기본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임.
  -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함. 농업부문에서는 거름생산에 힘을 쏟아 질 좋은 거름을 논밭 정보당 20~30톤 이상 내야 함. 협동농장에서 집짐승배설물과 도시오물, 풀거름과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모두 찾아 이용해야 함.
  - 흙보산비료생산에 힘을 쏟으면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생산을 늘려야 함.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함.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축산물생산을 늘릴 수 있어 좋고 집짐승배설물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어 좋음.
-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새로운 농기계개발문제를 비롯한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필요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사업을 집중해야 함.
  -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함.
-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알곡재배면적을 늘려야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알곡생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임.
  - 농업생산구조를 알곡위주의 생산구조로 개선하여 비알곡작물재배면적을 줄이고 벼와 강냉이재배면적을 늘려야 함.
  - 내각에서 농업성 밖의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부침땅들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상별로 알곡생산계획을 주어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해야 함.

- 분조는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말단단위임.
  -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하여 농장원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함.
  - 최근에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함.
-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데서 분배를 철저히 사회주의분배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
  - 분조에서 농장원들의 노력일 평가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해야 함. 그리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가운데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해야 함.
  -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맞게 계산한데 기초해 알곡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함.
-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 모든 분조장들을 올해에 첫 대회로 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마련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분조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함.
  - 첫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농장원에게 해설, 선전해야 함.
  - 둘째, 분조장들은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주인 및 지휘관이 되어야 함.
  - 셋째, 분조장들은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실농군이 되어야 함.
  - 넷째, 분조장들은 농장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는 살림꾼이 되어야 함.
  - 다섯째, 분조장들은 분조원들을 보살펴주어야 함.
-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보장하는 것임. 질소비료생산과 함께 인,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비료도 생산보장해야 함. 농촌에 트랙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고 전력과 연유, 박막과 농약같은 영농자재도 영농공정에 맞추어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함.

- 내각과 농업지도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함.
-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폐막 (로동신문 2.8)
  -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7일에 폐막되었음.
  - 이번 대회는 사회주의농촌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의의를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각 농장의 분조장 및 관리위원장 및 내각 관계자 등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음.
-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할 목표 (로동신문 3.3)
  - 김정은은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해야 하고, 유기농법에서 기본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함.
  - 천내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고농도 인세균비료를 종자처리에는 물론 모판밀비료, 덧비료, 이삭비료로 이용한 결과가 좋았음. 토지가 개량되어 지력이 높아졌으며 토양의 부식질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를 막았음. 또한 농작물의 뿌리발육을 좋게 하고 질소, 인, 카리를 비롯한 영양원소들을 농작물이 잘 흡수하도록 하였음.
  - 남조류생물활성퇴비를 짧은 기간에 생산도입함으로써 지난 해 대양협동농장에서 알곡을 정보당 1.5톤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군일꾼은 모든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고농도 인세균비료와 티오균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확보하였으며 수천 톤의 생물활성퇴비생산도 끝냈음.
- 영농물자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로동신문 3.6)
  -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할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인비료와 영농부속품, 철강재보장을 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

- 채취공업부문에서: 동암광산에서는 인비료생산에 필요한 많은 양의 광물을 확보하였음. 풍년광산과 영유, 대대리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전력이 긴장한 조건에 맞춰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
  - 기계공업부문에서: 트랙터와 농기계부속품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각지 공장, 기업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금성트랙터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함으로써 수천 개의 차차들을 생산하여 농업부문에 보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음.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는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보장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연료펌프를 비롯한 영농부속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금속공업부문에서: 금속공업부문에서 농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금속공업성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공장, 기업소에 영농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철강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 수백 톤의 선철과 많은 양의 파철이 영농부속품 생산단위에 보내졌음.
- 5가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로동신문 3.14)
- 안악군의 책임일꾼이 엄곶협동농장, 안악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여러 농장에 내려가 분조장들을 강한 장악력과 집행력을 지닌 초급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하였음.
  - 농장에 나간 일꾼은 분조장들과 침식도 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분조장의 임무에 대하여 알려주고 대중을 분발시키는 방법도 가르치면서 이끌어주었음.
  - 또한 분조장들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농장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분조농사에 적극 참가하게 하였음. 그리고 농장원들의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도 해결해주어 그들이 분조에 애착을 갖고 농사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꾼은 농사차비에 앞서 엄곶협동농장 제5작업반 2분조를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분조장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분조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노력일을 정확히 평가해주도록 하였음.
-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자 (로동신문 3.14)
-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은 당이 제시한 중요한 농업정책임.

- 유기농법에서 기본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임. 모든 농촌에서는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 질 좋은 거름을 논밭 정보당 20~30톤이상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두엄과 진거름, 도시오물, 풀거름,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찾아 이용해야 함.
  - 효과가 높은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 미생물비료, 후민산염, 아미노산미량 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에 힘을 넣어 정보당 시비량을 늘려야 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함. 모든 작업반에서는 축산기지와 큰단백폴 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알곡과 고기, 알생산을 동시에 늘려야 함.
  - 생물농약을 적극 이용해야 함. 식물성농약, 미생물농약을 비롯해 김과 병해충을 없애면서도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각종 생물농약생산을 늘려 적극 이용해야 함.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입증된 기생벌에 의한 해충구제방법을 더 많은 면적에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함.
  - 우렁이 유기농법을 받아들여야 함. 우렁이를 논에 놓아주어 김을 잡게 하고 땅을 갈고 농장들의 경험을 일반화 하여야 함.
  - 선진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큰모재배, 감자 대 알곡두벌농사방법, 녹비작물재배를 비롯한 좋은 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유기농법도입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함.
  - 분조장, 작업반장들이 모든 포전을 기름지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함. 특히 분조장들은 분조농사의 운명이 자기 어깨위에 있다는 자각을 갖고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모든 논밭에 유기농법이 도입되도록 해야 함.
-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짜고 든 분조관리제 (로동신문 3.16)
-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들이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음. 산골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실농군들이 많은 난알을 분배받았음.
  - 김정은은 “최근에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옹계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효과가 나게 해야 한다”고 말함.



- 이곳 일꾼이 잘한 것은 우선 트랙터, 부림소에 의한 땅 다루기와 모내기, 씨뿌리기, 모기르기, 물관리, 비료 및 농약 뿌리기 등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철저히 분조가 공동으로 하도록 한 것임. 영농공정별 적기와 질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보장하고 앞선 재배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임.
  - 다음으로 작업조와 분조원들에게 포전을 담당시키고 작업량과 생산량을 정확히 알려주어 그 수행정도에 따라 노력일평가를 잘하였음.
  - 분조의 인원수와 부침땅면적을 고려하여 한 사람당 담당면적이 고루 배당되게 하였음. 마을로부터 포전까지의 거리, 구체적인 작업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 데 기초하여 청장년에게는 될수록 작업조건이 불리한 포전을, 그 밖의 농장원들에게는 대상에 맞게 포전을 담당시키도록 하였음.
  - 작업조건이 가장 불리한 포전은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꾼이 맡게 하였음. 이런 방식의 작업조직과 포전담당책임제실시는 농장원들로 하여금 높은 수확을 낼 수 있게 함.
  - 구체적 실정에 맞는 분조관리제 실시, 이것이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비결이었음.
-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 (로동신문 3.28)
- 김정은은 “모든 분조장들은 분조장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여 농업생산에서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함.
  - 분조장들이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함.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이 좌우되게 됨.
  - 오늘 농업부문 앞에는 알곡과 고기, 남새, 버섯, 누에고치 등 모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있음.
  -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5가지 임무를 학습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함.
  -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과 과학농사의 철저한 집행자가 되어야 함. 알곡만이 아니라 고기, 남새, 버섯, 누에고치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함.

- 분조장들은 분조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함. 투하된 노력일과 영농자재, 생산되는 농축산물량을 따져가면서 농업생산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여야 함.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토지와 농기계, 부립소, 영농자재들을 자기 재산처럼 귀중히 여기고 관리하여야 함.
-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 올해 알곡목표에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4.4)
  - 알곡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조건임. 국토의 거의 80%가 산림이고 인구 1인당 배당되는 부침땅면적이 적은 조건과 해가 갈수록 세계인구가 불어나고 자연피해가 심해져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알곡재배면적을 늘려 식량을 자급자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농촌에서 필지별번호와 면적이 기록된 지적도를 놓고 계획된 알곡재배면적과 현지실태를 포전별로 궤적으로 조사하여 부족한 면적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개간된 모든 간석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워야 함.
  - 새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어야 하며 임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함.
  - 내각에서는 농업성 밖의 단위에서 갖고 있는 부침땅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상별로 알곡생산과제를 주어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해야 함.
  - 농업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에서는 부침땅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벼와 강냉이를 재배할 수 있는 땅을 조사한 기초위에 벼, 강냉이 재배면적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함.

## □ 과학영농

- 첨단돌파로 안아온 자랑찬 열매 (로동신문 1.22)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과 측정기구들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유전자증폭장치와 토양염도계, 알곡수분측정기 등 첨단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과 측정기구들이 개발됨으로써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DNA를 수십~수백만 배로 증폭하는 유전자증폭장치는 생물학연구에서 큰 의

의를 가진. 농작물을 비롯한 생명체의 유전학적인 특성을 밝혀내고 게놈지도 작성과 유전병 및 바이러스병 진단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쓰이는 이 장치는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실험을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함.

- 토양온도계는 염도뿐 아니라 물이나 땅의 온도도 잴 수 있는 휴대용 기구로서 모관관리와 물관리 등 농사일의 모든 공정에 쓰이며 특히 간석지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짓는데 큰 도움을 줌.
-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에 힘을 집중 (로동신문 3.18)
  - 광산군에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광산군에서는 모기르기에서 온 실모의 비중을 대폭 늘렸음. 지난 해 초장협동농장에서 온실에서 벳모를 키워 재배하였는데 정보당 수확고가 높았음.
  - 군일꾼은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중시하였음.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비료시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던 과정에 중기중점심층시비방법으로 하는 것이 소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건임.
  - 군에서는 이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음. 질소비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에 맞게 시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하고 있음.

## 2. 벼농사

### □ 농사차비

- 어러리벌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로동신문 1.14)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첫 열흘 동안에 2만여 톤의 기름생산과 1만여 톤의 실어내기를 진행하고 900여 정보의 흙갈이를 진행함.
  - 말장, 바람막이바자, 활창대를 비롯한 모관자재를 100%마련하였으며 4,000여 톤의 흙보산비료 생산을 함.
  - 제4작업반에서는 기름실어내기를 다그쳐 그날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음.
  - 제5작업반에서는 새해 첫 농사차비에서 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보산비료 생산계획을 매일 1.2배 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제16, 17작업반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많은 흙보산비료와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능률 높은 운반수단들을 이용하여 실어내기에 박차를 가하였음.
- 하나를 해도 실리가 나게 (로동신문 1.17)
  - 강동군 고비협동농장 제2작업반이 새해농사차비에 앞장섰음.
  - 협동농장 일꾼은 축산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음. 1층에서는 돼지와 닭을, 2층에서는 오리와 토끼를 기를 수 있도록 꾸리고 염소우리도 수의방역에 편리하게 지었음.
  - 작업반초급일꾼은 농장원 세대에서도 많은 집짐승을 길러 거름생산을 늘리도록 하였음. 해마다 모든 세대에 여러 마리의 새끼돼지가 공급되고 축산기지경험들이 일반화됨.
  - 농장에서는 태양열온실을 과학기술적으로 건설하고 잘 운영하여 10여종의 온실남새를 생산하고 있음.
-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3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포시적으로 거름실어내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음.
  - 천리마구역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미 구역의 모든 논들에 거름을 전부 실어냈으며 농기계부속품과 모판자재준비를 비롯한 농사차비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룡강군, 와우도구역, 강서구역에서는 트랙터수리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거름실어내기 마감단계에 있음.
  - 향구구역과 룡감군에서는 계획된 면적의 냉습지개량을 마무리하고 거름실어내기와 영농자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 일꾼과 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는 물론 트랙터부속품생산에 필요한 파주철 수집사업을 통해 금성트랙터공장을 비롯한 생산단위에 보내고 있음.
- 농사차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2.23)
  - 재령벌과 연백벌을 비롯한 황해남도에서 2월 22일 현재 도적으로 2만 6천여 정보의 논밭에 흙갈이를 하는 성과가 이룩되었음.
  - 재령군의 흙갈이에서는 래림협동농장, 강교협동농장, 북지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 장국, 양계협동농장을 비롯한 산간지대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 자료를 놓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흙갈이를 하고 있음. 이어 개바닥흙을 파서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도 보내주었음.
- 오국, 마명, 룡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안악군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늪과 수로, 양어장바닥의 흙을 파서 포전에 내고 있음.
- 굴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흙갈이원천을 찾아내고 개바닥흙을 파내어 포전에 실어내면서 매일 흙갈이실적을 올리고 있음.
- 함경남도에서는 거름생산과 니탄 캐기, 흙보산비료 생산, 흙갈이, 카바이드재 실어나르기 등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부속품생산과 수리, 박막생산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함흥시안의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수만 톤의 도시 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실어다주었음.
- 도인민위원회, 도인민보안국, 도검찰소, 도체신관리국, 도고려약생산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함흥모방직공장, 홍남제약공장, 홍남전극공장을 비롯한 공장에서는 카바이드재 수송계획을 120%, 최고 16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 함흥시와 단천시, 신포시, 북청군과 함주군, 흥원군, 락원군, 영광군, 고원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과 흙보산비료 생산, 니탄 캐기, 흙갈이, 트랙터와 농기계수리 등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 씨뿌리기

- 씨뿌리기 준비에서 중시하고 내민 문제 (로동신문 3.18)
  - 최근 연안군 청화협동농장에서는 모기르기를 잘하여 튼튼한 모를 키워내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그 비결은 모판재료준비를 잘한 데 있음.
  - 기존에 토양개량제로만 쓰던 인회토와 같은 광물질을 다른 재료들과 섞어 모판 밑에 깔아주고 복토재료로도 이용한 것이었음.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을 적극 이용한 결과 모판재료의 질이 높아져 그전보다 모를 더 튼튼하게 키워낼 수 있었음.

- 씨뿌리기 적기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도 이 농장에서 잘한 점임. 물길 정리를 통해 저수지 보수문제를 해결하여 씨뿌리기를 제철에 하도록 노력함.
  - 그 결과 이들은 짧은 기간에 지난해보다 수십일 앞당겨 물길정리를 끝냈음.
- 서해안의 농촌에서 벼모판 씨뿌리기 시작 (로동신문 3.27)
- 서해안의 농촌에서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의주시, 정주시, 광산군, 철산군의 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 실리있는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이미 수백정보의 온실모 씨뿌리기를 끝내었음.
  - 피현, 동림, 운전, 운산군의 농장에서도 씨뿌리기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지키고 있음. 그리하여 도적으로 25일 기준으로 벼모판 씨뿌리기 실적 40%계산을 돌파하였음.
  - 황해남도의 연안, 배천, 청단군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모판 만들기에 앞서 씨뿌리기 성과를 내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주군, 송림시, 은파군, 인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농장에서는 질 좋은 부식토와 모판자재들을 마련해놓고 씨뿌리기에 들어갔음.
  - 숙천군, 개천시, 은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농촌에서도 종자처리를 앞세우면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로동신문 3.29)
- 황해남도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서해안의 농촌에서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벌의 농촌에서 적기를 바로 정해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로 모판을 잘 걸구고 모판수평상태와 씨뿌림양 등을 따져보며 일을 하고 있음.
  - 배천, 연안, 청단군과 해주시, 벽성군과 강령, 웅진군을 비롯한 연선지대 일꾼과 근로자들은 모판다루기와 씨뿌리기, 복토와 박막 씌우기 등 모든 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송화, 삼천, 태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논벼종자 싹틔우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면서 동시에 모판 만들기를 앞세우고 씨앗을 뿌리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서흥군에서는 씨뿌리기는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종자의 품종별 특성에 맞게 모기르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가 지켜지도록 하고 있음.
- 도의 다른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씨뿌리기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봄갈이

- 논밭갈이 50%계선 돌파 (로동신문 3.18)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봉산군에서 논밭갈이 실적이 50%계선을 넘어섰음.
  - 읍, 가촌, 묘송, 지탑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들에 만부하를 걸어 논갈이성과를 확대해나갔음. 운전자들은 미리 마련해놓은 예비부속품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였음. 그리하여 그날 논갈이 계획은 그날로 수행함.
  - 구읍, 독정, 오봉, 청룡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같이 수단을 총동원하여 밭갈이 성과를 확대해 나감.
- 논밭갈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황해북도 (로동신문 4.17)
  -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일 현재 경지면적이 많은 서해지구 도에서 논밭갈이 실적이 제일 높은 도는 황해북도임. 그 뒤를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가 따라가고 있음.
  - 황해북도의 논갈이 실적은 66%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8배, 밭갈이실적은 94%로 마감단계임. 논갈이실적이 하루 평균 2~3%, 최고 5%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속도로 나가면 4월 25일경이면 전부 끝나게 됨.
  - 황해북도에서는 3,500여대의 트랙터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400여대의 들춰갈이 보습과 50여종 1만 3,000여점의 농기계부속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도에서 이미 논밭갈이를 끝낸 군들은 승호군과 연탄군이며 논갈이에서 80%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시, 군들은 연산군, 사리원시, 신평군, 수안군, 토산군임.

- 다른 시, 군에서도 트랙터운전수와 부림소관리공과의 사업을 통해 논밭같이 실적을 높이고 있음.

### 3. 감자농사

#### □ 감자농사

- 날로 높아가는 감자농사경쟁열의 (로동신문 1.31)
  - 얼마 전 삼지연군 중흥농장에서 진행된 도적인 시범사업은 감자농사를 과학화하는 데 제기된 문제를 놓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삼지연군에서는 니탄 생산과 수송, 유기질비료생산과 구운흙생산을 위한 분조별, 세대별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있음.
  - 개척농장지구의 포전에 대한 토지개량과 눈발구를 이용한 니탄 집중수송, 질 좋은 유기질비료생산에 노력하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겨울철조건에 맞는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거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앞그루감자심기를 제때에 (로동신문 4.6)
  - 황해남도의 농촌에서 앞그루감자심기실적을 올렸음. 신원, 삼천군에서 앞그루감자심기를 제일먼저 끝냈음. 태탄, 웅진, 강령, 벽성, 은천, 안악, 신천군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통알감자를 심었음.
  - 연안, 청단, 배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10여일 남짓한 기간에 앞그루감자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황해북도의 농촌에서도 앞그루감자심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음. 린산, 신계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두벌농사포전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감자를 기술적 요구대로 심었음.
  - 함주군, 홍원군, 고원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장이 앞그루감자심기를 끝냈음.
  - 평양시, 남포시 농촌과 강원도, 평안남도 농촌에서 앞그루감자심기를 제철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의 농촌에서도 적기를 보장하며 앞그루감자를 심고 있음.



## 4. 축 산

### □ 축산동향

-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할 열정안고 (로동신문 1.22)
  - 올해 축산부문에서는 먹이단위기준을 낮추면서 현대화된 축산기지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움.
  - 배합먹이생산공정의 정보화실현과 우량품종의 원종을 보장하기 위한 종축생산 체계확립, 첨가제와 영양가 높은 먹이풀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
  - 강계돼지공장에서는 새끼돼지의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 겨울철 조건에 맞게 비육호동의 온도보장대책을 세우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있음.
  - 홍주닭공장에서는 첫 열흘 동안 알낱이률을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8%로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 목장관리국에서는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함께 영양가 높은 먹이보장에 힘을 쏟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구성 닭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균으로 가금 배설물을 처리하여 먹이를 보장한 경험에 기초하여 대용먹이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북돼지공장과 신의주 닭공장에서도 사양관리를 과학화하면서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광포오리공장에서는 수백 톤의 감탕을 파내어 배합먹이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였음. 이와 함께 단백질이 많은 곤충을 대량 서식시키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음.
  - 사리원 닭공장에서는 배합먹이를 이용하는 조건에 맞게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 성분들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평양시의 축산기지에서는 과학적인 수의방역체계를 세워 연 초부터 고기와 알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황해남도 계남목장,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도 우량품종의 풀 먹는 집짐승 종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현대적인 젓가공 설비들을 이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로동신문 2.23)
  - 자강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축산물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음.
  - 강계돼지공장, 홍주닭공장을 비롯한 자강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 일꾼과 노동자들이 올해의 첫 달 달걀, 고기생산계획을 축산물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축산기지들은 올해 축산물생산에 필요한 먹이, 단백질먹이를 전량 확보해놓는데 기초하여 달걀, 고기생산을 훨씬 늘리기 위한 사업을 세우고 있음.
  - 도에서는 강계시 주민세대와 노동자에게 첫 달 달걀, 고기공급을 실속 있게 진행하였음.
  - 홍주닭공장에서 달걀, 닭고기 생산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공장에서는 매일 달걀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강계돼지공장에서의 먹이가공작업반에서는 분쇄기, 혼합기 등 현대적인 먹이가공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면서 매일 배합먹이를 생산하고 있음.
  - 종축작업반의 사양공들은 온도보장과 공기같이, 먹이주기, 물주기 등 어미돼지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이들은 1월 한 달 동안에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킴.
  - 육성작업반도 육성률과 증체율을 높이고 있음.
  - 강계시 교외에 있는 닭공장에서도 달걀, 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도안의 노동계급에게 매월 많은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 강계닭내포국집에 원자재를 보장해주고 있음.
  - 강계오리공장에서도 종자오리, 비육오리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로동신문 3.1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달 동안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소석회 5,700여 톤, 유기질비료 4만 9,100여 톤과 석탄재, 석비레 등의 흙갈이 재료 55만여 톤을 포함하여 60여만 톤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냈으며 오리새,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영양가 높은 먹이풀씨 수십 톤을 확보하였음.

- 집짐승우리와 살림집, 공공건물건설에 필요한 골재 2,600여 세제곱미터, 시멘트 3,370여 톤, 통나무 3,300여 세제곱미터, 강재 220여 톤 등 많은 자재들을 확보하면서 건설준비를 추진하였음.
-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주변지역에서 토양개량제매장지를 찾아내고 건설자재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 4만 6,000여 톤의 유기질비료, 석탄재, 소석회를 실어냈으며 500여 세제곱미터의 목재와 많은 강재, 혼석을 확보하였음.
- 세포군사단에서는 한 달 동안에 1,500여 세제곱미터의 통나무를 생산하였으며 신생지구에서 10여 일 동안 7,400여 톤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음.
- 보건성돌격대에서는 170여 톤의 집짐승배설물을 확보해놓은데 이어 소석회, 유기질비료, 흙보산비료 원료운반계획을 평균 1.7배 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1만 3,000여대의 활창대를 비롯한 모판자재들도 마련해놓았음.
- 조선대양총회사 돌격대에서는 100톤의 집짐승배설물과 1만 세제곱미터의 비닐박막, 1톤의 영양가높은 먹이풀씨를 확보하였음.
- 육해운성돌격대에서는 320일 동안 60여 톤의 진거름과 석탄재를 실어냈으며 비닐박막 4,000여 세제곱미터, 2,000여대의 활창대를 확보하였음.
- 은하지도국돌격대에서는 220톤의 시멘트와 11톤의 강재, 많은 양의 통나무와 발대목을 해결하여 올해 계획된 대상건설을 일정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하였음.
- 원유공업성돌격대에서는 유기질비료 1,000여 톤을 실어냈으며 임업성돌격대에서는 140여 톤의 원료를 확보하였음.
- 라선시에서는 8,500여 톤의 흙갈이 재료를 실어냈으며 490여 톤의 소석회와 500여 톤의 흙보산비료 원료를 확보하였음.
- 황해북도려단에서는 정보당 100톤 이상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냈음.
- 평양원예지도국돌격대에서는 100여 톤의 카리비료를 확보하고 460여 톤의 흙보산비료 원료도 마련하여 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함.
- 혁명사적지도국돌격대에서는 300여 톤의 흙갈이 재료를 확보하였으며 유기질비료생산량도 늘렸음.

- 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 - 축산학연구소의 일꾼과 나눈 이야기 (로동신문 3.16)
  - 소장 박사, 부교수 신장: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는 나라의 축산업 발전에서 제기 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 및 집행하는 연구단위임.
  - 부조상 리정현: 현재 연구소에서는 낱알집, 잡풀, 버섯폐기질 등을 집짐승먹이로 이용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이전에 여러 건의 미생물처리 기술이 제기되어 도입되었지만 섬유소의 분해율이 높지 못한 것으로 그 효과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연구소에서는 정방복합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음. 정방복합균의 특성을 토대로 낱알집, 잡풀 등을 질 좋은 미생물단백질 먹이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발효처리기술을 완성하였음. 이 기술은 전국의 많은 축산단위에 도입되고 있으며 축산물생산에서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고 있음.
  - 신장: 연구소에서는 풀 먹는 집짐승기르기에서 광물질대사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영양성 질병을 미리 막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광물질덩이 먹이를 처음으로 개발하였음.
  - 리정현: 연구소에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집짐승먹이종합첨가제와 종합광물질덩이 먹이를 연간 각각 수백 톤씩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꾸려 현장에 적극 보장하려고 함.
  - 신장: 연구소에서는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축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먹이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비타민, 광물질 등 영양성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하고 있음.
-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도입 (로동신문 3.16)
  - 가금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실정에 맞는 닭들을 새로 육종하였음.
  - 과학자들은 새로운 육종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이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새 품종의 퇴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도 해결하였음.
  - 이곳 과학자들은 새로운 닭 품종들을 개발한 데 이어 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오리품종연구에 착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로동신문 3.30)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건설자재수송과 흙갈이, 칩산조성에 혁신을 일으켰음.
  - 무역성, 육해운성 돌격대에서는 열흘 동안에 1만여 톤의 흙갈이 재료를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경공업성 돌격대에서는 정보당 100톤 이상의 토양개량제를 운반하였음. 함경북도여단의 일꾼은 정보당 최고 200톤 이상의 흙갈이 재료를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한 달 동안에만 혼석, 목재를 비롯한 수천 세제곱미터의 건설자재들을 대상건설장에 집중수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원예지도국돌격대가 칩산조성사업에 앞장서서 열흘 남짓한 기간에 70여정보의 칩산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4.17)
  - 김정은은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 건설, 간석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현시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기본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질 좋은 풀판을 조성하는 것임. 토양별, 필지별 토양개량과 새 품종의 풀씨를 전반적으로 파종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나가야 함.
  - 조선로동당창건 70돛이 되는 2015년까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무조건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룡매도간석지 4호중간방조제 완성 (로동신문 3.5)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꾼과 건설자들이 룡매도 간석지 4호 중간방조제를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간석지 건설자들은 한 달 동안에 3만여 세제곱미터의 토량을 처리하여 1,000여 미터의 방조제건설을 하였으며 20일 동안에 5만여 제곱미터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였음.

- 그리하여 수천 미터의 4호 중간방조제를 완성함으로써 6구역건설을 제날짜에 완공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 전국적으로 4만여 정보의 냉습지 개량 (로동신문 3.1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농사차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되었음.
  - 황해남도에서 도적으로 2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되었으며 황해북도의 농촌에서 올해에 들어와 7,000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였음.
  -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냉습지개량을 지난해 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 정평군, 함흥시, 영광군, 고원군, 신포시, 덕성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냉습지개량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다른 군에서는 냉습지개량 마감단계에 있음.
  - 룡천군, 광산군, 정주시, 운산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농촌에서 올해에 6,000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되었음.

####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수천 미터의 물길정리 진행 (로동신문 1.27)
  - 태탄군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수 천 미터의 달하는 군소재지-성남리 양수 물길정리공사를 하여 큰물에 의한 농경지침수를 막고 이 지구의 수백정보의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음.
  - 물길을 정리하는 과정에 여러 정보의 새 땅도 찾아내고 강냉이 영양단지를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세제곱미터의 개바닥흙도 얻어냈음.
  -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군소재지-성남리 양수물길을 정리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
- 20여개의 저수지에 물을 채웠다 (로동신문 3.14)
  -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에서 평원저수지, 덕수저수지를 비롯한 20여개 저수지에 물을 채움으로써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 개천-태성호물길은 대동강물을 20여개의 저수지에 채워 넣고 평안남도과 평양시, 남포시의 논밭에 대주는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임.

- 대규모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 개천-태성호물길이 관리소일꾼과 종업원의 노력으로 저수지마다 물이 성공적으로 공급되었음.

## 6. 산림

### 통나무 생산

-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초과수행 (로동신문 1.2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첫 달 통나무생산에서 산지 통나무생산계획이 평균 120% 이상 초과 수행 됨.
  - 해마다 맑은 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여온 장진, 도안 임산사업소에서 통나무생산용설비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매일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양강도와 자강도, 평안남도 임업관리국 아래 여러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탄광에 필요한 동발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임업성은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매일 1.2배로 초과수행하고 있음.
- 통나무, 동발나무생산성과 확대 (로동신문 3.27)
  - 자강도임업관리국의 일꾼과 노동자들이 3월에도 수 천 세제곱미터의 동발나무를 생산하였음.
  - 희천갱목생산사업소의 극성, 관대, 명대작업소에서는 사이나르기에서 1만 수천 세제곱미터의 통나무를 산지나무터에 끌어내리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고인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실동률을 높이면서 매일 수 십 세제곱미터의 동발나무를 철도역에 실어내고 있음.

### 나무심기

-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로동신문 3.15)
  - 황해남도에서 봄철나무심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식수질을 맞으며 봄철나무심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도적으로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강령군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별로 나무심기계획을 주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게 하였음.

- 장연군, 태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일꾼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도 나무심기에서 유용한 나무들을 많이 심었음.
-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로동신문 3.16)
  - 평안남도의 일꾼과 당원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음. 도안의 모든 시, 군에서 나무모들을 정성껏 키워 올해 식수절에만 수 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미술창작사, 도인민병원, 도작가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에서는 창성이깔나무, 전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골라 심었음.
  - 평성이, 안주시에서는 양묘장에서 많은 부식토를 갈고 뚝정리를 잘하여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자강도의 만포시, 희천시, 성간군에서 수종이 좋은 많은 나무를 심었음. 도에서는 산림경영소의 양묘장에 있는 나무모의 수량과 수종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나무모교환을 진행하도록 해 시, 군에서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5만여 정보의 수유나무림 조성 (로동신문 3.18)
  - 전국각지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지난 10년간 5만여 정보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서흥군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유나무의 육량품종을 육종하고 재배기술을 완성하였음. 이곳 사업소에서는 많은 양의 수유나무열매를 채취하는 한편 나무모생산을 통해 각 시, 군의 수유나무림사업소에 보내주고 있음.
  - 리원군, 화대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는 수백정보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해놓는데 그치지 않고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기름생산전망을 열어가고 있음. 이 수유기름으로 주민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 나무모 생산

- 수 억 그루의 나무모들을 확보 (로동신문 3.2)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양묘장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수종이 좋은 수억 그루의 나무모를 확보하여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심을 수 있게 하였음.



- 군산임경영소에서는 삼목과 영양단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무모생산을 집약적으로 해나감. 그리하여 창성이깔나무모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확보해놓은 성과를 이룩함.
- 정평, 세포, 동창, 삼천군에서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심을 수 있는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무모들이 넉넉히 생산될 수 있게 함.

## 7. 기타 작물

### □ 과수

-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심기 시작 (로동신문 3.24)
  -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심기가 시작되었음. 농장에서 키낮은 사과나무와 배, 복숭아, 추리나무심기를 시작함.
  - 부평지구 제1, 2, 3, 4, 5작업반에서는 키낮은 사과나무모들을 기술적 요구대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제13작업반의 근로자들도 매일 많은 면적에 과일나무를 심고 있음.
- 고산과수농장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4.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18건설돌격대에서 한 달 동안 10여 정보의 과수원보수, 2만여 대의 과일나무지지대생산, 토지정리, 도로건설, 배수로와 구조물공사, 철근생산, 혼석채취, 과일나무구덩이파기 및 유기질비료넣기를 비롯한 봄철공사과제를 계획보다 훨씬 넘쳐 수행하였음.
  - 평안남도려단에서는 매일 흙처리과제를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평양시여단 강동군대대에서는 한 달 동안에 40여 톤의 철근을 자체로 생산하여 과일나무지지대생산에 이바지하였음.
  - 양강도광업연합기업소 연대에서는 3월 한 달 동안에 2만 여대의 과일나무지지대를 생산함.
  - 각 도 여단들이 경쟁을 벌인 결과 한 달 동안에 3만여 대의 과일나무지지대를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음.

## □ 남새

- 어디서나 버섯을 기를 수 있다 (로동신문 1.18)
  - 만경대구역 보육원학교의 버섯재배장은 10여 년 전부터 버섯기르기를 하여 해마다 수확량을 늘려가고 있음.
  - 학교에는 종균과 기질생산을 60m<sup>2</sup>의 작은 면적에서 함. 재배장 면적이 크지 않아 기질블럭을 2층, 3층으로 쌓아놓음. 한겨울의 낮에는 태양열을 이용하고 밤에는 비닐박막을 덮어주어 온도를 보장하도록 하였음. 습도보장은 기질모판 테두리를 따라 진흙매질을 해주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함.
  - 이렇게 생산한 약 2톤의 버섯으로 해마다 학생들의 영양요리실습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장하고 구역안의 탁아소에도 공급해주었으며 몇 해 전부터는 인민군 군인들과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원아들에게도 보내주고 있음.
- 온실에서 푸르싱싱한 남새가 자란다 (로동신문 1.22)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남새온실에서 한겨울에도 남새가 생산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새로 건설된 온실에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2배나 더 많은 거름을 낼 목표로 보통강의 감탕과 부식토, 진거름, 닭배설물, 벼겨등을 잘 배합하여 종전보다 더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해 나감.
  - 제2작업반 7분조원은 한해에 6차례에 걸쳐 남새를 계단식으로 생산해냄.
  -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농장원도 올해에 들어와 벌써 시금치와 썩갓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새를 수확하여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음.
- 첫 버섯을 수확 (로동신문 1.22)
  - 강서버섯공장의 일꾼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새해의 첫 버섯을 수확하여 구역안의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 유가족들에게 공급하였음.
  - 건물 제곱미터 당 버섯생산량을 늘려 버섯생산을 집약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 결과 얼마 전에 약1톤의 첫 버섯을 수확하였음.
  - 공장에서는 버섯생산과 함께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와 가정에 기질블럭을 충분히 생산하여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성과를 거두었음.

- 시운전과 종균배양에 착수 (로동신문 1.29)
  - 남포시에서 버섯공장설비조립을 끝내고 시운전에 들어가고 종균배양을 시작하였음.
  - 기본생산건물과 보조생산건물을 비롯하여 10여개 대상의 건축공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주변정리, 도로포장, 나무심기 작업이 진행됨.
- 좋은 남새작황을 마련 (로동신문 2.10)
  - 도농촌경리위원회 해주 남새온실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온실남새생산에 힘을 쏟아 좋은 결실을 이루었음.
  - 해주남새온실은 20개 호동에 재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수양산기슭에 새로 세운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임. 이곳은 지난해 12월 호동마다 남새모를 옮겨 심고 생육단계에 따라 물주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 해주시 석천 남새전문협동농장온실에서도 5개 호동으로 된 천 수백 제곱미터의 남새온실에서 배추, 부루(상추)를 비롯한 잎남새들이 자라고 있음.
  - 지난해 광명성절에 여러 톤의 남새를 생산하여 시안의 영웅과 전쟁노병들, 영예군인에게 공급한 농장은 올해에는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해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음.
- 버섯기르기를 적극 내밀어 덕을 본다 (로동신문 3.20)
  - 연탄군에서는 버섯공장에 해마다 많은 종균과 1만여 개의 버섯재배 블록을 생산하여 군안의 130여개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과 가정세대까지 공급해주는 체계를 세웠음.
  - 그 결과 군에서는 지난 7년간 해마다 평균 30여 톤의 버섯을 생산하여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 탁아소, 유치원 원아들을 비롯한 군내 주민에게 공급해줌.
  - 은과광산에서는 380제곱미터의 개도식 버섯재배장을 꾸려놓고 해마다 수십 톤의 버섯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닦아놓았음.
  - 은률광산에서는 지난 시기 이용하던 300여 제곱미터의 태양열에 의한 남새온실을 개건확장하고 종균배양장과 멸균실, 분쇄실을 갖추어놓았으며 지하버섯재배기지도 꾸려놓음.
  - 현재 광산에서는 연 1,800여 제곱미터의 버섯과 온실남새생산기지를 갖추어놓고 생산물들을 광부원과 정양소, 영양제식당들에 공급해주고 있음. 그리하여

광부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최근 3년간 철광석 생산계획을 해마다 평균 105%로 넘쳐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

- 평안북도 운산군 좌리협동농장에서 버섯분조를 조직하고 500제곱미터의 버섯 재배장을 자체로 꾸려 최근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농장안의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 농장원 세대들에 공급하고 있음.
- 갯도식재배장에서 사철 버섯을 기른다 (로동신문 3.26)
  - 은파광산에서 자연조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사시사철 버섯을 길러내고 있음.
  - 광산에서는 연간 수십 톤 생산능력의 갯도식재배장을 꾸리고 수백제곱미터의 면적에서 버섯기르기를 하였음.
  - 광산일꾼의 말에 의하면 버섯을 기른 결과 온실이나 야외에서보다 품질 적게 들이면서도 한 주일 만에 첫 수확을, 한 달 동안에는 3차례의 수확을 하였다고 함.
  - 폐기질은 짐짐승배설물에 섞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부업농사에 이용하면서 기질감이 많이 마련되게 하였음.
  - 광산에서는 종균배양도 계획적으로 하면서 몇 달을 주기로 갯도식재배장에서의 버섯기르기를 정상화하였음. 그 결과 올해에 들어와서만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여러 톤의 버섯을 수확하였음.

## 8. 기타 보도 동향

### □ 비료, 거름

- 니탄생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14)
  - 새해에 들어와 수북, 화산협동농장에서 수천 톤의 니탄을 캐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군 일꾼은 니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양, 풍천협동농장 등 4개 지구에 기계수단을 집중시켜 생산하고 있음.
  - 오현, 소정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니탄이 매장되어 있는 농장에서는 매일 작업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노력과 기계수단을 이용하여 많은 니탄을 생산함.

- 군에서는 생산된 니탄을 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보내어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과 캐넌 니탄을 흙보산비료생산기지에 실어내기 위해 노력함.
- 매일 500여 톤의 거름을 운반 (로동신문 1.18)
  - 정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뽕밭주변에 정보당 2개 이상의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풀거름을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였음.
  - 니탄캐기와 함께 물길과 물웅덩이 바닥에 있는 감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름 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도 함.
  - 석산작업반이 거름실어내기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원봉, 대산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도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그리하여 사업소에서는 매일 5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뽕밭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비료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로동신문 1.19)
  - 연합기업소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해부터 시비년도 화학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현대적인 물전해공정과 가스화공정을 정상운영하는데 힘을 쏟아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즉시 농촌에 보내주고 있음.
  - 참모부의 일꾼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공정간 연계를 통해 가스화공정과 물전해공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감. 참모부는 매개 생산공정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바지 함.
  - 가스발생로직장과 가스청정직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유효성분 함유량을 최대한 높이고 질 좋은 가스를 생산하여 합성공정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요소직장과 질안직장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순환공정과 증발공정, 입상공정을 비롯한 모든 공정에서 설비, 장치물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교대작업을 통해 매일 많은 양의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으로 실어 보내고 있음.
- 토양개량제생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문제 (로동신문 1.24)
  - 평양시여단 일꾼이 토양개량제생산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면서 물동량이 적은 질 좋은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원료를 마련하는 사업에 힘을 쏟음.
  - 여단에서는 질 좋은 원료만을 채취하도록 진한 검은색이고 가벼우면서 1세제 곱미터의 무게가 450~500kg정도 되는 원료를 실물로 보여준 후 과학기술지식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음.
  - 여단에서는 진거름, 열두바닥 흙, 소석회를 비롯한 여러 종에 2만여 톤의 토양개량제를 생산할 목표를 세워 1월 중순까지 계획된 양의 1.8배가 넘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오늘도 내일도 본보기 농장의 영예를 (로동신문 2.3)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첫 달 거름실어내기 실적이 190%계선을 넘어섰음.
  - 사리원시 기계화초병들은 매일 1,000여 톤의 거름을 실어냄. 그 결과 50여일이 걸려야했던 수만 톤의 거름실어내기를 20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가 이루어짐.
  - 미곡리 농장원들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6,000여 톤의 진거름이 확보되었음.
  - 농장에서는 한 달 동안에 수 천 톤의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으며, 올해농사에 쓸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생산과 중소농기구확보도 이미 끝남.
- 질 좋은 소석회와 니탄을 많이 생산 (로동신문 2.7)
- 화평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노천식 소석회 생산장을 꾸려놓고 매일 많은 양의 소석회를 생산하였음.
  - 땅에 깊이 수 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송풍장치를 결합시킨 노천식 소석회 생산방법의 경제적 효과성은 큼. 100톤의 소석회를 생산하는데 불쏘시개로 장작단 몇 개면 충분하므로 많은 땀나누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음.
  - 짧은 기간에 농촌의 작업반에 있던 수십 개 소규모 소석회 생산장이 모두 없어지고 한번에 80~100톤의 소석회를 생산할 수 있는 노천식 소석회 생산장이 협동농장에 하나씩 꾸려졌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매일 수백 톤의 니탄을 캐내는 성과가 이루어졌음
  - 남석, 룡호, 농포협동농장이 니탄 생산에서 연일 성과를 이루었음. 특히 남석협동농장에서는 10일 동안 1,200여 톤의 니탄을 캐내는 성과를 이룸.

- 송향협동농장에서는 캐넌 니탄을 제때에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을 잘 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니탄을 운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425만여 톤의 기름을 포전에 (로동신문 2.11)
  -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에서 기름실어내기 마감단계에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월초까지 도적으로 425만여톤의 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기름실어내기에서 신의주시가 앞서나가고 있음.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많은 양의 질 좋은 기름을 시안의 협동농장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석하, 토성, 마전 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은 2월초까지 14만 톤의 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광산군과 대관군에서는 농사차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름실어내기 마감단계에 있음.
  - 이 밖에도 운전군과 정주시를 비롯한 논면적이 많은 시, 군들에서도 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물길들과 중소하천정리에 힘을 쏟고 있음.
- 앞선 단위를 내세워주고 적극 일반화 (로동신문 3.1)
  - 역구도협동농장에서는 땀감이 적은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 기름더미를 이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종균을 접종한 생물활성퇴비더미안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고 니탄과 암모니아수와 같은 물질을 섞은 다음 퇴비를 덮고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생물활성퇴비와 함께 흙보산비료도 생산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논 정보당 5톤의 흙보산비료를 낼 계획임. 작업반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200톤의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위한 기름더미 속에서 많은 양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음.
  - 향정협동농장에서는 기름원천을 집짐승우리에서 뱉혀 썩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기름을 생산함.
-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 (로동신문 3.23)
  -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은 시적으로 흙보산비료 생산을 잘하기로 소문났음. 농장원들은 모래기가 많은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 톱밥을 원료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 그 후 농장에서는 톱밥을 실어들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음. 운반해온 톱밥을 두해동안 푹 썩힌 후 여기에 진거름을 골고루 섞게 함.
- 이렇게 생산한 기질 1톤에 암모니아수 20~30킬로그램, 소석회 100~150킬로그램을 골고루 넣어 혼합하였음. 혼합방법은 기질을 20센티미터의 두께로 펴고 암모니아수를 분무하는 방법으로 함.
- 그 다음으로 높이가 1.5~2미터 되게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박막을 씌워 더미의 온도가 30도까지 오르게 하였음. 이런 방법으로 봄과 가을에 많은 흙보산비료를 야외에서 생산하였음.
- 흙보산비료를 사용하니 원료걱정이 없어 좋았으며 톱밥에는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 흙보산비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었음. 또한 톱밥을 실어들이면 풀이나 곡식 짚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품이 적게 들고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므로 알곡 정보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음.

## □ 농기계

- 중소농기구전시회 진행 (로동신문 2.18)
  - 황해북도에서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마련한 중소농기구 전시회가 진행되었음.
  - 전시회에서는 도농촌경리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가 높은 평가를 받았음.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은 이번 전시회에 심층시비기, 탈곡기, 보습날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수천 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내놓았음.
  - 도에서 전시회가 끝난 다음 전시했던 중소농기구들은 모두 미루벌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짐.
- 농기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3.20)
  - 신의주시와 고산군에서 농기계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실속 있게 진행함.
  - 신의주시에서 트랙터 출동식이 진행되었음. 시급기관의 일꾼은 용접봉과 철관을 비롯한 수리자재와 트랙터부속품과 타이어 등을 보장해주어 트랙터수리정비를 끝내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시적으로 170여대의 트랙터를 수리, 정비함.
  - 고산군 죽근, 금풍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중소농기구들을 새로 만드는 것과 함께 이미 있던 농기구들을 제때에 수리, 정비하여 올해농사에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 현지지도

-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건설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2.23)
  - 김정은이 한광상, 황병서, 마원춘과 함께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봄.
  - 김정은은 지난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돌아보면서 이곳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건설할 데 대한 지시를 주었음.
  - 연장길이가 수백 미터의 달하는 1호 부두와 2호 부두, 상가대, 방파제, 호안공사를 진행하고 어로공 합숙, 휴게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을 세워야 하는 수산사업소건설은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 방대한 건설임.
  - 김정은은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음.

## □ 수산

- 첫 출어 성공적으로 보장 (로동신문 3.3)
  - 가마포수산사업소에서 2월 28일 첫 출어를 성공적으로 함.
  - 사업소에서는 10여척의 고깃배들을 현대화함으로써 물고기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해상지휘체계를 질서정연하게 세우고 출어일수를 높여 수산물생산에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함.
- 100정보의 양식장 새로 조성 (로동신문 5.13)
  - 서해의 주요바닷가양식사업소의 양식장면적이 늘어났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늘어난 양식장의 면적은 100정보에 달하며 이미 있던 양식장들의 다시마 작황에 못지않아 정보당 많은 다시마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함.
  - 수산성 일꾼은 전기가 부족하면 수동식으로 밧줄을 생산하였고, 곳곳에 띄우개 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거나 보강하였음.
  -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밧줄이 마련되었고, 수많은 띄우개들이 생산되었음.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 경제일반

#### □ 北, 中 인접 평북 경제개발구 '시범모델'로 띄우기

- 지난해 11월 13개의 도(道)급 경제개발구 설립을 발표한 북한이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를 경제개발구 '시범 모델'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
- 북한의 대외홍보용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27일 '평안북도가 경제지대(경제개발구) 개발을 진행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는 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내나라'는 특히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가 들어서서 신의주시를 소개하며 "신의주는 조(북)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 소재지로 나라의 경공업 산지이며 조중 변경무역의 중심지, 중국과의 무역상품 집산지, 무역화물 유통중심지"라고 부각함.
- 이어 압록강경제개발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후산(虎山)과 마주한 신의주시 룡운리 구리도와 어적도 일부 지역에 건설된다며 개발 면적은 6.6km<sup>2</sup>라고 밝힘.
- 이 사이트에 따르면 평안북도는 어적도에 관광오락시설과 음식점을 결합한 '국제 봉사기지를 꾸려 압록강 맞은편인 중국 후산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리도에는 현대농업과학연구단지과 채소·화초 생산시설 등을 세울 예정임.
- 압록강경제개발구의 총 투자액은 2억 4,000만 달러(약 2,603억 원)로 13개의 도 경제개발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개발 면적은 황해북도 신평 관광개발구(8.1km<sup>2</su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北, 中 인접 평북 경제개발구 '시범모델'로 띄우기", 2014.1.27

## □ 북중 작년 교역액 65억 달러…사상 최대

-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함.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2% 급증함.
- 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1~12월 북·중 교역액은 65억 4,500만 달러(약 7조 162억 원)로 집계됐음. 이는 2012년의 59억 3,100만 달러보다 10.4%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대 규모임.
- 2010년과 2011년 급증세를 보인 북·중 교역액은 2012년에는 5.4% 늘어나는데 그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회복했음.
- 북한의 작년 대중 수출액은 29억 1,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2% 늘었으며 수입액은 36억 3,300만 달러로, 5.4% 증가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억 2,100만 달러로, 전년의 9억 6,100만 달러보다 25% 줄어듦.
-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수출액이 13억 7,371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5.5% 증가한 액수임.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도 2억 9,419만 달러로, 전년보다 21.3% 늘었음.
-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석유로, 수입액이 5억 9,813만 달러였음.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액은 4,402만 달러로, 전년보다 26.6% 감소함. 연합뉴스, "북중 작년 교역액 65억 달러…사상 최대", 2014.2.1

## □ "北 나선 나무심기 관광상품 출시" <美 방송>

-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여행사가 북한 나선지역에서 직접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이색 관광상품을 새로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여행사 '크라훈 투어스'(Krahun Tours)는 "오는 3월과 4월에 북한 '나무 심기 관광'을 기획했다"고 전날 밝혔다.
- 이 여행사는 북한에서 매년 봄이 오면 전 주민이 묘목 심기에 동원된다고 이번엔 출시되는 관광상품은 북한의 식수활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기회라고 홍보함.

- 10박 11일 일정의 이 관광상품 가격은 1인당 750달러(약 80만원)로 관광객들은 중국 옌지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감. 처음 5일은 일반 관광을 하고 나머지 6일은 나선 경제특구에서 나무를 심음.
- RFA는 크라훈 투어스가 외국의 여행사로는 유일하게 북한 내에 직접 사무소를 두고 외국인에게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함.  
연합뉴스, "北 나선 나무심기 관광상품 출시", 2014.2.8

#### □ "싱가포르 NGO, 北서 경영연수 전국 확대" <RFA>

- 싱가포르의 대북교류 비정부기구(NGO) '조선익스체인지'가 북한에서 벌여온 경영연수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을 평양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3일 보도했음.
- 조선익스체인지는 최근 펴낸 '2013년 활동 보고서'에서 그동안 평양에서만 진행하던 경영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는 전국 각 도로 확대하고 젊은 여성을 위한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함경북도 나선 지역을 견학한 데 이어 11월에는 북한 5개 도(道) 정부 관료와 경영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에서 시범세미나를 열었음.  
연합뉴스, "싱가포르 NGO, 北서 경영연수 전국 확대", 2014.2.13

#### □ 北 김정은 군 식품공장 시찰..."이런 공장 가진 것 자랑스럽다"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인민군 '11월 2일 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음.
- 김 제1비서는 공장 종합조종실과 사탕작업반, 과자작업반 등 현대화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인민군대가 이런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자랑"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음.
- 김 제1비서는 "생산공정현대화가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됐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현대화, 당에서 바라는 현대화"이라고 높이 평가함.
- 중앙통신은 김 제1비서가 지난해 11월 12일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생산공정을 컴퓨터화·무인화·무진화·무균화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함.

- 김 제1비서의 이번 시찰에는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 군 식품공장 시찰...이런 공장 가진 것 자랑스럽다", 2014.2.20

#### □ 1월 북중 교역액 전년보다 16% ↑ ...'張 속칭' 영향 없어

- 북한과 중국의 올해 1월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 12월 장성택 속칭으로 북중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눈에 띄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5억 4,600만 달러(약 5,830억 원)로 집계됐음. 이는 작년 1월의 4억 7,100만 달러보다 15.9% 증가한 액수임.
  -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2,300만 달러, 수입액은 3억 2,300만 달러였음.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 1월보다 각각 18.0%와 14.5%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의 지난달 수출액은 1억 155만 달러(약 1,085억 원)로, 작년 1월보다 21.3% 늘었음.
  - 같은 기간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2,365만 달러로, 전년 동기(2,330만 달러)와 비슷함.
  -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휴대전화 등 무선단말기로, 수출액이 1,447만 달러였음. 이는 작년 1월보다 28.0% 증가한 액수임.
  - 중국 경유의 지난달 대북 수출액은 1,024만 달러로, 작년 1월보다 38.6% 늘었음.
- 연합뉴스, "1월 북중 교역액 전년보다 16% ↑ ...'張 속칭' 영향없어", 2014.2.28

#### □ 北 노동신문 "경공업 발전에 지방공업 중요하다"

- 북한 노동신문이 경공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지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힘.

- 노동신문은 "지방공업은 1970~1980년대만 해도 전국적인 소비품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현물지표로는 70% 이상을 맡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모든 시, 군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풀가동)로 돌려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독려했음.
-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의 경공업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겠다는 야심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현대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경공업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해 화학, 석탄, 전력 등 연관단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해 나서야 한다"고 재차 독려했음.

노컷뉴스, "北 노동신문 "경공업 발전에 지방공업 중요하다", 2014.3.19

#### □ "러, 북한 가스관 건설에 北 채무 활용 추진"

- 러시아가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의 일부를 상환 받아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할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스토르차크 차관은 가스관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북한의 일부 채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러시아는 2012년 9월 북한이 옛 소련에 진 109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 가운데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북한의 에너지와 보건 등의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음.
- 러시아 정부는 이 협정 비준안을 지난달 18일 국가 두마에 제출했으며 비준안은 이날 예산위원회를 통과함.

- 스토르차크 차관의 발언은 북한의 채무를 재투자할 에너지 프로젝트에 가스관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 스토르차크 차관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인 가스프롬이 남북한 가스시장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은 양국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향후 북한 개발 과정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러, 북한 가스관 건설에 北 채무 활용 추진", 2014.3.20

#### □ "캐나다 NGO, 北서 8월 외국인 대상 정치·경제 포럼"

- 캐나다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평양 프로젝트'가 북한에서 외국인이 참가하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 이 단체는 오는 8월 북한의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과 북한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포럼의 목적은 외국 학자들이 북한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연변대 국제관계학과와 캐나다 교수진이 주도할 포럼에는 외국인 30~4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RFA가 설명함.
  - 포럼 참가자들은 선양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북한을 방문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토론하고 문화, 스포츠 등의 교류도 하게 됨.
  - 이들은 북한에서 청진, 함흥, 원산, 개성, 사리원 등의 지역도 방문할 계획임.
- 연합뉴스, "캐나다 NGO, 北서 8월 외국인 대상 정치·경제 포럼", 2014.3.20

#### □ 정부, 北에 경공업 차관 상환하라고 통보

-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제공한 원금만 800억 원대에 이르는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음.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21일 "2007년에 북한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체결하고 8,000만 달러 상당을 제공했다"며 "오는 24일이 첫 만기일이어서 상환을 요구했다"고 밝힘.

-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임. 경공업 원자재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됐음.
- 북한은 계약에 따라 2008년에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아 있음.
-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 측에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를 합쳐 모두 8,603만 달러임.
- 정부는 만기일이 지나도 북한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상환 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노컷뉴스, "정부, 北에 경공업 차관 상환하라고 통보", 2014.3.21

#### □ 北, 경제 관련학과 대거 신설...개발인재 양성 노력

-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대학들에 경제·경영 관련 학과가 대거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음.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평양발로 북한에서 "대학들의 교육체계를 보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일부 대학들이 신설한 학과를 소개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는 국제경제학과가 생겼고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는 호텔경영학과와 호텔봉사학과가 신설됨. 또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는 관광경제학과, 보험학과, 가격학과, 경제법률학과가 설치됐음.
- 조선신보는 또 "지방에 있는 경공업 대학들을 해당 도들에 필요한 각이한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명에 맞게 명칭을 바꿨다"며 신의주경공업대학이 평북공업대학으로, 해주경공업대학이 황남공업대학으로 개명했다고 전했다.
- 이 밖에도 평양컴퓨터기술대학에는 컴퓨터장치공학과와 지능프로그램공학과, 평성석탄공업대학에는 지열공학과, 함흥수리동력대학에는 산림건설공학과와 열



설비학과, 평양인쇄공업대학에는 공업미술학과와 상업미술학과가 신설됐으며 의학대학들에는 회복의학과가 생겼음.

- 조선신보는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사이버 대학)이 설치됐고 김형직사범대학 등에는 원격교육학부가 생겼다고 전했다.
  - 신문은 원격교육이 "각 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농업과 건설 등 여러 분야의 인재육성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연합뉴스, "北, 경제 관련학과 대거 신설...개발인재 양성 노력", 2014.3.22

#### □ 중국 헤이룽장성 "北 라선시에서 경제 무역 전시회"

- 중국 헤이룽장성(흑룡강성)과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오는 5월 경제·무역 전시회를 열기로 했음.
- 중국 흑룡강신문은 21일 "중국과 북한이 공동주최하는 '중국 흑룡강 상품기술 북무전'이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북한 라선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음.
- 이번 전시회는 무역교류를 강화하고 북중전통우의를 주제로 라선시의 독특한 지역우세를 충분히 이용해 대외진출 전략을 실시하며, 흑룡강성의 다원화된 국제무역협작 국면을 구축하는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전시회의 주요품목은 식품, 식품가공기계류, 경공업방직, 가구용품류, 건축장식재료류, 의료보건 및 문화체육용품류, 농업생산자료류, 에너지절약형 상품류 등이 출품된다고 밝혔음.
- 북한은 2011년부터 해마다 8월에 나선특구에서 국제상품전시회를 열고 있지만 특정 국가, 특정 지역과 무역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노컷뉴스, "중국 헤이룽장성 '北 라선시에서 경제 무역 전시회'", 2014.3.22

#### □ "러 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 北 무역상 회담"

-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북한 리룡남 무역상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음.

- 통신은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회담에는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과 대통령 일행, 알렉산드르 지모닌 평양주재 러시아 대서가 참석했으며, 북한 측은 리룡남 무역상과 농업과학원 김창호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회담에서는 양국사이의 무역경제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통신은 "이날 양국이 원유공업, 건설,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부문별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음.  
노컷뉴스, "러 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 北 무역상 회담", 2014.3.22

#### □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 방북...경제협력 논의 예정

-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 일행이 2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갈루쉬카 장관과 일행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앞서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이달 7일 보도문을 통해 갈루쉬카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이달 중순 북한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 한편 김영일 노동당 비서가 이날 방북 중인 카즈백 타이세프 러시아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음.
- 이날 김 비서와 타이세프 부위원장은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공산당 간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도 조인했음.
- 김 비서는 연설에서 양국 간 "친선협조 관계가 김 제1위원장의 세심한 관심 속에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이셰프 부위원장도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의 유대가 세기와 연대를 이어 강화발전"됐다고 화답함.

연합뉴스,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 방북...경제협력 논의 예정" 2014.3.24

#### □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北 석유매장지 탐사 계획"

-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이 북한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 탐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6일 보도했음.
-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루스탐 만나하노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귀국 브리핑에서 지난 21일과 22일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 이어 "북한은 석유,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매장지 탐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타타르스탄 전문가들의 경험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북한이 농기계 예비부품 생산과 공급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 러시아방송은 "북한은 구 소련 시절에 생산된, 오래된 농기기를 이용하고 있어 수리가 필요한 예비 부품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北 석유매장지 탐사 계획", 2014.3.27

#### □ 北 무역상,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회담

- 북한 리룡남 무역상과 방북 중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공업·농업장관 간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조(북)-몽 정부 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 조선측 위원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공업 및 농업상의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어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 통신이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회담에 황민 북한 농업성 부상 겸 세포지구 축산경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 축산단지 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황 부상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농업상을 지냈으며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 사업의 하나인 세포지구 축산경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농업성 부상을 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 11월부터 강원도 세포 지역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세울 목표로 세포동판을 목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임.  
연합뉴스, "北 무역상,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회담", 2014.4.1

#### □ 北·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 추진

- 북한과 몽골이 2일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과 황민 농업성 부상, 몽골측에서 할트마긴 바트툴가 공업·농업장관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대사도 참석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인식에 참석한 황 부상이 강원도 일대의 대규모 목초지인 '세포동판' 조성을 책임진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농축산업 협력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양측은 북한 무역성과 몽골 노동부 사이의 양해문에도 조인했음.  
연합뉴스, "北·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 추진", 2014.4.2.

#### □ 조선신보 "北, 작년 3월 생산단위 '독자경영제' 도입"

- 북한이 경제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3월 공장 등 모든 생산 단위에 독자 경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음.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조선(북한)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작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생산 단위들이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했음.

- 이어 독자 경영체제 도입은 "국가 계획을 벗어난 생산을 자체의 결심으로 조직하고 판매하며 종업원들의 보수, 복리후생 등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 북한에서 생산단위의 독자 경영체제 도입은 그동안 조선신보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그 도입 시기가 '작년 3월'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조선신보는 독자 경영체제 도입 이후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일부 생산 단위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열의가 높아지면서 생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소개함.
- 우수한 경영으로 실적을 낸 단위들에 대한 '모범 배우기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경영 노우하우(노하우)'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덧붙임.
- 이 공장은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동자들의 월급이 실적에 따라 수십 배로 늘었으며 일부 노동자는 월급이 100배 이상으로 뛰기도 했음.
- 공장 측은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일으키고자 실적을 평가하고 공개해 직장, 작업반, 개인별로 표창을 했으며 1등 단위에는 "보신탕이나 특식"을 대접하기도 했음.
- 조선신보는 "이 공장에서 3~4년 일을 하면 살림집(주택)이 차례진다(생긴다)"며 평양326전선공장이 구직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함.  
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작년 3월 생산단위 '독자경영체' 도입"", 2014.4.2

#### □ 北 매체, "전력난 해소 노력 소개"

- 북한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희천10호발전소, 금야강수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음.
- 통신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발전기실 건설의 중요시공과제인 굽은관 매몰공사에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함.
- "자강도 희천10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철도성여단의 돌격대원들은 굽은관설치공사를 끝내고 매몰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여단의 돌격대원들도 계획된 공사량을 기본적으로 마쳤다"고 소개했음.

-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은 기계설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희천4호발전소 굽은관 매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다"고 했음.
- 희천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자강도여단에서도 이틀 동안에 4개의 다리보들을 언제(댐)수문기둥위에 조립한 기세를 몰아 매몰공사에서도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선전함.

노컷뉴스, "北 매체, "전력난 해소 노력 소개", 2014.4.5

#### □ 2월 북미 교역 전년 대비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

- 지난 2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를 인용해 8일 보도했음.
- 올해 2월 북미 교역액은 120만 달러(약 12억 7,000만원)로 작년 같은 달의 6만 2,000달러(약 6,540만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음.
-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 물자였음.
- 전체 수출액의 95%에 이르는 113만 달러(약 11억 9,000만원)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음.
- 올해 1월에는 미국의 대북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2월 대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수출액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5만 1,000달러, 신발류 8,000달러, 플라스틱 제품 6,000달러 등이었음.

연합뉴스, "2월 북미 교역 전년 대비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 2014.4.8

#### □ 러시아 "北 라진항 통해 석탄 9,000톤 첫 수출"

-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 반출을 처음으로 시작했음.
- 자유아시아방송은 9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지난 달 말 서시베리아 쿠즈바스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 9,000톤을 화물열차편으로 나진항으로 이송해 선적됐다"고 밝힘.
- 모스크바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들은 "객차 130량에 실린 석탄은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북러 국경철도를 통해 나진항까지 운송됐고 동

해를 거쳐 상하이와 댜오둥, 광저우 등 중국 동부 지역으로 전량 수출했다"고 설명함.

-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석탄 수출은 러시아가 본격적인 나진항 운송을 앞두고 열차 운행과 통관 체계, 그리고 화물 하역과 선적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시험 반출"이라고 말했음.
- 러시아는 그 동안 나진-하산 철도 개조와 나진항 3호 부두의 바다 준설과 크레인용 레일 설치 등 보수 공사에 90억 루블(약 2억 5,000만 달러)을 투입했음.  
노컷뉴스, "러시아 "北 라진항 통해 석탄 9,000톤 첫 수출", 2014.4.10

#### □ "北, 쌀값 안정에 '집값' 올라...역부근 아파트 2만 달러"

- 최근 북한 내에서 쌀값을 비롯해 시장물가가 안정되면서 주택 부동산가(價)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시장물가가 불안정하고 변동 폭이 심할 때는 분가(分家)해 살던 세대들이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쌀값 등 시장물가가 안정되면 다시 분가하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음.
- 지난해 3월 평양과 양강도 혜산의 쌀값은 7,000원대까지 육박했지만, 지난달 평양은 4,000원 정도, 혜산은 4,500원 선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에 쌀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쌀값이 안정되니 집 사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면서 "집을 장마당 가까이 옮기려고 알아보니 장마당 주변에는 창고 자리까지 모두 팔려 살 수가 없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 가을까지도 역전 주변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쌀값이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부연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장마당 주변 단층집 한 칸짜리는 지난해 이맘때 4,000달러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5,000달러(북한 돈 약 3,650만 원)이고 역전 부근의 골조만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는 2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어 소식통은 "3, 4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따뜻해져 이사하기 좋고 증축과 신축하기도 좋은 계절이 쌀값 안정과 연결고리가 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경우 주택부동산 값은 점점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집을 살 때 '입사증'(국가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집값을 지불하기 전에 '입사증' 담보부터 받는다"고 덧붙임.

데일리NK, "北, 쌀값 안정에 '집값' 올라...역부근 아파트 2만 달러", 2014.4.11

#### □ 싱가포르 NGO, "北 관료 180명 국제 경제 경영 연수"

- 싱가포르 비정부기구가 마련한 경제특구와 지역 개발에 대한 세미나에 북한 경제분야 실무 관료 18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싱가포르의 대북 교육 교류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는 14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양과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경제 특구 개발과 투자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세미나에 북한 관료 180여명이 참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이 기구는 "외국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이끄는 세미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4번의 북한에서의 세미나와 1번의 해외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 원산의 동명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 기술(IT) 연구를 상업용도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함.
- 이는 "북한 관료들이 정보 기술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연구 자체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노컷뉴스, "싱가포르 NGO, "北 관료 180명 국제 경제 경영 연수", 2014.4.15

#### □ "北 기업소·공장 생산자율제 정착 미흡"

-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공장·기업소들의 '생산자율제'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6일 "양강도 기초식품공장과 혜산신발공장, 혜산곡산공



장 등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생산자율제'를 도입한 공장은 혜산신발공장 한 곳 뿐"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 소식통은 "혜산신발공장의 노동자 월급이 기존의 북한 돈 2천원에서 2만원 안팎으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집에서 장사를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평양 '3.26전선공장'이 '생산자율제'를 도입해 지난해보다 생산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노동자들의 월급도 실적에 따라 수십배, 일부는 100배 이상 뛰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 소식통은 "청진화학공장의 경우 중국기업의 위탁생산을 맡아 지난해 10월 월급이 북한 돈 3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못하고 있어 아예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신의주 신발공장에서 만든 신발들이 장마당을 독점해 다른 신발공장의 제품들은 팔리지 않는다"며 "이런 현상 때문에 '생산자율제'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신의주 신발공장의 신발은 북한 돈 3만 5천원인데 회령 신발공장에서 만든 비슷한 제품은 장마당에서 북한 돈 9천원인데도 질이 나빠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이처럼 생산된 신발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회령 신발공장 노동자들은 고작 북한돈 8천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北 기업소·공장 생산자율제 정착 미흡", 2014.4.17

#### □ 北,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12일 개막

-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5월12일~15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관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다.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전람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는 12개 나라와 지역에서 140여개 단위들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14개 나라와 지역에서 290여개 단위들이 주최 측에 참가 의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 이번 전람회에는 기계, 금속, 전기, 건설, 광산, 에너지(에너지), 환경보호, 운송, 통신정보, 농업과 식품 등에 관한 상품과 기술들이 출품됨.
  - 조선신보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국제친선을 강화하고 경제무역분야에서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상품과 기술교류와 관로개척, 투자유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1989년 제1차, 1992년 제2차에 이어 200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노컷뉴스, "北,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 12일 개막", 2014.4.22.

#### □ "중국 올해 1분기 대북 원유수출 제로" <코트라>

- 중국의 올해 1분기(1~3월)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24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2014년 1~3월 중국의 대북 수출입 현황' 자료를 통해 1분기 중국의 대북 원유(분류코드 HS 2709) 수출은 이례적으로 '제로'(0)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지난해 1년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가공유(HS 2710)는 4위를 기록한 바 있음.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 북한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원유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을 가능성 ▲ 비축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 중국이 이 기간 송유관을 전면적으로 수리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보다 2.83% 줄어든 12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음.
-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5% 줄어들었고 수입은 2.84% 늘어남.
-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으로는 주요 광물성 연료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임가공 사업 증가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중국의 대북 무역수지는 6,260만 달러를 기록, 지난 2004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 이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수지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의 대북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음.

연합뉴스, "중국 올해 1분기 대북 원유수출 제로", 2014.4.24

#### □ 北-러시아 아무르주... "무역경제협조 합의서 조인"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일행이 28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조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무역성과 러시아 연방 아무르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됐다"며 "리룡남 무역상과 올레그 코제먀코 아무르주지사가 서명했다"고 전함.
- 합의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궁석웅 외무성 부상, 임천일 러시아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음.
- 이날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철도운수부문 협조에 관한 문건도 조인했음.

노컷뉴스, "北-러시아 아무르주... "무역경제협조 합의서 조인"", 2014.4.28.

## 2. 식량 사정

#### □ 北, 작년 중국산 곡물 수입 29만 8,000톤...5.9% ↑

- 지난해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이 2012년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은 모두 29만 8,257톤으로 2012년 28만 1,633톤에 비해 5.9%(1만 6,624톤) 늘었음.
-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중국산 곡물을 중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밀가루가 52.3%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25.7%), 쌀(16.6%), 콩(5.1%) 등의 순으로 집계됐음.

-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2012년 1억 2,714만 달러(약 1,378억 원)에서 지난해 1억 4,601만 달러(약 1,583억 원)로 14.8% 증가함.
- 북한이 최근 2년간 가을 작황이 괜찮았음에도 곡물 수입을 늘린 것은 주민의 식량 수급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옴.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식량 수급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작년 중국산 곡물 수입 28만 8,000톤...5.9% ↑", 2014.1.27

#### □ 北신문 "먹는 문제 해결 위해 바다 잘 이용해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 부문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수산 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하지만 수산부문도 추켜세워야 한다"며 수산부문을 '보조타격 방향'으로 규정했음.
- 신문은 또 어선 가동과 물고기 보관, 가공에 필요한 연유, 전기, 소금을 '수산 부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대 요소'로 제시하고 어로공을 위한 후방사업(후생복지)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음.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수산업을 육성해 군과 주민 생활 개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北신문 "먹는 문제 해결 위해 바다 잘 이용해야"", 2014.1.30

#### □ "北, 올해 곡물 34만 톤 부족 전망"

-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34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2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에 기고한 '2013년 북한의 식량 생산 및 2014년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은 최소 53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에 북한의 총 인구가 2,480만 명이고 지난해 북한의 1인당 연평균 기초 식량 소비량이 174kg이었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결과임.
  -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작황을 조사한 결과, 2013~2014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생산량은 503만 톤(도정 후 기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음. 이는 올해 북한에서 곡물 34만 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임. 2011~2013년 평균 곡물생산량은 1980년대의 600만 톤 수준에 훨씬 못 미침.
  - 김 선임연구위원은 "곡물 수입 필요량 34만 톤 중 30만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4만여 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토양침식, 저지대 홍수피해, 전반적 토지 생산성 하락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함.
  -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분배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면 동기유발 효과가 클 것이며 식량부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공급을 늘리고 농업생산과 유통부문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함.
- 연합뉴스, "北, 올해 곡물 34만 톤 부족 전망", 2014.2.2

#### □ WFP "지난해 北 주민 식량소비 상태 개선"

- 북한에서 식량 배급량 증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14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지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북한 가구의 46%가 식량 소비 면에서 '적당'(acceptable)으로 분류됐음.

- '취약'(poor)에 해당하는 가구는 17%였으며 '경계'(borderline)에 속하는 가구는 38%였음. 북한 가구의 55%는 여전히 식량 부족 상태라는 얘기임.
- 그러나 이는 1년 전인 2012년 4분기보다는 개선된 결과로 당시 북한 가구의 식량 소비는 '적당'이 26%밖에 안 됐고 '취약'과 '경계'는 각각 24%, 50%였음.
- WFP는 식량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인 북한 지역 119가구 방문과 당국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도출했음.
-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나아진 것은 식량 배급량이 증가한데다 WFP의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음.
- WFP는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배급량이 작년 10월 390g으로 늘어난 데 이어 11~12월에는 400g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함.
- 이를 토대로 WFP는 작년 1분기에 북한 주민들이 겪은 식량난이 올해 1분기에 는 덜할 것이라고 내다봄.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식량 소비 상태가 '취약'에 해당하는 가구가 42%에 달했음.
- WFP는 북한의 콩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올해 주민들의 콩 소비는 악화될 수 있다며 식량 소비 상태가 나아졌지만 단백질 섭취 상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WFP, "지난해 北 주민 식량소비 상태 개선", 2014.2.14

#### □ 北, 2월 식량배급 하루 420g…"1년 사이 최고"

- 지난 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지난 1년 사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당국이 2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42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 디르크 슈테겐 평양사무소장이 4일 미국이 소리 방송에 밝혔음.
- 지난 달 배급량은 420g으로 늘었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밀돌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주민 한 명 당 하루 400g을 분배했으

며, 이후 6월과 7월 390g, 8월 상순에는 350g, 하순에는 320g으로 줄었고, 9월에는 310g까지 떨어졌음.

- 추수가 끝난 10월에 390g으로 다시 늘었고 11월과 12월, 올해 1월에는 400g을 유지함.
- 슈테겐 소장은 "스위스로부터 지원 받은 분유 400톤과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식용유 833톤이 이달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또 "사우디 아라비아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로부터 지원받은 옥수수 총 1,080톤이 이 달 말 도착한다"고 밝힘.
- 이밖에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200톤도 이달 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北, 2월 식량배급 하루 420g... '1년 사이 최고'", 2014.3.4

#### □ 유엔, 北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또다시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 FAO는 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 33개에 포함함.
- FAO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작년까지 3년 연속 5% 이상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음.

-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11월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의 북한 곡물 생산량을 503만 톤(도정 후 기준)으로 추정했음.

연합뉴스, "유엔, 北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2014.3.8

#### □ 北, 혁명의 수도 '평양'만 배급...타 지역 '식량공급' 안 돼

-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작년엔 양강도 혜산 등 주요 도시에 '2호미(군량미)' 배급이 소량이라도 지급됐지만 올해엔 이마저도 배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음.

- 평양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당시 가을걷이를 통해 수확된 쌀을 배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배급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에도 보름치를 준 이후 16일 정도에 다시 보름치를 공급해줬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이 식량 배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지시를 직접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간부들 입에서 '지속적인 배급 약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믿지 않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비교적 풍족한 배급에 다들 반기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 그러나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올해 1월 가정주부들에게는 쌀과 옥수수를 3:7로 섞어 2kg을 줬고, 세대주들에게는 열흘 치 정도 분량을 배급으로 줬다"면서도 "하지만 2월부터는 소식이 없었고 식량이 떨어져가는 4월이 시작됐는데도 위(당국)에서 '배급'에 대한 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 황해북도 소식통도 "작년에는 (당국에서) 군량미를 풀어 배급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작년에 배급된 쌀 중에는 썩거나 벌레가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시(戰時)에 일반 주민에게 분배하는 '2호미'로 배급을 충당했지만 올해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 혜산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지난해에는 군량미까지 꺼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고,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난해 풍년에 따라 여유 쌀은 평양으로 가고, 지역 군대들도 먹을 것이 없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그는 이어 "농사 준비로 디젤유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감춰놓았던 쌀을 시장에 풀고 있어 식량 문제가 아직 그렇게 크진 않다"면서도 "6월 말에나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봄 보릿고개'로 허덕이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데일리NK, "北, 혁명의 수도 '평양'만 배급...타지역 '식량공급' 안돼", 2014.4.23



### 3. 가격 추이

#### □ 北옥수수, 2년 만에 1,000원대로 가격 하락..."구매력 향상 영향"

- 북한 평양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대체 식량인 옥수수 가격이 2년 만에 1,0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음.
-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3월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1, 2월에 2,000~2,200 원이었던 옥수수(1kg) 가격이 최근 들어 1,500원으로 떨어졌다"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싸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옥수수를 찾는 주민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주민들은 '쌀 가격이 4,000원대면 굳이 강냉이(옥수수)를 사먹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래서인지 현재 시장에서는 옥수수보다 쌀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들에 의하면 평양, 신의주, 혜산의 쌀 1kg 가격은 각각 4,000원, 4,300원, 4,400원에 거래되고 있음.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각각 200원, 200원, 100원 하락한 가격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옥수수 1kg 가격은 평양, 신의주, 혜산이 각각 1,400원, 1,550원, 1,500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500~700원 가량 하락했음.
- 소식통은 "원래 쌀 가격이 4,000원이면 옥수수는 2,000원 정도에 거래되어야 하는데 최근엔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웬일로 옥수수가 낮아지냐(싸지는냐)는 반응이면서도 정작 옥수수는 찾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옥수수 가격이 1,500원까지 내려간 데 대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평양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쌀 식량 배급이 이뤄진 점과 지난해 북한 전역에서 풍년이 든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음.

데일리NK, "北옥수수, 2년 만에 1,000원대로 가격 하락..."구매력 향상 영향", 2014.3.11

#### □ 북한, 내부 정보유출 통제 강화..."쌀값도 국가 기밀"

-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 소식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그동안 국가 기밀로 취급하지 않았던 '쌀값 등 물가' 정보도 외부에 알려지 말라고 하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인민반 모임에서는 '외부와 전화통화로 공화국의 비밀이 다 새나가고 있다'는 식의 강연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면서 "강연자는 외부와 전화통화하다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교화소로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이 이번처럼 강연회 등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쌀값과 같은 시장 물가도 '국가기밀'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최근 남한 언론 보도에 '최고 존엄 훼손'이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내부정보 유출과 외부정보 유입이 체제 유지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데일리NK, "북한, 내부 정보유출 통제 강화..." "쌀값도 국가 기밀", 2014.3.14

#### 4. 농업 일반

##### □ 유엔 농업 전문가, "北 농업생산 성과급제도 도입해야"

-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작한 농산물 규모에 따라 분배 몫이 달라지는 성과급제도의 전면 시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음.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키산 군잘 분석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작황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협동 농장을 돌아봤지만, 농업개혁과 관련한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군잘 박사는 "지난해 주요 자연 재해가 북한을 비껴간 것이 작황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잘 분석관은 "일한 만큼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에 혜택을 주는 방법과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자재나 비료 제공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이와 함께 "농지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추운 날씨에 강한 러시아나 중국의 개량 겨울 밀 종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모작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음.
  - 군찰 분석관은 "유엔의 북한 작황조사 보고서에 성과급 시행을 제안했고, 북한에서 조사활동 진행할 때 만난 북한 농업정책 책임자에게도 농업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함.
- 노컷뉴스, "유엔 농업 전문가, "北농업생산 성과급 제도 도입해야"", 2014.1.30

#### □ WHO, "北 조류 독감 발병 없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는 아직 조류 독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사무소는 "북한에서 예방과 감시 차원에서 계속 가금류에 대한 감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 회원국 중앙 책임자를 배정해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연락망을 통해 24시간 내에 긴급 상황의 발병 통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보건기구는 또 "북한 보건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류 독감 경계 및 감시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식량농업기구(FAO)도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조류 독감 발병 통지나 이에 대한 구호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 노컷뉴스, "WHO, "北 조류 독감 발병 없다"", 2014.1.30

####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포전담당제 강화할 듯

-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하였으나 대회의 정확한 개최 일정은 밝히지 않았음.
- 조선중앙TV는 31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분조장대회 참석자들이 이날 평양에 도착해 광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등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50돌이 되는 올해 열리는 농업부문 분조장들의 대회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 북한은 그동안 '전국농업대회'는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농촌의 최말단 간부인 분조장만 모아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이 분조장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김일성 주석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아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가족영농제와 유사한 '포전담당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됨.
- 그동안 북한 농촌의 최말단 근로공동체는 분조였지만, 이를 다시 몇 개의 포전으로 나누면서 포전담당제의 성과적 정착을 위한 분조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연합뉴스,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포전담당제 강화할 듯", 2014.1.31

#### □ 北, 농작물 우량종자 등록·생산 국가 관리

- 북한이 우수한 농작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자의 등록과 생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음.
- 연합뉴스가 31일 입수한 북한의 '농작물종자관리법'은 "국가는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도록 한다"고 규정함.
-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우량종자를 발굴해 '국가농작물 품종'으로 등록하며 종자 생산이 국가적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음.
- 농작물종자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 12월 14일이었으나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며 법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고 법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음.
- 43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은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농작물 우량종자의 발굴과 생산뿐 아니라 이용과 보존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밝힘.
- 법은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농업기관이 한

다"며 당국이 종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계획에 없는 종자를 생산하거나 당국의 승인 없이 종자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등 종자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행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타개하고자 농작물 종자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나 관리 체계는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농작물 종자의 과학적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각국이 우수한 농작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셈"이라고 말했음.  
연합뉴스, "北, 농작물 우량종자 등록·생산 국가 관리", 2014.1.31

#### □ 北, "내각총리 등 분조장 회의 참가자 격려"

- 북한의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이 1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음.
- 통신은 "박봉주 내각총리와 김기남 비서, 광범기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로두철, 리철만, 리무영 내각부총리 등이 숙소를 찾아 대회 참가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 책임일꾼들은 "지난 기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각을 안고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 일꾼들과 분조장들을 축하했다"고 말함.
-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힌 방침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농촌의 최말단 간부인 전국분조장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짐.  
노컷뉴스, "北 "내각총리 등 분조장 회의 참가자 격려"", 2014.2.2

####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 "농업생산 결정적 전환"

- 북한 협동농장의 기층 조직을 이끄는 분조장들이 총집결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가 6일 평양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분조는 북한 협동농장의 최말단 기층 조직으로, 보통 10~15명으로 구성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보고에서 이번 대회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고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지난해 농사에서 최근년간에 없었던 알곡생산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생산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휘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함.
- 이번 대회 주석단에는 박봉주 총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광범기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리무영 부총리 등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잡았음.
- 대회에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서한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음.  
연합뉴스,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농업생산 결정적 전환", 2014.2.6

#### □ 北 김정은 '포전담당제' 강조...농업개혁 속도내나

- 조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서한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는 언급이 특히 주목됨.
- 북한의 학술지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이 평균주의를 배격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이 강한 톤으로 평균주의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김 제1위원장이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작업실적 평가치)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해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며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줘야" 한다고 밝힌 것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 생산 의욕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며 식량의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대외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의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내부 농업 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보임.
- 연합뉴스, "北 김정은 '포전담당제' 강조...농업개혁 속도내나", 2014.2.7

#### □ 北 "일부 농민에 현물 추가 분배"

- 북한당국이 전국 농업분조장 회의를 앞두고 협동농장원들에게 식량 일부를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함경북도의 한 농업간부 소식통은 19일 "지난 1월 말쯤 각 협동농장 분조단위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완수하고 노력공수를 모두 채운 농장원들에 한해 1인당 강냉이 300kg과 부양가족은 한명에 108kg씩 지급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북한이 올해 경제의 주 타격 방향을 농업으로 정한 뒤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현물분배'를 긴급히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소식통은 이어 "현물분배의 일부라도 지급이 되면서 농민들의 사기는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 자강도의 한 농업관계자도 "지난해 가을걷이 때 매 농장원들에게 70kg씩의 식량을 임시로 지급했다"며 "이를 합치면 농장원 1명에 지급된 현물분배는 모두 370kg이 되는 셈"이라고 말함.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보통 노동자들이 한 해 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식량배급은 모두 합쳐 162kg"이라며 "가을걷이 후 농장원들이 받은 '현물분배'의 양은 노동자들 1년 치 배급의 두 배가 넘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 노컷뉴스, "北 "일부 농민에 현물 추가 분배"", 2014.2.20

## □ 北 "구제역으로 큰 피해...돼지 3,200마리 감염"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구제역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구제역은 지난 1월 8일부터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평양돼지공장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평양시와 황해북도 중화군의 17개 단위들에 전파됐다"며 "구제역 O형에 3,200여 마리의 돼지들이 감염됐고 그 중 360여 마리가 폐사됐으며 2,900여 마리가 도살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했고 전국에 비상방역을 선포했으며 구제역 발생 지역의 교통 차단과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신은 "구제역 예방약과 진단수단의 부족, 소독약 보장에서의 난관 등으로 병이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3년만으로 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의 구제역 발병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北 "구제역으로 큰 피해...돼지 3,200마리 감염", 2014.2.21

## □ 北,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맞아 농업 개혁 강조

- 북한은 25일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아 "농촌문제 해결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라며 농업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사회주의 대지에 빛을 뿌리는 농촌테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농촌건설의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를 밝혔다며 김 주석의 '업적'을 부각했음.
-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면 사설에서 "농사의 주인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라며 "모든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이(성과가) 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 이어 "농촌테제 발표 50돌이 되는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라며 식량 증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음.

연합뉴스, "北,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맞아 농업 개혁 강조", 2014.2.25

#### □ 北, 농업개혁 속 "간부 부인 2,000여 명 농사일 자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황해북도) 신계군 안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라며 "최근 2천여 명의 여성들이 군 안의 농장들에 진출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군당위원회 일꾼(간부)들의 아내들이 남 먼저 농촌 진출의 깃발을 들었다"라며 이들의 뒤를 이어 군 인민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인민보안서 간부의 부인들과 여러 분야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농촌에 진출했다고 밝힘.
- 이어 간부 부인들이 농사일을 자원한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등 보건부문과 식당, 편의봉사시설 등 '비생산 단위'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도 잇따라 농민이 되기로 자원했다고 소개했음.
- 예전에도 도시 주민이나 공무원 등 농사와 관계없는 업종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농장에 이주하는 사례는 없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한 개 군에서 몇 천 명 규모로 농사일을 하겠다고 자원해 나선 경우는 이례적인 일임.
- 입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청년들도 농사일을 기피해 농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김정은 체제 들어 농업 분야의 성과를 부쩍 강조하는 가운데 농촌으로의 노동력 투입을 독려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의 탈북자 이모씨는 전업주부 등 여성들이 농사일을 자원하는 현상에 대해 "장사가 잘되는 도시와는 달리 산골 군에서는 장사도 안되고 일거리도 마땅히 없다"라며 "군당이나 군 인민위원회 간부들도 생활이 어려워 부인들이 농사라도 지어 먹고살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농업개혁 속 "간부 부인 2,000여 명 농사일 자원"", 2014.2.26

## □ 北 "유기농업 도입, 국가적 차원 진행"

- 북한에서 비료부족현상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법 도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했음.
-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유기농 증산대책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구완성한 식물성장조절제를 전국의 농업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함.
- 식물성장조절제는 농작물의 싹트기와 모의 자라기를 촉진하며, 뿌리발육을 왕성하게 해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특히 "이삭패기와 꽃피기를 앞당기며, 여문룰과 천알 당 질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은 두벌농사를 장려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동농장들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소개함.
- 관계자들은 "이 성장조절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성장촉진제들과의 대비시험에서도 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고 말했으며 "거의 모든 작물들에서 성장촉진 및 익기촉진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콩, 강냉이, 밀, 보리, 감자, 목화 등과 고추, 오이, 도마도(토마토)의 열매남새들에서 높은 소출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 곡식인 감자 30%, 콩 20%, 벼와 강냉이 10%의 증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질 좋은 목화를 2배 수확할 수 있었다고도 함.
- 농업과학원의 한 연구소 소장은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단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4~5일정도의 생육기일을 단축하는 이 성장조절제는 농업증산의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北 "유기농업 도입, 국가적 차원 진행"", 2014.3.3

## □ 北 1월 중국산 비료 수입 급증...연초부터 '비료 확보'

- 북한이 올해 농업 증산에 힘을 기울이면서 연 초부터 적극적으로 비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3만 5,113톤을 수입했음.

-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량이 해마다 1~2월에는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임. 작년 1월의 경우 북한이 수입한 중국산 비료는 2톤에 불과함.
- 북한의 올해 1월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한 달 전인 작년 12월(1만 7,416톤)과 비교해도 2배를 넘음.
- 과거 북한은 1~2월에는 중국산 비료를 거의 수입하지 않다가 3월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본격적인 영농철인 4~6월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패턴을 보임.
-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는 비료 확보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비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음.
- 북한의 지난해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20만 7,334톤으로, 2012년(25만 2,789톤)보다 18.0% 감소했음.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료 확보에 적극적인데다 중국도 올해 화학비료의 수출 관세를 인하한 만큼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北 1월 중국산 비료 수입 급증...연초부터 '비료 확보'", 2014.3.4

#### □ 北 비료사정 나아지나?...함흥 비료공장 가동시작

- 북한이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유기질복합비료공장개건공사를 끝내고 생산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음.
- 통신은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낡은 생산건물을 들어내고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치기, 지붕 씌우기 등을 전격적으로 진행해 짧은 기간에 건축공사를 결속(완료)했다"고 전했다.
-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분쇄기, 선별기 등 설비 설치작업을 다그치고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함.

- 통신은 "생산에 지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료를 마련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해 생산능력이 늘어난 공장에서는 질 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서 한 해에 필요한 비료는 155만 톤 정도지만, 실제 생산량은 45~50만 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함경남도에 있는 흥남비료공장이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생산'을 지난 2011년부터 '갈탄 가스화에 의한 생산공정'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이어져 비료 생산량이 더욱 줄어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컷뉴스, "北 비료사정 나아지나?...함흥 비료공장 가동시작", 2014.3.11

#### □ FAO, 北에 구제역 조사단 파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구제역 지원을 위해 13일 조사단을 북한에 보냈음.
- 식량농업기구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이날 "조사단에 비자가 발급돼 13일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조사단은 식량농업기구 소속 구제역 전문가 2명과 수의 분야 역학전문가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음.
- 이들은 북한 내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방역과 퇴치 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임.
- 루브로스 국장은 "식량농업기구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번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북한은 지난 달 19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구제역 발병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23일에는 식량농업기구에 지원을 요청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번에 북한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지난 달 8일 평양의 한 돼지공장에서 처음 증상이 나타난 이후 평양시와 황해북도 내 돼지 공장 17곳으로 번졌음.
- 한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백신 300만 분을 제공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달 29일 "북한 평양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300만 분의 백신을 제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노컷뉴스, " FAO, 北에 구제역 조사단 파견", 2014.3.14

#### □ 北, "유기농법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이유는?

- 북한이 올해 농업생산을 주타격 방향으로 정한 뒤 유기농법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라의 쌀독을 채우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유기농법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유기농법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농법으로 유기농법의 우월성은 이미 우리의 농업생산실적을 통하여 뚜렷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 신문은 "세계적으로도 화학적으로 만든 살충제, 살초제보다 유기물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생물호상(상호)간의 협조, 공생의 원리를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北 "유기농법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이유는?"", 2014.3.17

#### □ 세계자원연구소 "北, 2001년 이후 산림 16만 ha 유실"

- 북한에서 지난 2001년 이후 16만 ha의 산림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민간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은 16만 ha가 유실된 반면 새로 조성된 산림은 1만 3,000ha에 불과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세계자원연구소는 "북한에서 산림유실 규모가 2001년 1만 2,000ha에서 2010년 2만 ha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1만 6,000ha로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
- 지역별로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개마고원 지역, 자강도 강계 인근의 강남산맥

지역, 양강도 대흥단과 백암으로 이어지는 마천령산맥의 산림유실이 가장 두드러졌음.

- 함경남도 함주군과 평안북도 창성군, 함경북도 어랑군과 화성군 등 산악지대도 산림 유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평야가 많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는 산림 유실 규모가 미미했고, 강원도도 고성과 회양, 고산을 제외하면 다른 산악 지역에 비해 산림 유실이 비교적 적었음.

노컷뉴스, "세계자원연구소 "北, 2001년 이후 산림 16만 ha 유실"", 2014.3.18

#### □ 北, 버섯재배운동 대대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버섯재배를 강조한 이후 북한전역에서 대대적인 버섯재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에서 최근 버섯재배가 전사회적,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토대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지난해 버섯재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연구기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고 능력이 큰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이 각 도와 시, 군, 구역들에 일떠섰다(건설됐다)"고 전했다.
- 이어 "함경남도에서는 농장에까지 버섯생산기지와 함께 종균배양장도 꾸려놓고(갓추고)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본보기로 내세워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신문은 "10여 년 전부터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보육원학교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버섯을 생산해 덕을 보고 있다"고 선전했음.
- 특히 "목욕탕보일러에서 나오는 폐열로 순환식 난방체계를 이용한 덕성탄광의 버섯생산기지는 덕천시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며, 개천시 북원협동농장에서 연간 50톤의 버섯생산목표를 내세우는 등 온 나라에 버섯재배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고 했음.

노컷뉴스, "北, 버섯재배운동 대대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2014.3.19

## □ 北, "농업체계개선 위해 농민들 의견 수렴"

- 북한당국이 농업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농장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내각 농업성 '현지 조사구루빠(그룹)'가 만포시 여러 농촌들을 돌아보고 농업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소식통은 "이들은 농업성 간부 2명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간부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협동농장들을 돌아 볼 때에는 현지 '농촌경영위원회' 간부 3명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 함경북도의 한 농업부분 관계자도 "2월 중순부터 농업성 '조사 그루빠'가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번 조사는 농업부분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 농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조사 그루빠'가 농업간부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속에 직접 들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의했으며, 그동안 농업부분의 결함들이 속속 드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도 많이 나왔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 소식통은 '전국농업분조장대회' 이후 농업성과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 간부들이 농민들속에 내려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 소식통은 "이번 농업성 '조사 그루빠'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부림소를 마음대로 기를 수 있도록 사유화 해 달라는 요구와 '국가수매량곡'의 종류 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北, "농업체계개선을 위해 농민들 의견 수렴"", 2014.3.19

## □ 北 비료난... "장마당 거래 단속, 비료 값 폭등"

- 북한이 장마당의 비료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 값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9일 "장마당 담당 주재원(담당경찰)들과 관리원들이 수

시로 나와 쌀 장사꾼들의 짐을 뒤지고 비료를 판매하는지를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지난 2월 초 인민반 회의를 통해 몰래 비료를 팔다가 적발되면 출처를 밝혀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민보안부 '경고문'을 모든 주민들에게 포치(하달)했다"고 말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당국의 단속으로 협동농장에 공급할 비료와 디젤유(경유)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만포시 '농촌자재공급소' 소장과 '농촌수출원천사업소' 소장이 시 검찰소에 구류되기도 했다"고 알렸음.
- 북한의 비료값은 당국의 장마당 비료 단속 강화와 농사철을 앞두고 계속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까지 장마당에서 중국산 복합비료 1kg을 강냉이 1kg과 맞바꾸었지만, 올해는 강냉이 2kg을 줘야 중국산 복합비료의 1kg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北 비료난...장마당 거래 단속, 비료값 폭등", 2014.3.20

#### □ 北, 농경지 확장 '성과' 선전... "냉습지 4만 ha 개량"

-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질 좋은 농지를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북한에서 냉습지 4만여 정보(약 4만여 ha)가 개량됐으며 이는 "알곡 생산계획 수행 방도의 하나"라고 지난 18일 보도했음.
- 냉습지 개량 면적이 가장 큰 곳은 황해남도로, 2만여 정보에 달했으며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에서는 각각 7,000여 정보, 6,000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됐음.
- 북한은 간석지 개간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 노동신문은 이달 5일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가 용매도 간석지 중간방조제를 완공했다며 간석지 건설장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달 24일에는 중앙통신이 평안북도 흥건도 간석지의 방조제 공사 현황을 보도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간석지 건설 성과를 잇달아 소개하고 있음.
-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농자재 공급이나 농업용수 확보



등에 치중하던 기존 농업정책과는 달리 농업 생산의 기반인 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연합뉴스, "北, 농경지 확장 '성과' 선전... '냉습지 4만 ha 개량'", 2014.3.20

#### □ "北, 공장부업지 개인 임대 유행... 최대 5대 5분배"

- 북한의 봄농사가 시작되면서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 부업지를 개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평안북도 소식통은 3월 2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장 기업소가 갖고 있는 부업지를 임대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개인 소토지 농사에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 5대 5까지, 대부분은 3대 7 정도로 수확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약속이 정해진다"고 말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부업지 임대와 관련한 계약조건의 핵심은 수확량에 대한 분배임.
- 공장 기업소 측에서 종자와 비료, 비닐 등을 제공해줄 경우 공장 기업소가 생산량의 70%, 임차인이 30%를 갖으나 임차인이 종자나 비료 등 농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조달하게 되면 생산물에 대한 분배율이 50대 5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임차인)은 5대 5를 선호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3대 7의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장기업소 측에서도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투자하지 않고) 그냥 생산물의 절반을 떼 가는 조건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인맥과 뇌물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농사를 짓는 '실력'이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소식통은 강조함. 그는 "개인 소토지 개간 역사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누가 농사 경험이 많은지, 누가 성실한지 평판이 나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부업지 농사는 원칙적으로 (협동농장) 농장원들은 못 한다"면서 "공장 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 중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장사를 하다 망해서 남의 소토지 농사를 지어주던 사람 등이 부업지를 임대받는 대상"이라

고 덧붙였음.

데일리NK, "北, 공장부업지 개인 임대 유행...최대 5대 5분배", 2014.3.21

#### □ FAO "北 구제역 피해 확산...DMZ 근처 소도 감염"

- 북한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퍼져 북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근처의 소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8일 보도했음.
- FAO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강원도의 DMZ와 가까운 협동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 4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음.
- FAO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24일 3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북한에 보냈음.
- 북한이 돼지 구제역 현황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소들도 감염됐다고 밝힌 적은 없음. FAO는 북한에서 돼지 구제역 피해가 여전히 확산 중이라며 향후 북한에 구제역 검사와 예방 방안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은 지난 1월 평양과 황해북도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돼지 3,200여 마리가 감염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1년 4월 이후 처음임.

연합뉴스, "FAO "北 구제역 피해 확산...DMZ 근처 소도 감염", 2014.3.28

#### □ 농업증산 나선 北,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 대량 수입

- 올해 농업 증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비료 확보에 나선 북한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1만 3,769톤을 수입했음. 이는 전년 동기(1,064톤)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임.
-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3만 5,113톤이나 수입하는 등 예년과는 달리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비료를 사들이고 있음.

- 올해 1~2월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모두 4만 8,882톤에 달하지만 전년 동기에는 1,066톤밖에 안됐으며 2012년 1~2월에도 6,490톤에 불과했음.
  - 북한이 해마다 3월 무렵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중국산 비료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농업 증산을 국가적 목표로 내건데다 북한산 비료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중국산 비료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연합뉴스, "농업증산 나선 北,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 대량 수입", 2014.3.28

#### □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조직인 분조장 역할 강조"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봄 농사철을 맞아 농촌의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인 분조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 노동신문은 이날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분조장의 역할에 따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좌우된다"며 이같이 독려함.
- 사설은 또 "모든 분조장이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잘 정착시킨 여러 모범 분조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지난 2012년 6월 말 '새경제관리체계'를 선언하면서 농업부문 개혁과 관련해 10명~25명 정도인 분조 인원을 작게는 2명, 많게는 6명 규모로 줄이는 가족단위인 포전담당제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노컷뉴스,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조직인 분조장 역할 강조", 2014.3.28

#### □ FAO "北 곡물 생산량 증가 추세...식량부족 개선"

- 북한의 곡물 생산량 증가로 식량부족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고누마 히로유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음.
- 이달 22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 고누마 대표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작황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자연재해의 변수가 있으나 올해 농산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고누마 대표는 작황 증가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한 곡물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함.
- 그는 북한이 2009~2010년에는 8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지만 2013~2014년에는 식량 부족분이 34만 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지난해 쌀 수확량이 11% 증가했고, 옥수수과 밀, 콩 등 전체 곡물 생산량도 4% 늘었다며 병충해에 강한 기능성 쌀 종자 개발과 비료 수급 개선을 증가이유로 꼽았음.
- 그러나 고누마 대표는 북한의 곡물 생산량 증가세에도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FAO "北 곡물 생산량 증가 추세...식량부족 개선"", 2014.3.29

#### □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조직인 분조장 역할 강조"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봄 농사철을 맞아 농촌의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인 분조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 노동신문은 이날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분조장의 역할에 따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좌우된다"며 이같이 독려했다.
- 사설은 또 "모든 분조장이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잘 정착시킨 여러 모범 분조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지난 2012년 6월 말 '새경제관리체계'를 선언하면서 농업부문 개혁과 관련해 10명~25명 정도인 분조 인원을 작게는 2명, 많게는 6명 규모로 줄이는 가족단위인 포전담당제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노컷뉴스,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조직인 분조장 역할 강조"", 2014.3.28

#### □ 北 "농업 '분조관리제' 시행 마찰 잇따라"

- 북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서 '농지분할'과 '분조자율

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북한 당국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분조자율권' 문제를 놓고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매일 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 소식통은 "분조관리제가 바르게 실시되려면 협동농장 분조들에 좋고 나쁜 땅을 고루 나눠줘야하지만, 간부들과의 인연에 따라 배분되는 땅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불만을 가진 분조장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들은 "모든 협동농장들마다 '분조자율권'을 승인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영농자재와 비료를 비싸게 공급하고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낮은(싼) 값으로 가져가는 농업구조가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이미 시범적인 '분조관리제'를 시행한 '김정숙군 협동농장'과 삼지연군 '포태협동농장'에서도 '농지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노컷뉴스, "北 '농업 '분조관리제' 시행 마찰 잇따라", 2014.4.2

#### □ 北 박봉주 총리, "황해남도 협동농장 시찰"

-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황해남도 연안군과 청단군, 배천군 지역의 협동농장의 영농실태를 현지에서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음.
- 통신은 "박 총리가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함.
- 박봉주 총리는 관련 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음.

노컷뉴스, "北 박봉주 총리, "황해남도 협동농장 시찰"", 2014.4.3.

#### □ 北 노동신문 "식량 증산 위해 곡물재배지 늘려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식량 증산을 위해 곡물 재배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내각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소유한 경작지까지도 내각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토지 관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음.
-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고지 점령에 이바지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알곡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알곡재배면적을 늘려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국토의 80%가 산림이고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적은 북한의 조건과 잇따르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작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경작지 확대를 위해 간석지 농사 대책을 세우고 임농(林農)복합경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논과 밭 가운데 있는 건물을 산기슭에 옮기고 불필요한 농로와 물길, 양수장 등을 없애고 논이나 밭으로 재정리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땅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농민)"이라며 "내각에서는 농업성 밖의 단위들에서 가지고 있는 부침땅(경작지)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상별로 알곡생산 과제를 주어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식량 증산 위해 곡물재배지 늘려야"", 2014.4.4

#### □ 北, "중국 주재 무역일꾼들에 비료, 농자재 할당"

- 북한 당국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일정량의 비료와 농사용 자재를 구입해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역일꾼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있는 무역일꾼들에게 1인당 비료 100톤과 비닐박막 30톤을 확보해 3월 말까지 본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소식통은 "기간을 3월 말까지로 정했지만 할당된 물량을 완수한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4월 중에라도 할당된 물량을 완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무역 주재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4월에는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

이 포함돼 무역일꾼들은 상당한 액수의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지만, 비료현물 할당까지 받아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둥의 한 대북무역회사 직원은 “조선대방(무역상)들로부터 비료를 후불(외상)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팩스문건이 날마다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중국에서 거래되는 비료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싼 곳이 요소 비료 1톤에 1,600위안 정도로 할당 된 100톤은 16만 위안(2만 5,000달러)이 넘고 있음.
- 무역 주재원들의 1인당 연간 사업 할당액이 3만~5만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할당된 품목은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노컷뉴스, "北, "중국 주재 무역일꾼들에 비료, 농자재 할당", 2014.4.4

#### □ 北 농사철 맞아 연일 식량증산 독려…과학영농 강조

-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식량증산을 연일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튼튼한 벼모(벼모)를 길러내자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벼모를 튼튼하게 길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첫 공정"이라며 모판 온도와 물, 영양 관리 방법과 병충해 예방책을 상세하게 소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과학농사의 열풍 일고 있는 청산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올해부터 '과학농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종전보다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가 적게 드는 재배 방법과 생산성이 향상된 종자를 쓸 것이라고 소개함.
- 지난달 30일자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 당정책 옹위전의 불길이 타번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업 부문 일꾼들에게 "재래식 농법이 나 낡은 경험만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할 때만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역설했음.

연합뉴스, "北 농사철 맞아 연일 식량증산 독려…과학영농 강조", 2014.4.6

## □ 北 평양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북한에서 1년 만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내각 농업성 리경군 국장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1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하당 닭공장에서 AI가 발생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번에 발생한 AI가 H5N1형이라며 수만 마리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됐으며 다른 양계장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에서는 작년 4월에도 AI가 발생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노컷뉴스, "北 평양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014.4.9

## □ FAO, "北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중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하고 지원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식량농업기구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이 11일 "현재 35만에서 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대북 구제역 감염검사와 방지책 등을 포함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북한에 농장 내 안전과 차단방역을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구제역 관련 도구들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구제역을 직접 퇴치 할 수 있는 백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또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해 해당 예방백신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북한에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음.  
노컷뉴스, "FAO, "北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중"", 2014.4.12

## □ 北 방송 "평양과 황해도 심한 봄 가뭄"

- 북한의 평양과 황해남북도 지방에서 봄 가뭄이 심각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했음.
- 중앙방송은 이날 '가물(가뭄) 통보'를 통해 "봄철에 들어와 서해안 중부 지방에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음.



- 중앙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 동안 황해남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3.1mm로,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특히 이 기간 황해북도 상원, 은파, 수안, 사리원과 황해남도 과일, 안악, 해주, 은천 등의 강수량은 1mm에도 못 미쳤음.
- 중앙방송은 평양도 지난 3월 29일 비가 6mm 내린 이후 끊겼다며 "1982년과 유사한 가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앞으로 4월 말까지도 가물을 극복할 정도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北 방송 '평양과 황해도 심한 봄 가뭄'", 2014.4.17

#### □ 北, "닭 조류독감 추가 발생 보고"

- 평양에서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밝혔다.
- 북한은 16일 리경군 농업성 국장 명의로 "지난 달 27일 평양 소포 닭 공장에서 조류 독감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 북한 당국은 보고에서 "해당 질병의 반복된 발생"으로 현재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한 개 닭장 안에 있던 닭이 죽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몇 마리가 감염돼 폐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3월21일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하당 닭공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수 만 마리의 닭이 폐사했고, 다른 닭공장에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당국이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이번 조류독감은 H5N1형 바이러스로, 지난 9일 첫 통보 당시 4만 6,217마리의 닭이 폐사했다"고 보고했음.
- 북한 당국은 현재 발병 지역 접근을 금지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방 접종이나 감염된 동물에 대한 치료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北 "닭 조류독감 추가 발생 보고"", 2014.4.17

□ "北 조류독감으로 평양에서만 11만여 마리 소각 매몰"

-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평양시의 해당 닭공장과 서포 닭공장들에서 조류독감(H5N1)이 발생해 닭 11만여 마리를 소각 매몰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음.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평양시 형제산구역 해당 닭공장의 2개 호동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수 천 마리의 닭들에서 나팔이 감소증상(폐사)이 나타나 공장의 수의방역일꾼들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함.
  - 이어 "3월 28일에는 이 닭공장과 직선상으로 4km정도 떨어진 서포 닭공장에서도 호흡기 곤란과 누런색의 설사로 인해 닭들의 감소현상들이 나타나 관계부문에서는 즉시 조류독감방지를 위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해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신문은 "하당 닭공장에서 4월 5일 현재 8만 4,900여 마리, 서포 닭공장에서 2만 3,550여 마리의 닭들을 소각 매몰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 평양주재 유엔식량계획과 농업기구(FAO)의 성원들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해당 닭공장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류독감전과방지를 위한 해당 부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향을 표시했음.
  -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최영진 위원은 "현재 H5N1전파에 의한 감염자는 없으며, 병발생지역들뿐아니라 닭, 오리 등 모든 가금단위들의 인원출입이 금지되고 주변지역들에서의 검역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노컷뉴스, "北 조류독감으로 평양에서만 11만여 마리 소각 매몰", 2014.4.22

□ "北당국, 봄 가뭄 심각해지자 한 달 앞당겨 '농촌동원'"

- 북한 당국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 이후 주민들을 일부 농촌지역 지원 작업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도 및 서부 곡창지대에서 봄 가뭄 피해가 우려되자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동원에 나선 것이라고 소식통이 알려졌다.
- 황해도 소식통은 4월 28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태양절 휴식이 끝난 후 17일부터 바로 가뭄(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농촌 동원이 시작됐다"면서 "아침 7

시에 밭에 나가면 앞이 캄캄해 앞을 볼 수 없는 저녁 8시까지 물을 길어오는 등 농촌 동원 사업에 13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 북한은 통상 봄철 40일간 '농촌지원전투' 기간을 정해 학생, 기관기업소, 여맹원 등을 농사에 동원함. 보통 내달 10일부터 지원전투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한 달 가량 앞서 동원된 것임.
-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봄 보리, 감자, 옥수수 등 쌀 대체 작물 피해가 우려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임. 김정은이 연일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당국이 주민과 학생들을 동원해 가뭄에 대한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한편 양강도 지역은 현재 농촌 동원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아직 위(당국)에서 관련 포치가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예년과 같이 5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데일리NK, "北당국, 봄 가뭄 심각해지자 한 달 앞당겨 '농촌동원'", 2014.4.28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sup>1)</sup>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4년 1월 중 남북교역액은 16,949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063만 달러에 비해 6.2% 감소(전월 17,264만 달러 대비 1.8% 감소)
- 반입은 8,75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520만 달러에 비해 8.0% 감소(전월 9,437만 달러 대비 7.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4%, 전자전기제품 34.4%, 생활용품 9.2%, 기계류 6.8%, 화학공업제품 3.3% 등임.
- 반출은 8,19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543만 달러에 비해 4.1% 감소(전월 7,827만 달러 대비 4.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2%, 전자전기제품 28.6%, 생활용품 7.3%, 기계류 6.7%, 화학공업제품 6.6% 등임.

####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4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6.5만 달러로 전월 54.5만 달러 대비 14.7%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입액 8,756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33.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섬유관을 포함한 임산물이 0.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1%),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12.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1)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4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2.0만 달러로 전월 275.3만 달러 대비 8.5%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출액 8,193만 달러의 3.1%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22.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소시지 등 축산물이 1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관 등 임산물이 7.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미역 등 수산물이 5.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4년 2월 중 남북교역액은 16,40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337만 달러에 비해 0.4% 증가(전월 16,935만 달러 대비 3.1% 감소)
- 반입은 8,97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164만 달러에 비해 2.1% 감소(전월 8,755만 달러 대비 2.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46.9%, 전자전기제품 29.3%, 생활용품 11.1%, 기계류 7.0%, 화학공업제품 2.8% 등임.
- 반출은 7,43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73만 달러에 비해 3.6% 감소(전월 8,179만 달러 대비 9.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34.6%, 전자전기제품 24.4%, 화학공업제품 10.1%, 기계류 8.7%, 생활용품 6.7% 등임.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4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6.3만 달러로 전월 46.5만 달러 대비 43.4% 감소하고 2월 전체 반입액 8,974만 달러의 0.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20.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6.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4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0.1만 달러로 전월 252.0만 달러 대비 15.1% 증가하고 2월 전체 반출액 7,430만 달러의 3.9%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25.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0%), 소시지 등 축산물이 51.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 합판 등 임산물이 6.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미역 등 수산물이 6.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4년 3월 중 남북교역액은 18,275만 달러로 전년 동월 19,202만 달러에 비해 4.8% 감소(전월 16,390만 달러 대비 11.5% 증가)
- 반입은 9,29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1,262만 달러에 비해 17.4% 감소(전월 8,974만 달러 대비 3.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1.1%, 전자전기제품 26.2%, 생활용품 8.8%, 기계류 7.6%, 화학공업제품 2.5% 등임.
- 반출은 8,97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940만 달러에 비해 13.1% 증가(전월 7,416만 달러 대비 21.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0.1%, 전자전기제품 23.8%, 잡제품 16.8%, 기계류 7.9%, 생활용품 6.1%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4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1.6만 달러로 전월 26.3만 달러 대비 58.2%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입액 9,297만 달러의 0.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31.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10.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4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59.5만 달러로 전월 290.1만 달러 대비 23.9%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출액 8,978만 달러의 4.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5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8%), 소시지 등 축산물이 9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 합판 등 임산물이 2.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 미역 등 수산물이 14.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표 1. 2014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84,717	339	0.4	농산물	777,053	2,227	2.7
참깨	16,857	92		쌀	4,054	8	
들깨	4,995	25		밀가루	4,632	3	
고추	995	7		참깨	27,300	126	
밤	55,500	178		들깨	11,510	47	
대두유	315	1		사과	39	0	
참기름	1,672	21		오렌지	19	0	
기타유지가공품	4,374	12		감귤	1,030	1	
제조담배	9	2		고추	2,542	15	
				기타채소	156	0	
				밤	100,800	151	
				대두유	4,125	6	
				참기름	1,485	17	
				기타식물성물질	4	0	
				빵제조용재료	850	1	
				겨자	34	0	
				기타소스류	49,468	133	
				향신료	94	0	
				커피	42	0	
				커피조제품	17,144	97	
				코코아조제품	5,224	19	
				제조담배	2,590	144	
				인삼류	110	19	
				소주	5,240	7	
				맥주	4,930	5	
				위스키	228	12	
				기타주류	756	3	
				정당	420	1	
				물	4,793	2	
				과일주스	552	1	
				비스킷	11,160	43	
				곡류가공품	53	0	
				빵	124,803	492	
				면류	97,650	313	
				기타농산가공품	293,116	561	
				면	100	0	

(계속)

(앞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20,220	156	0.2
				돼지고기	2,100	23	
				소시지	9,259	50	
				로얄제리	3,348	37	
				분유	5,000	45	
				기타낙농품	513	2	
임산물	570	1	0.001	임산물	14,824	79	0.1
섬유판	570	1		합판	6,758	12	
				섬유판	2,001	2	
				건축용목제품	4,805	9	
				목재틀	50	1	
				기타목재생활용품	120	1	
				기타목재류	1,030	50	
				천연고무	60	4	
수산물	170,100	125	0.1	수산물	139,642	58	0.1
미역	170,100	125		미역	139,642	58	
합 계	255,387	465	0.5	합 계	951,739	2,520	3.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1호(2014.1.1~1.31)

표 2. 2014년 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41,760	201	0.2	농산물	744,956	2,259	3.0
참깨	14,534	83		쌀	4,787	9	
들깨	10,019	52		보리	1	0	
고추	1,745	14		밀가루	3,088	2	
밤	9,600	31		참깨	13,500	60	
참기름	851	9		들깨	14,250	62	
기타유지가공품	4,411	12		사과	14	0	
박류	600	0		감	15	1	
				오렌지	38	0	
				감귤	75	2	
				양배추	196	42	
				고추	5	0	
				기타채소	675	1	
				장미	5	0	
				기타화초	8	0	
				밤	25,600	38	
				대두유	2,425	4	
				참기름	0	0	
				기타유지가공품	1,650	9	
				기타소스류	38,214	152	
				향신료	158	1	
				커피조제품	30,337	155	
				홍차	24	0	
				제조담배	785	68	
				소주	1,720	2	
				맥주	3,260	3	
				위스키	251	16	
				기타주류	185	7	
				정당	289	1	
				물	11,579	8	
				과일주스	100	1	
				기타음료	78	0	
				비스킷	3,720	14	

(계속)

(앞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곡류가공품	31	0	
				빵	125,360	483	
				면류	123,938	423	
				기타농산가공품	338,594	696	
				종자류	1	0	
축산물	-	-	-	축산물	43,817	514	0.7
				쇠고기	181	4	
				소시지	26,083	164	
				로얄제리	3,502	22	
				분유	12,976	321	
				기타낙농품	1,075	3	
임산물	-	-	-	임산물	43,751	65	0.1
				합판	31,678	40	
				단판	1,000	1	
				섬유판	10,380	8	
				건축용목제품	293	4	
				기타목재생활용품	200	5	
				기타목재류	200	7	
수산물	16,045	61	0.1	수산물	100,354	63	0.1
툰	3,145	52		기타어류	3	0	
미역	12,900	9		툰	927	13	
				미역	99,420	50	
				기타해조류	4	0	
합 계	57,805	263	0.3	합 계	932,878	2,901	3.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2호(2014.2.1~2.28)

표 3. 2014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62,576	313	0.3	농산물	891,623	2,522	2.8
참깨	19,736	111		쌀	4,551	9	
들깨	12,340	67		밀가루	183,832	79	
밤	12,200	39		기타곡분	20,800	83	
들기름	5,415	59		참깨	22,660	100	
기타유지가공품	11,285	37		들깨	10,360	38	
박류	1,600	0		기타채유종실	2,080	4	
				사과	19	0	
				바나나	14	0	
				오렌지	58	0	
				고추	1,060	7	
				기타채소	700	1	
				기타화초	5,000	5	
				밤	14,400	22	
				기타산식물	3,500	9	
				대두유	13,551	18	
				들기름	3,300	29	
				기타소스류	18,416	63	
				향신료	173	1	
				커피조제품	39,698	171	
				제조담배	3,220	221	
				소주	4,360	5	
				맥주	7,300	10	
				위스키	432	39	
				브랜디	780	1	
				기타주류	696	3	
				정당	626	1	
				물	12,214	12	
				기타음료	194	0	
				곡류가공품	18	0	
				빵	132,227	640	
				면류	76,567	266	
				기타농산가공품	308,817	686	

(계속)

(앞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45,758	901	1.0
				소시지	19,241	171	
				로얄젤리	3,846	45	
				분유	20,247	610	
				기타낙농품	2,424	75	
임산물	3	0	-	임산물	47,139	26	0.03
합판	3	0		합판	6,039	10	
				섬유판	5,530	5	
				건축용목제품	4,190	7	
				목제장식품상자	340	1	
				기타목재류	30,040	2	
				수목류	1,000	1	
수산물	138,330	102	0.1	수산물	291,480	146	0.2
미역	138,330	102		미역	231,440	146	
				기타해조류	40	0	
합 계	200,909	416	0.4	합 계	1,276,000	3,595	4.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3호(2014.3.1~3.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3.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2012	36,504	377	1,073,952	45,311	705	897,153	1,971,105	△176,799
2013	20,566	359	615,243	25,562	644	520,604	1,135,847	△94,639
소 계	287,522	823	9,752,036	323,062	1,101	9,676,017	19,428,053	△76,019
2014.1	2,740	180	87,551	3,662	421	81,792	169,345	△5,759
2014.2	2,847	158	89,737	3,622	406	74,163	163,900	△15,574
2014.3	3,288	172	92,969	3,961	416	89,777	182,746	△3,192
소 계	8,875	228	270,257	11,245	546	245,734	515,990	△24,523
총 계	296,397	828	10,022,293	334,307	1,102	9,921,751	19,944,044	△100,542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1~273. <http://www.unikorea.go.kr>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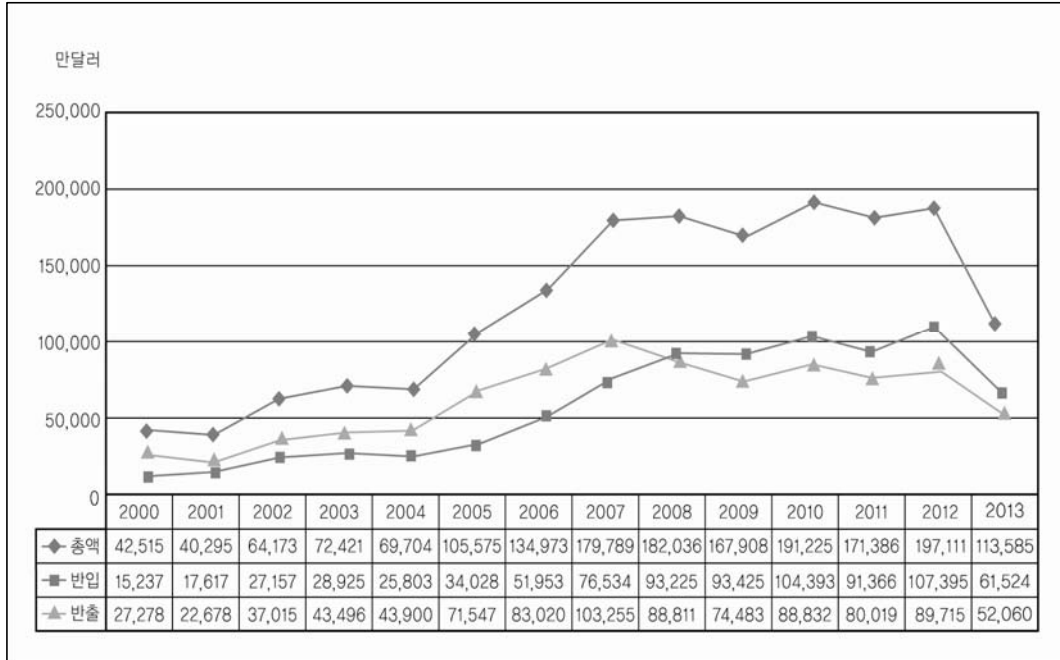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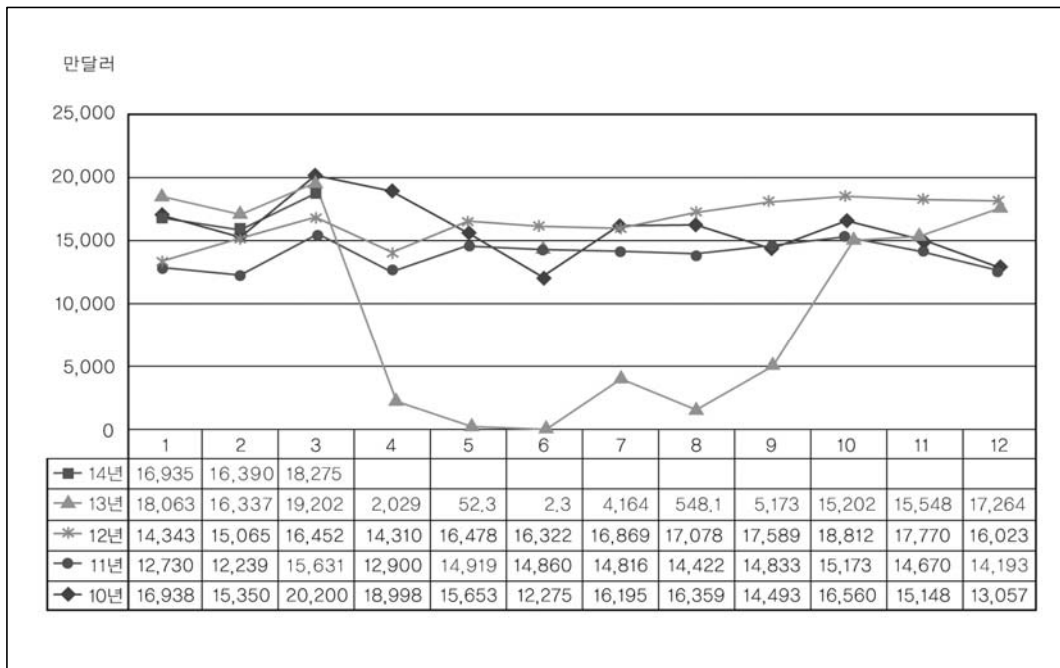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Δ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Δ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Δ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Δ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Δ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Δ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Δ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Δ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Δ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Δ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Δ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Δ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Δ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Δ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Δ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Δ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Δ38,733
2008	70,653	19	183	137,058	207,913	65,516	1,760	6,278	4,685	78,239	286,152	Δ129,674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Δ166,270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Δ46,963
2011	3,343	-	0	2,263	5,607	24,340	641	318	2,167	27,464	33,071	21,857
2012	4,494	-	180	1,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2013	2,170	-	13	1,614	3,798	14,697	814	334	1,192	17,036	20,834	13,238
소 계	524,543	3,336	51,338	1,026,602	1,605,823	1,002,599	28,821	31,315	30,692	1,093,425	2,699,246	Δ512,399
2014.1	339	-	1	125	465	2,227	156	79	58	2,520	2,985	2,055
2014.2	201	-	-	61	263	2,259	514	65	63	2,901	3,164	2,638
2014.3	313	-	0	102	416	2,522	901	26	146	3,595	4,011	3,179
소 계	853	-	1	289	1,143	7,009	1,572	172	267	9,020	10,163	7,877
총 계	525,396	3,336	51,339	1,026,891	1,606,966	1,009,608	30,393	31,487	30,959	1,102,443	2,709,409	Δ504,52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1~273.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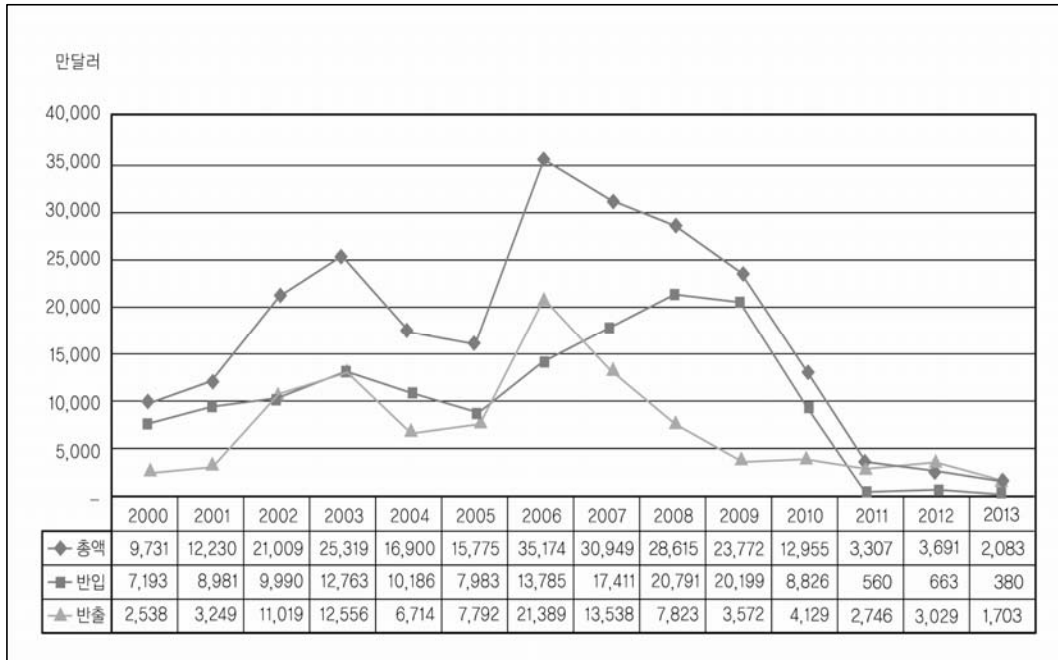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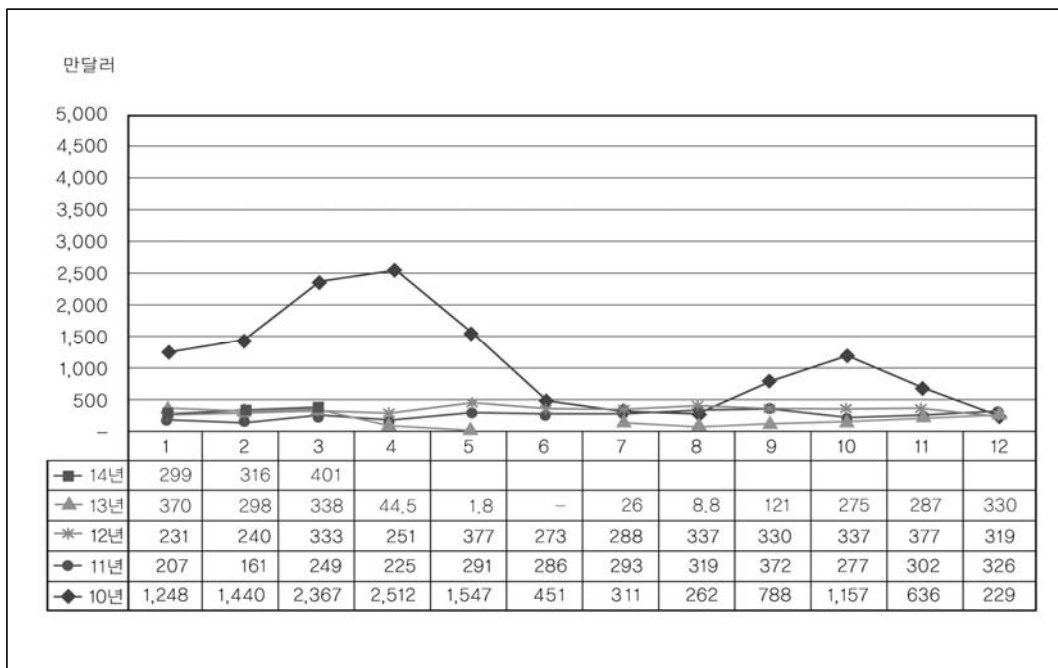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 □ 굿피플-겨레사랑, 北 영유아에 분유 5톤 전달

-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굿피플은 28일 민간 대북지원 단체인 겨레사랑과 함께 북한의 굶주린 영유아를 돕기 위해 5톤 상당의 분유를 현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분유는 중국 단둥(丹東)에서 트럭에 실려 단둥철교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됐음.
-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황해남도 지역의 육아원·애육원·탁아소에 7,500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데, 반복된 홍수와 북한 당국의 구호물품 반입 불허 조치 등으로 최악의 영양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굿피플-겨레사랑, 北 영유아에 분유 5톤 전달" 2014.1.28)

### □ 北 농업지원 재개...자립 돕는다

- 정부가 북한에 농업유전자원저장고 설립과 남북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 건립, 협동농장 운영, 북한식 농업 6차산업화 등 다양한 농업·축산·산림 분야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
- 19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에서 합의한 후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함. 대표적인 검토대상 사업은 농업유전자원저장고 설립과 남북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 건립임.
- 농식품부는 또 북한의 고성과 개성 등지에 협동농장을 운영할 방침임. 이곳에서는 남한의 벼, 콩, 밀, 보리, 감자 등을 심어 발육 상황이나 수확량을 실증시험 할 예정임.
- 금강산지구 등에 축산물, 과수 등의 생산과 소비, 목장·농장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북한식 농업 6차산업화 추진도 검토되고 있음.
- 축산 분야는 다양한 남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육질 등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중씨수소'를 북한에 보급하고, 돼지를 빨리 키울 수 있는 사육법을 전수할 예정임.

- 산림 분야는 연료와 식량 문제로 황폐화한 북한 산을 녹화(綠化)해 홍수와 산사태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를 심어 먹거리도 공급할 방침임.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식량·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 농업협력 재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후 비료 지원이나 협동농장 중심의 생산성 향상, 농업전문가 교류, 농촌개발 등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자료: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北 농업지원 재개...자립 돕는다" 2014.2.20)

#### □ 정부, 10억 규모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 통일부는 민간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21일 승인했다고 밝혔음.
- 승인된 물품은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결핵약(7억 2,000만원)과 '1090평화와 통일운동'의 분유 17톤(3억 4,000만원) 등 10억 6,000만원 규모임
- 이 물품들은 영유아,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분배될 예정임.

자료: <http://www.news1.kr/> (뉴스원, "정부, 10억 규모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2014.2.21)

#### □ 연천군 묘목 대북 지원...1만 3,000㎡ 양묘장 조성 추진

- 경기도 연천군은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대규모 양묘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힘.
- 군은 오는 3월 중 대상 부지를 확정, 1만 3,223㎡(4,000평) 규모의 대북지원형 묘목 증식원을 조성할 예정임.
- 4월에는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할 방침임.
- 북한 산림 황폐화로 접경지역에 예상되는 자연재해를 조기에 막고 비무장지대(DMZ)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군은 설명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연천군 묘목 대북 지원...1만 3,000㎡ 양묘장 조성 추진" 2014.2.26)

## □ 정부, 1억 9,000만원 상당 영양가루 대북지원 승인

-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섬김'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 단체는 1억 9,000만원 상당의 어린이 영양식 제조용 가루를 북한 라선지역 유치원과 소학교 등에 보낼 계획임.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승인 요청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한 번에 몰아서 승인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심사, 허가해주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에 대해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들어 반출 승인된 물품 규모는 6개 단체의 17억 2,000만원 상당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1억 9,000만원 상당 영양가루 대북 지원 승인" 2014.2.27)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北에 밀가루·콩가루 200톤 지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밀가루·영양콩가루 200톤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대북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임.
- 지원물자는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육아원·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산부·산모를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임. 지원량은 북한의 1일 공급량 기준으로 약 10일치에 해당함.
- 북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332개 아동 시설 2만 3,633명의 아동과 2만 9,616명의 임산부 등 총 5만 3,0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물자를 분배하는 내용의 사전분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어린이재단은 전함.
- 어린이재단은 다음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의 유치원·유아원 등을 돌며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北에 밀가루·콩가루 200톤 지원" 2014.3.11)

□ **차, 민생인프라 구축 등 3대 대북제안…'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제의**

-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음.
- 또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월 28일 오전 독일 통일 전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수락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음.
-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 입장도 나타냈는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음.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구성에 남북이 힘을 합하는 것으로 시작해,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임.
- 한국이 북한에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 추진도 제안함.
-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차, 민생인프라구축 등 3대 대북제안…'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제의" 2014.3.28)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4.4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앞에서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sup>2)</sup>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2	-	11,748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292, 유엔기구 10,443,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스웨덴 334 등
19차 '13.1~12	-	6,306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510, 한국 1,234,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노르웨이 262, 러시아 300,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4	-	1,561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650, 스위스 382, 캐나다 359, 프랑스 75, 스웨덴 68, 한국 26
<b>총 계</b>	-	207,875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4)

표 2. 2014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4.1.1.~4.30)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oncern Worldwide	스웨덴	683,164	음용수 및 위생 개선
FAO	CERF	1,000,000	2014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긴급지원
Premiere Urgence	프랑스	220,690	황해남도 식량안보 지원
TGH	프랑스	531,034	농가 식량안보 지원
UNICEF	CERF	300,269	북동부 28개군 취약계층 보건지원
	CERF	300,092	북동부 4개도 취약계층 영양지원
	CERF	399,524	북동부 및 황해북도 보건, 영양 지원
	캐나다	897,666	영양지원(D-000624)
		소계 1,897,551	
UNPF	CERF	250,004	모자안전
WFP	스위스	3,823,450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8)
	CERF	3,247,124	어린이 및 여성 영양지원(PRRO200532)
	캐나다	2,692,998	WFP-PRRO200532 지원(D-000630)
		소계 9,763,572	
WHO	CERF	1,000,000	함경도 및 양강도 모자보건 지원
	한국	260,000	어린이 및 여성 건강 증진
		소계 1,260,000	
<b>합 계</b>		<b>15,606,015</b>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4)

표 3. 2014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4.1.1~4.30)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CERF	FAO	1,000,000	2014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긴급지원
식량	캐나다	WFP	2,692,998	WFP-PRRO200532 지원(D-000630)스위스
	스위스	WFP	3,823,450	낙농제품 지원(7F-00972.18)
	프랑스	Premiere Urgence	220,690	황해남도 식량안보 지원
	프랑스	TGH	531,034	농가 식량안보 지원
			소계 7,268,172	
보건	CERF	UNPF	250,004	모자안전
	한국	WHO	260,000	어린이 및 여성 건강 증진
	CERF	WFP	3,247,124	어린이 및 여성 영양지원(PRRO200532)
	CERF	UNICEF	300,269	북동부 28개군 취약계층 보건지원
	CERF	UNICEF	300,092	북동부 4개도 취약계층 영양지원
	CERF	WHO	1,000,000	함경도 및 양강도 모자보건 지원
	캐나다	UNICEF	897,666	영양지원(D-000624)
			소계 6,255,155	
물과 위생	스웨덴	Concern Worldwide	683,164	음용수 및 위생 개선
	CERF	UNICEF	399,524	북동부 및 황해북도 보건, 영양 지원
			소계 6,255,155	
<b>합 계</b>			15,606,015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4)

표 4. 2014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4.1.1~4.30)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UNICEF	897,666	영양지원(D-000624)
	WFP	2,692,998	WFP-PRRO200532 지원(D-000630)스위스
		소계 3,590,664	
CERF	UNPF	250,004	모자안전
	UNICEF	300,269	북동부 28개군 취약계층 보건지원
	UNICEF	300,092	북동부 4개도 취약계층 영양지원
	UNICEF	399,524	북동부 및 황해북도 보건, 영양 지원
	WFP	3,247,124	어린이 및 여성 영양지원(PRRO200532)
	FAO	1,000,000	2014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긴급지원
	WHO	1,000,000	함경도 및 양강도 모자보건 지원
		소계 6,497,013	
프랑스	Premiere Urgence	220,690	황해남도 식량안보 지원
	TGH	531,034	농가 식량안보 지원
		소계 751,724	
한국	WHO	260,000	어린이 및 여성 건강 증진
스웨덴	Concern Worldwide	683,164	음용수 및 위생 개선
스위스	WFP	3,823,450	낙농제품 지원(7F-00972.18)
<b>합 계</b>		<b>15,606,015</b>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4)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가. 국제기구

#### 국제적십자사, 북한 수해 지원 문제점 보고서 펴내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열린 수해 복구에 대한 연구회의 내용을 담은 '북한홍수보고서'를 31일 공개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해 홍수 피해를 입은 8개 지역의 지도자들과 조선적십자회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지난여름 수해 복구 과정에서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음.
-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도로와 다리, 전선이 끊겨 시골과 외딴 지역의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함.
- 일부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로 사정이 나쁘고 일부 적십자 창고에 물품이 부족해 피해 지역으로 구호물품이 예상보다 늦게 전달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음.
- 참석자들은 "앞으로 북한 전역 7개 적십자 창고의 비축량을 점검하고 보충"하고 "각 마을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더 빨리 소집해 경고와 대피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해 홍수 때 집이 파손된 수재민들은 현재 모두 복구된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북한 당국이 제공한 새로운 집으로 옮겼다"고 보고했음. 또, "강과 하천의 제방 가까이에 위치한 집들은 당국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전함.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수해 지원 문제점 보고서 펴내", 2014.2.1)

#### WFP, 북한 내 영양과자공장 5곳 폐쇄…"자금부족"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내에서 운영하는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을

2월 말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5일 "자금이 부족하고 식품재료인 곡물도 바닥나 공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스카우 대변인은 "올 들어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곡물을 전혀 기부 받지 못했다"며 "공장이 폐쇄되면 지원받던 유치원과 인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스카우 대변인은 "WFP가 1월 한 달 동안 북한의 87개 군 내 69만 5,000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에게 2,385톤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음.
- 스카우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1월 중 주민 한 명 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분배했으며, 이는 지난 해 11월과 12월 배급량과 같은 규모"라고 말함.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FP, 북한 내 영양과자공장 5곳 폐쇄..\"자금부족\"", 2014.2.6)

#### □ FAO, "북한에 구제역 백신 지원 가능"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1일(현지시간) 구제역이 발생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예방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FAO는 지난 1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구제역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하며 북한이 통지 이유를 '감염의 반복 발생'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 아직 북한의 요청이 없지만 만일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리경군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지난달 8일 평양 사동구역의 돼지공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 3,200여 마리의 돼지가 O형 구제역에 감염됐다고 공개했음.
- 북한은 구제역 발생 40일 만에 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감염된 돼지 중 369마리를 폐사하고 2,911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뒤늦게 보고했음.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1년 4월 이후 3년 만임.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FAO \"북한에 구제역 백신 지원 가능\"", 2014.2.22)

□ 유니세프, 올해 대북예산 2,300만 달러 산정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2,300만 달러(약 246억 원)를 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사업에 가장 많은 840만 달러를 투입해 식량이 부족한 임산부와 가임여성, 12개월에서 6살 미만의 유아 490만 명에게 복합영양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임.
- 이 기구는 최근 '2014 아동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28%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다.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예산에서 식수·위생 분야에 590만 달러를 배정했고 보건(530만 달러)과 교육(58만 달러) 사업도 진행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니세프, 올해 대북예산 2,300만 달러 산정", 2014.2.25)

□ "北,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구제역 방역 지원 요청"

- 북한이 구제역 피해와 관련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 FAO는 북한이 지난 23일 구제역의 방역 및 퇴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힘.
- FAO 관계자는 "구제역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가축 전염병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구제역 피해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함.
- 실사단의 방북 일정과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RFA가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구제역 방역 지원 요청", 2014.2.26)

□ 유엔, "WFP 대북사업에 325만 달러 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의 대북 지원자금 가운데는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북한에 대한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325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이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지원은 이 기구의 올해 대북 사업 예산 1억 9,900만 달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지원금 325만 달러를 받아도 2월 말 현재 5개 영양과자 공장을 중단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에서 영양과자 공장을 가동하려면 적어도 8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백만 달러를 배정해 영양을 지원하고 식수와 보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또 식량농업기구(FAO)에 1백만 달러를 배정해 곡물 생산을 증대하고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이도록 함.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엔, "WFP 대북사업에 325만 달러 지원", 2014.2.27)

#### □ 세계식량계획, 대북 지원에 320만 달러 긴급 투입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지원 사업에 320만 달러(약 34억 원)의 본부 기금을 긴급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날 RFA에 북한 어린이·임산부 영양 지원 사업에 이달 초 WFP 본부 기금 32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 모금 부진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데 따른 것임.
- WFP 본부 기금은 세계 각국의 정부나 기업, 개인이 특정 나라를 지정하지 않고 기탁한 기금으로 모금이 부진한 나라를 돕는 데 쓰임.
- WFP는 2015년 6월 말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240만 명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서는 2억 달러(약 2,135억 원)가 필요하지



만, 이달 27일 현재 모금액은 필요액의 13% 수준인 2,560만 달러(약 273억 원)에 그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세계식량계획, 대북 지원에 320만弗 긴급 투입", 2014.2.28)

#### □ "유엔, 북한 활동 유엔기구에 650만 달러 지원"

- 유엔이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4개 기구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뉴욕 본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한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 등에 배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전체 65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325만 달러가 지난달 20일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됐고,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음.
- 나머지 225만 달러는 식량농업기구에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에 25만 달러,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에 100만 달러로 나누어 전달했음.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자체적으로 중앙긴급구호기금을 마련해서 자금부족으로 유엔의 인도주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매년 선정해 기금을 할당해왔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엔, 북한 활동 유엔기구에 650만 달러 지원", 2014.4.1)

#### □ FAO, 北 구제역 퇴치에 40만 달러 지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 4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 식량농업기구(FAO)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2일 "현재 북한의 구제역 감염검사와 방지책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 루브로스 국장은 "식량농업기구는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북한에 방역단을 파견

해 농장 내 안전과 구제역 관련 장비 사용법, 동물 관리와 표본채취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루브로스 국장은 "구제역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악성 가축 전염병인 만큼 '역내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모금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올해 1월 8일 평양의 돼지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평양 령포구역과 락랑구역, 황해북도 중화와 강남 지역으로 번져 사육돼지 1만 4,760마리 가운데 1,688마리가 감염됐다"고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FAO, 北 구제역 퇴치에 40만 달러 지원", 2014.4.3)

#### □ 국제적십자사, "北 나무심기 운동에 나서"

-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에서 자연 재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펴고 있음.
- 국제적십자사는 3일 "지난 2일부터 북한 평안남도의 운산군 등 전국 산간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9만 4,000그루의 묘목을 제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정부에 55만 그루의 묘목을 지원했다"고 말함. 국제적십자사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은 10일 동안 계속되며, 묘목 심기에는 수 만 명의 북한 농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로 홍수 취약지역에 심어질 나무들은 단풍나무,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소나무, 포플러 등으로 알려졌다.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국제적십자사, '北 나무심기 운동에 나서'", 2014.4.4)

#### □ 유엔아동기금, "北, 영양·보건사업에 100만 달러 투입"

-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은 이달 초 지급된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100만 달러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유엔아동기금 아시아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5일 "중앙긴급구

호기금을 영양과 보건 사업에 각각 30만 달러, 식수 사업에 4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유엔아동기금은 영양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증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가운데 합병증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인 '즉석식'을 제공하고 있음.
- 유엔아동기금은 또 영양실조로 합병증이 생긴 아이들에게는 치료용 우유와 필수약품을 제공하고 있음.
- 드 보노 대변인은 "이밖에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 현재 '즉석식' 2,500 카톤(Carton)과 치료용 우유 170 카톤, 항생제와 정맥용 수액제, 13만 명의 임산부와 수유모에게 제공할 '미량영양제'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엔아동기금 "北, 영양·보건사업에 100만 달러 투입", 2014.4.17)

##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미 농업법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 빠져

- 미국 상·하 양원 지도부가 합의한 미국 농업법 상원 통과 법안에 포함돼 있던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음.
- 상원은 2012년 6월 통과시킨 농업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음. 존 케리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공화당 외교위 간사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조항은 2·29 합의 직후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 큰 논란 없이 통과됐음. 그러나 지난해에야 마련된 하원 농업법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음.
- 의회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푸드스탬프 등 두 정당이 철학적 차이를 보이는 조항을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고,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말함.
-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대외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도 의회로 하여금 이 조항을 굳이 살려둬야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임.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미 농업법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 빠져", 2014.1.29)

## □ 프랑스 NGO "북한에 영양개선 지원시설 설치"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가 오는 3월부터 북한에서 운영하는 염소 농장 4곳의 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오는 3월부터 황해남도의 4개 지역에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 베노리엘 담당관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원 시설이 들어설 곳은 '프리미어 위장스'의 염소농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 베노리엘 담당관은 "황해남도에서 운영 중인 4곳의 염소농장에서 생산된 치즈로 어린이 1만 5,000명을 포함한 인근 지역 3만여 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함.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프랑스 NGO "북한에 영양개선 지원시설 설치", 2014.2.1)

## □ 스위스, "북한에 분유 650톤, 400만 달러 규모 지원"

-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황을 우려해 분유 650톤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했음.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이 6일 "스위스 정부가 지난달 23일 북한 주민의 취약계층을 위해 탈지분유는 650톤 약 4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 스카우 대변인은 "분유를 유럽에서 선박으로 보내면 오는 5월쯤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스카우 대변인은 "이 탈지분유를 이용해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가공 공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양강화비스킷과 임산부를 위한 혼합식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위스 정부가 지원하는 분유 650톤은 7개월 동안 북한 주민 125만 명에게 공급될 수 있는 양이라고 함.

- 스위스가 북한 주민을 위해 기부한 금액인 약 64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의 전체 모금액 2,240만 달러의 29%에 해당되는 규모임.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위스, '북한에 분유 650톤, 400만 달러 규모 지원'", 2014.2.7)

#### □ 러시아, "북한에 곡물 5만 톤 지원 예정"

- 러시아는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5만 톤의 곡물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가 밝혔음.
- 티모닌 대사는 7일 평양에서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 티모닌 대사는 "농업 등 일부 경제 분야의 긍정적인 발전 덕분에 지난 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함.
- 티모닌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여름철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악화된다"며, "러시아가 직접적인 방식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음.
-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가 2012년과 2013년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8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음.
- 이밖에 "지난 해 6만 8,000달러어치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약 2,500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러시아, '북한에 곡물 5만톤 지원 예정'", 2014.2.8)

#### □ "유럽 연구단체, 北 토질개선 현장 점검" <RFA>

- 북한과 토질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인 유럽 농업연구단체가 북한 현지를 찾아 연구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 영국에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센터(CABI)는 10년 전부터 북한 연구기관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곳으로, 1월 25일부터 3주간 관계자가 방북, 연구 진행 상황을 조사함.

- 이 단체는 이번 방북에서 평양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등 평양과 황해도의 공동 연구 기관과 해충 퇴치 연구 결과를 적용해 작물을 시험 재배 중인 평양 인근 시범농장을 방문했음.
- 이 단체는 올해 평안북도 신의주와 강원도 고산, 황해남도 해주 등 3개 지역으로 시범 재배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지원 사업도 시작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럽 연구단체, 北 토질개선 현장 점검", 2014.3.1)

#### 유진 벨 선교사 가족 대북지원 "우물 파는 시추기계 지원"

- 유진벨 선교사의 외손자인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북한의 협력 기관인 지하수개발연구소의 요청으로 지난 11일 중국산 중장비용 대형트럭을 보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음.
- 린튼 대표는 "북한 지하수개발연구소에서 '웰스프링'이 보낸 시추기계 두 대와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금(UNICEF)이 기증한 기계 한 대를 관리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계가 추가되면 1년에 팔 수 있는 샘이 30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음.
- 린튼 대표는 "중국 세관 통관 문제로 반 년 가량 지연된 영국산 사륜구동 승용차도 지난해 말 북한에 보냈다"면서 시골 길이나 비포장도로를 잘 달리는 사륜구동차 덕분에 지하수개발연구소의 활동영역도 넓혀졌다"고 설명함.
- 린튼 대표는 "2007년부터 매년 평균 두 차례씩 북한을 방문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 샘을 파왔다"며 지금까지 200여 개의 우물을 팠다"고 소개했음.
- 그는 "앞으로 북한 12개 시도에 깨끗한 물을 찾을 시추장비를 한 대씩 보내서 전국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 등 1만여 곳에 우물을 파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진 벨 선교사 가족 대북지원 '우물 파는 시추기계 지원'", 2014.3.14)

#### 英단체, 北 작년 수재민에 3억 원 규모 구호물품 지원

-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30만 달러(약 3억 2,000만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음.

- 영국 민간단체 '셸터박스'는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수재민 1,200명에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천막과 담요, 물통 등 생필품이 포함된 구호상자 448개를 내달 분배할 계획임.
- 셸터박스는 원래 구호물자를 지난해 11월께 분배할 계획이었으나 통관 지연으로 지원이 늦어졌음.
- 이 단체는 2000년부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를 돕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2007년 수재민 구호를 계기로 지원을 시작함.
- RFA는 또 북한에서 농업 지원사업을 벌이는 유럽 농업연구기관 유기농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오는 8월부터 평양 인근에 암소 사육 시설을 세워 축산 관련 교육과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북측과 공동으로 축사에서 암소 16마리와 어린 암소 4마리를 기르면서 적은 투자로 높은 생산성을 얻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임.
- 이 단체 대변인 비아테 후버는 "북한은 외부에서 사료를 수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단체, 北 작년 수재민에 3억 원 규모 구호물품 지원", 2014.3.25)

#### □ "스위스, 올해 대북지원 예산 86억 원 책정"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00만 달러(약 86억 원)를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음.
- 토머스 휘슬러 SDC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이 같이 밝히고 이 가운데 380만 달러(약 41억 원)는 600톤의 분유 지원에 투입했으며, 나머지 420만 달러(약 45억 원)는 북한에 수질개선 기술과 산림농법을 전수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외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스위스 정부가 보낸 분유 400톤이 지난 3일 남포항에 도착했음.

- 이 분유는 230만 달러(약 25억 원) 상당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이 운영하는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과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스위스, 올해 대북지원 예산 86억 원 책정", 2014.3.26)

#### □ ACAPS, "北, 3년째 인도주의 감시 대상국 분류"

-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1일 '세계 위기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 ACAPS는 전세계 국가의 인권, 식량 위기, 자연 재해 등 인도주의 상황을 파악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곡물 수확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240만 명이 외부로부터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지난 6개월간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국가 114개의 인도주의 상황의 분석한 것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를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ACAPS "北, 3년째 인도주의 감시 대상국 분류", 2014.4.2)

#### □ 프랑스 NGO, "北 노인에 백만 달러 식량지원"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H)는 올해부터 북한 노인들을 위한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1월부터 오는 2016년 3월까지 유럽연합 국제개발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00만 달러로 '은퇴자시설에 사는 노인들의 식량문제 개선사업'을 펴게 된다"고 말했다.



- 우선 지원 대상은 조선노인연맹 중앙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18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200여명의 노인들로 알려졌다.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1980년 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이은 몰락 이후 북한 주민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면서 "특히 공공배급체계의 붕괴로 도시 노동자들과 은퇴한 노인들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프랑스의 구호단체는 도움이 필요한 북한 노인의 규모가 약 315만 명에 이른다 고 추산함.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프랑스 NGO "北 노인에 백만 달러 식량지원", 2014.4.11)

□ 프랑스 NGO, "황해도 지역 주민에 식량지원 사업"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는 지난 2월부터 황해남도 지역에서 영양섭취를 위한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프리미어 위장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지난 2월 1일부터 황해남도의 4개 염소농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어린이 1만 4,000여 명 등 모두 1만 7,000명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사업비 16만 유로(22만 달러)로 염소 농장에서 생산한 치즈로 어린이들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지원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두유도 함께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 프리미어 위장스는 또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에 90만 유로(미화 약 125만 달러)를 들여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의료기 설치와 지역 보건소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그리고 건강 자료와 정보기기 확충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프랑스 NGO, "황해도 지역 주민에 식량지원 사업", 2014.4.19)

□ "스웨덴 적십자사, 대북 지원사업에 50만 유로 제공"

- 스웨덴 적십자사가 북한 평안남도 지역의 재난 극복 및 영양상태 개선 사업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50만 유로(약 7억 2,000만원)를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전했다.

- IFRC와 스웨덴 적십자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3년간 평안남도 북창군과 은산군 지역에서 재난관리와 식량안보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사업을 위해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적십자사가 지원한 자금과 이번에 스웨덴 적십자사가 제공한 자금을 포함한 총 74만 유로(약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니나 펄슨 스웨덴 적십자사 북한담당 국장은 VOA에 북창군과 은산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난 극복을 돕고 영양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심고 채소 재배 온실을 지어 주민들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IFRC와 스웨덴 적십자사는 이 지역에 침식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무와 유실수를 심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둑을 쌓을 예정이다.
- 또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주방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스웨덴 적십자사, 대북 지원사업에 50만유로 제공", 2014.4.24)

### 3. 북중 교역 동향

####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3~2014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3. 1	0	227	0	78	498	220	1,023
2	0	1,978	1,100	116	7,496	464	11,154
3	0	2,030	2,136	0	8,171	194	12,531
4	0	972	1,619	78	8,829	370	11,868
5	0	663	1,902	78	7,388	29	10,060
6	0	694	4,455	0	5,819	968	11,936
7	0	414	3,271	78	4,880	5,161	13,804
8	0	743	3,976	78	5,393	5,248	15,438
9	0	22,241	3,035	0	5,235	26	30,537
10	0	149	2,437	78	6,786	10	9,460
11	0	982	1,166	0	6,880	271	9,299
12	0	814	3,407	39	4,481	155	8,896
2013.1~12	0	31,907	28,504	623	71,856	13,116	146,006
2014. 1	0	4	523	116	5,122	8	5,773
2	0	0	0	0	2,537	4	2,541
3	0	449	173	0	2,986	4	3,612
4							
5							
6							
7							
8							
9							
10							
11							
12							
2014.1~12	0	453	696	116	10,645	16	11,926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3~2014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3. 1	0	540	0	120	1,172	342	2,174
2	0	5,265	1,940	180	16,334	614	24,333
3	0	5,624	3,580	0	18,202	265	27,671
4	0	2,576	3,084	120	19,647	423	25,850
5	0	1,774	3,169	120	16,042	37	21,142
6	0	1,876	7,392	0	12,516	1,274	23,058
7	0	1,167	5,540	120	10,419	5,742	22,988
8	0	1,910	6,998	120	11,712	6,064	26,804
9	0	50,613	5,483	0	11,077	35	67,208
10	0	375	4,451	120	14,354	10	19,310
11	0	2,527	2,022	0	14,709	325	19,583
12	0	2,325	5,869	60	9,702	180	18,136
2013.1~12	0	76,572	49,528	960	155,886	15,311	298,257
2014. 1	0	10	922	180	11,383	7	12,502
2	0	0	0	0	5,748	4	5,752
3	0	1,182	319	0	6,505	3	8,009
4							
5							
6							
7							
8							
9							
10							
11							
12							
2014.1~12	0	1,192	1,241	180	23,636	14	26,263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4년 3월 북한은 중국에서 8,009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2월에 비해 곡물 수입량이 증가함.
  -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임.
  - 북한이 3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000여 톤의 옥수수 300여 톤의 쌀을 수입함.
- 올해 들어 북한은 3월까지 중국에서 총 26,263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곡물 총 수입액에 있어서도 1,193만 달러로 2013년 같은 기간의 2,471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4년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곡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옥수수 4.5%, 쌀 4.7%, 밀가루 90.0%로 밀가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 지난해 옥수수 및 쌀 작황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북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밀이나 밀가루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임.
- 2014년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가격은 450달러로 2013년 평균 수입가에 비해 소폭 하락함.
  - 2014년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의 톤당 수입 단가는 450.0달러, 2월 441.4달러에서 3월에는 459.0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14년 4월 2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02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260달러, 대두는 551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2014년 1월 말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4월 25일 기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당 1,050달러(FOB 본선인도가격, 도정율 4% 1등급, 25kg 부대 포장 품질 기준), 태국산 장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당 400달러(FOB, 100% B등급 기준)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쌀 가격이 상승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 가격은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톤당 600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1,100달러로 급등함.

- 2014년 4월 28일 중국 정주선물거래소(ZCE)의 근월물 쌀 선물가격은 톤당 2,197위안, 태국농산물선물거래소(AFET)의 5% 백미 근월물 선물가격은 톤당 12,680바트로 전월에 비해 약간 하락 내지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3~2014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3. 1	1	0	0	0	1
2	203	0	0	0	203
3	4,697	0	0	1,710	6,407
4	18,775	0	27	902	19,704
5	7,897	6	23	3,122	11,048
6	2,101	0	0	1,335	3,436
7	11,488	0	0	124	11,612
8	3,715	0	0	0	3,715
9	611	0	3	8	622
10	125	0	4	8	137
11	1,220	0	0	6	1,226
12	3,680	0	0	0	3,680
2013.1~12	54,513	6	57	7,215	61,791
2014. 1	7,436	0	45	1,804	9,285
2	3,941	0	61	14	4,016
3	4,788	2	10	383	5,183
4					
5					
6					
7					
8					
9					
10					
11					
12					
2014.1~12	16,165	2	116	2,201	18,48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3~2014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3. 1	2	0	0	0	2
2	1,064	0	0	0	1,064
3	24,371	0	0	3,288	27,659
4	60,736	0	31	1,826	62,593
5	30,457	54	29	8,109	38,649
6	5,578	0	0	3,616	9,194
7	33,598	0	0	403	34,001
8	10,477	0	0	0	10,477
9	1,914	0	3	13	1,930
10	400	0	3	4	407
11	3,934	0	0	8	3,942
12	17,416	0	0	0	17,416
2013.1~12	189,947	54	66	17,267	207,334
2014. 1	29,870	0	233	5,010	35,113
2	13,457	0	312	41	13,810
3	18,801	5	25	1,331	20,162
4					
5					
6					
7					
8					
9					
10					
11					
12					
2014.1~12	62,128	5	570	6,382	69,085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4년 1월 북한은 중국에서 35,113톤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나 2월에는 수입량이 13,810톤으로 하락한 후 3월에는 다시 20,162톤으로 증가함.
  - 3월 북한이 수입한 비료는 요소 12,801톤, 유안 6,000톤, 복합비료 1,331톤임.
  - 금년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69,08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725톤의 2.4배에 달함.
  
- 금년 들어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65%는 요소비료이며 유안이 25%로 두 종류의 비료를 합하면 전체 수입량의 90%를 차지함.
  - 2014년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34,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00여 톤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함.
  
- 2014년 3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302달러, 153달러로 2013년의 평균 수입단가 351달러, 184달러에 비해 각각 14.0%, 16.8% 하락하였음.
  
- 북한이 금년 들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비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식량 증산 실적을 이어 감으로써 민생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자체 비료 생산실적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비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료 수입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비료의 총공급량은 적정 소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4~5월 영농철의 비료 공급이 금년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방도<sup>1)</sup>

전 영 철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감자농사를 잘하는 것임.
- 감자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다수확작물임. 감자는 정보당 보통 20톤, 30톤의 수확을 낼 수 있으며 좋은 종자를 심고 비배관리를 잘하면 60톤, 80톤도 낼 수 있음. 감자를 정보당 30톤씩 내도 알곡으로 환산하여 7~8톤씩 생산하는 것으로 되고 60톤씩 내면 정보당 15톤씩 생산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다른 알곡작물의 생산성과 대비하여 볼 때 대단한 것임.
- 대흥단군을 비롯한 양강도의 여러 지방은 물론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자강도와 강원도, 황해북도의 많은 지역들이 감자농사의 적합지임. 고산지대의 토지를 적극 이용하여 감자농사를 잘 짓게 되면 많은 감자를 생산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음.
- 감자농사에서 식량원천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그것이 음식물로서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감자에는 녹말과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주식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물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감자는 건강식료품으로써 정상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음.

1) 경제연구, 2014년 제1호(누계 162호), 2014.

- 그리고 감자농사를 잘하면 그것을 원료로 고기생산을 늘려 고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감자재배면적을 늘려야 함.
  - 논벼와 강냉이만을 일률적으로 심지 말고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매개 지역, 농장의 자연기후적조건과 토양조건에 맞게 감자를 심어야 하며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자생산을 전문화해야 함. 감자를 심을 수 있는 모든 고산지대에서 감자농사를 잘 해야 함.
-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한 종자를 개량하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혁신해야 함. 감자는 다른 작물과 달리 바이러스에 의하여 빨리 퇴화되며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된 감자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수확고가 떨어지게 됨.
  - ‘대홍 1호’ 품종과 같은 우량종자를 얻어내 무바이러스감자종자원종체계와 채종체계를 세우며 물거름을 많이 내야 함.
- 통알로 감자를 심는 방법을 비롯하여 앞선 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감자역병과 병충해를 막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함. 그리고 감자밭 김매기와 감자캐기를 비롯한 감자농사 전공정에서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하며 감자수송을 바로 선택하고 저장, 가공을 제대로 해야 함.

## 현 시기 산림조성 및 보호 통계지표체계를 정확히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sup>2)</sup>

김 용 호

-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조성 및 보호실태부터 정확히 조사연구하고 숫자적으로 분석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통계지표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함.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란 일정한 시기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활동의 양적측면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통계학적 수단을 말함.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사업이란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개괄하여 구체적인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들을 얻어내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에 반영된 현상을 분석하는 사업임.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체계는 첫째로 산림업부문에 당의 산림정책 관철정형을 파악하고 분석통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세워야 함.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체계는 둘째로 실정에 맞게 세워야 하며 셋째로 여러 가지 통계지표종류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세워야 함.
  - 현물표시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는 현물표시측정단위에 의하여 숫자적 크기가 표현되는 지표임. 현물표시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는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규모와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현물소재적으로 보여주며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결과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함.

2) 경제연구, 2014년 제1호(누계 162호), 2014.

- 화폐표시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는 산림조성 투자액, 산림피해액 등과 같이 화폐적 측정단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임.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는 다음으로 그것이 반영하는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양적측면의 내용에 따라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도 구분할 수 있음.
  - 양적지표는 사업과 활동의 단순한 결과 또는 조건을 반영하는 지표를 말함.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산림업부문 노력자수, 설비대수 등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며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단순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나무모대수, 산림조성면적 등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됨.
  - 질적지표란 일정한 단위에서의 사업조건이용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함.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에서 질적지표의 예로서는 산림조성률, 사름률 등과 같은 지표들을 들 수 있음.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는 반영되는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을 어떠한 단면에서 보여주는가에 따라 세부통계지표와 종합통계지표로 나눌 수 있음.
  -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을 반영하는 종합통계지표와 세부통계지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에 대한 파악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체계는 넷째로, 산림조성 및 보호계획지표체계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음.
- 다섯째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체계는 끊임없이 세분확대되어야 함.
  - 산림조성통계지표에는 나무모기르기와 관련된 지표, 나무심기와 관련된 지표, 심을 나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등이 속함. 나무모기르기와 관련된 지표에는 나무종자량확보정형을 보여주는 지표, 나무모발면적, 나무모생산량 등의 지표들이 포함됨. 나무심기와 관련된 지표에는 산림조성 대상지들의 유형별 면적분포정형과 심은 나무종류별 면적지표 등이 반영됨.
  -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사름률지표임. 산림조성통계지표에서는 산림조성실태를 폭넓게 보여주는 산림조성률, 산림축적과 관련된 통계지표들, 조성된 산림의 질적상태를 보여주는 통계지표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함.



- 산림보호통계지표에는 산불방지와 관련한 통계지표들, 산림병해충 피해방지와 관련된 통계지표들, 산림토지보호와 관련된 통계지표들이 포함됨.
- 산불방지와 관련된 통계지표에는 산불방지대책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실제 산불이 일어난 경우 그 끄기정형과 피해정형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포함시켜야 함.
- 산림병해충피해방지와 관련된 통계지표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정형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그 방지와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시켜야 함.
- 산림보호와 관련한 통계지표에는 산림토지유실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산림토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함.
-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에서는 여러 가지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들의 변동상태를 특징짓는 지표들도 포함됨. 이러한 산림조성 및 보호통계지표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연구 및 분석목적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음.

## 과수농장소득분배에서 보상금공간을 윽게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sup>3)</sup>

현 성 호

- 과수농장에서 소득분배를 올바르게 실시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보상금공간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임.
- 보상금은 과수농장의 작업반 사이에 자연경제적조건과 생산조건의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소득의 차이를 조절하여 계획상으로 채산을 맞추고 소득의 분배에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금액임.
- 과수농장에서는 보상금처리를 제대로 해야 밭의 지력과 위치, 과일나무종류와 품종, 나이별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해 생긴 소득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어느 작업반에서 일하든지 같은 부류의 노동을 했을 때에는 같은 양의 분배몫이 배당되도록 할 수 있음.
- 과수농장에서 작업반사이에 생긴 소득의 차이를 없애고 분배몫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을 세울 때 작업반 사이의 보상금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맞춰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소는 윗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계획을 자기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원칙에서 구체화 해 내려보내야 함.
- 그런데 작업반들이 과일밭의 지력과 위치, 과일나무종류와 품종, 나이별구성의 차이로 인해 독립채산제의 요구에 맞게 재정계획을 세웠으나 작업반수입으로 지출을 자체로 맞추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됨. 이러한 경우에는 과수농장의 실정에 맞게 작업반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보상금을 서로 주고받도록 해야 함.

3) 경제연구, 20143년 제14호(누계 162호), 2014.

- 과수농장에서 작업반사이에 보상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분배몫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과수작업반사이의 분배몫균형을 반영하는 지표에는 세대당 분배몫, 작업반원 한사람당 분배몫, 노력일(등록점수)당 분배몫 등이 있음.
  - 세대당 분배몫지표는 농장적범위에서 종업원들의 분배몫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임. 그러나 이 지표는 세대당 종업원수에 따라 분배수준이 달라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각이한 작업반사이의 분배몫균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작업반사이의 분배몫균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서는 노력일(등록점수)당 분배몫임. 그 이유는 같은 노동에 대한 같은 지분의 원칙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임.
  - 과수농장에서 노력일당 분배몫지표에 기초한 보상금규모는 농장적인 노력일당 계획분배액과 해당작업반의 노력일당 계산된 분배액, 해당 작업반의 총 노력일에 기초하여 규정함.
- 작업반의 보상금규모 =  $\left[ \frac{\text{노력일당}}{\text{계획분배액}} - \frac{\text{해당 작업반의 노력일당}}{\text{계산된 분배액}} \right] \times \frac{\text{해당 작업반의}}{\text{총 노력일}}$
- 보상금은 결산분배에 가서 작업반의 생산성과에 관계없이 재정계획을 세울 당시 금액으로 조절해주어야 함. 그래야 매개 단위들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게 되며 보상해주는 단위에 상관없이 자기 단위의 생산 및 경영활동의 성과에 맞먹는 분배자금을 마련하게 됨.
  - 이와같이 보상금공간을 옹계 적용하는 것은 과수작업반사이에 생산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업원의 분배몫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획수행률이 같은 경우 같은 분배몫이 배당되게 함.



E02-2014-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6권 제1호

찍 은 날	2014. 4	펴낸날	2014. 4
발 행 인	최 세 균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a href="http://www.krei.re.kr">http://www.krei.re.kr</a>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